



광복  
70주년 기념

The 70th Anniversary of Korean Independence

우리 모두 하나되어  
"Together As One"

2015. 8. 15

발행 LA 광복 70주년 범동포 준비위원회

Published by The Los Angeles Special Committee for the Celebration of the 70th Anniversary of Korean Independence







길민택 편집 위원장

## 이 책을 내면서...

“1910년[10월]에서 1945년[8월]이란 35년 간 그들은 강제로 우리에게 한국을 지우려 했다. …… 그렇게 폭력을 사용하여 언어를 바꾸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옷을 바꿔 한국의 정신과 걸모습을 지우려고 한 그들. …… 조선을 강제로 지우려 죽이고, 고문하고, 또 자라나는 아이들에겐 그들이 만든 학교에서 왜곡된 우리의 역사를 가르치고……”

(글짓기 대회 1등한 유명희씨 글 중에서)

**뼈아픈 조국의 역사, 우리는 잊을 수 없다.  
국력이 강해야 그런 과거를 되풀이 하지 않는다.**

**우리는 비록 미국에 살고 있지만,  
강한 조국을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우리는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여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의 자라나는 후세를 지원하고 키워야 한다.  
우리는 미국에서의 정치적 역량을 키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표에 참여함은 물론,  
지혜롭게 표를 모아줘야 우리의 힘이 배가 된다.**

• 이책을 내면서 .....	03
<b>제 1 부 광복 70주년 경축 행사 및 축하의 글</b>	
• 인사말 - 총괄 위원장 제임스 안 .....	06
• 개회사 - 대회장 홍명기 .....	07
• 경축식 프로그램 순서 .....	08
• 공연자 안내 .....	10
• 현기식 - LA 하늘 높이 태극기 휘날린다 .....	12
• 미주 독립 운동가 탐방 - 송헌주 선생 .....	14
• 축 사 .....	16
• 미술대회 수상작 .....	21
• 웅변대회 / 글짓기 대회 수상작 .....	22
• 테니스대회 .....	28
• LA족구대회 .....	29
• 여,야 국회의원 초청 포럼 - 재외 동포 정책의 과제와 방향 .....	30
<b>제 2 부 광복 70주년 경축 기념 글 모음</b>	
• 미주 한인 역사 - 장태한 .....	32
•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 LA한국문화원 .....	36
• 미주한인 사회와 독립 투쟁 - 윤병욱 .....	38
• 미주지역 독립 유공자 명단 - 이승만 외 173명 .....	41
• 코리아타운 역사와 사람 이야기 - 민병용 .....	42
• 해외 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육 - 경정아 .....	46
• 반일보다는 극일을 - 영 김 .....	50
• LA한인타운 경제 - 한미은행 .....	52
• 미국 사법제도와 한인 법조인 - 길민택 .....	54
• 한인 이민 사회와 교회의 역할 - 백지영 .....	59
• 미국속의 한국 문학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 김문희 .....	61
• 로스앤젤레스 한인 동포사회 언론 - 라디오코리아 .....	64
• 한인타운의 어르신들의 삶 - 정문섭 .....	66
• 로스앤젤레스한인회 어제 그리고 미래로 - 민병용 .....	68
• 한류 스포츠 - 문상열 .....	72
• 미주 한인의 정치력 결집과 신장을 위한 제언 - 김창준 .....	75
• 미주한인 정치참여의 모범- 김동석 .....	79
〈수필〉 • THE WHITE HOUSE STORY OF MY LIFE - 진교륜 .....	84
• 40년만에 부활된 재외국민 참정권 - 이내운 .....	89
• 기업이 성공하려면 - 고석화 .....	95
• 3권 분립형 기업 지배구조와 기업의 성과 - 노광길 .....	97
• 직원이 주인같은 마음으로 - 유승원 .....	99
• 미국에서의 성공적인 자녀교육 - 차종환 .....	101
• 유대인의 성공과 유대인 사회 - 이 철 .....	104
• HMO 보험은 메디컬 그룹 선택이 최고 중요 - 차민영 .....	107
• 남가주한인간호사협회 - 김혜자 .....	109
• 미주한인사회의 보수와 진보는 - 이병도 .....	111
• 코리안 가든의 필요성 - 원 클라라 .....	113
• 코리안-아메리칸으로의 정체성 - 배국희 .....	115
• 편집후기 .....	118
<b>제 3 부 협찬해 주신 단체 및 기업들</b> .....	119





70

광복70년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제1부

광복 70주년 경축 행사 및 축사



회장 제임스 안  
로스앤젤레스 한인회

동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광복 70주년 커뮤니티 행사를 총괄하고 있는 로스앤젤레스한인회 회장 제임스 안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광복 70주년, 그 가슴벅찬 감동에 함께 참여하여 주신 동포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여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에 헌신하시고 끝내 숭고한 희생까지 감내하신 순국선열들과 후손들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해외독립운동의 산실로 우리 한인들은 힘든 이민생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며 번 돈을 아낌없이 임시정부를 도우며 독립운동을 펼쳤으며 이런 기나긴 위대한 여정의 결실을 맺어 광복으로 돌아 온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번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동포사회가 일본의 잘못된 역사관을 바로 세우는데 한마음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인 지난5월 LA를 방문했던 일본 아베총리의 과거사 사죄 촉구 시위집회 당시 한,중,일,대만 등 여러 커뮤니티가 하나되어 한 목소리로 아베정권을 규탄하던 현장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저는 일본정부가 독일의 전례를 좇아 하루속히 진심으로 과거사를 사죄하고, 아직 생존해 계신 피해자들께 마음에 위로를 전해주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강합니다.

일제침략과 한국전쟁으로 폐허나 다름없던 국가를 G20 선진경제국가로 발전시킨 저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때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이었던 일본을 많은 부분에서 이미 일본을 앞질렀고 또 다른 분야는 앞지를 수 있는 텃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무엇 하나 뒤질 것이 없습니다. 당당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며 철저하게 과거사를 바로 잡는데 우리 모두 힘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역사적인 70주년 8.15 광복절에 함께 참여해 주신 70여 동포단체들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드리며, 여러분과 더불어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한인커뮤니티로 도약해 나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유구한 반만년 역사를 이어온 우리 민족이 나라의 주권이 빼앗긴 35년간의 암울한 식민지에서 벗어나, 찬란한 빛을 되찾은 8.15 광복 70주년을 맞이 했습니다.

오늘날의 풍요와 번영, 그리고 자유와 평화는 애국선열이 바친 고귀한 목숨과 땀과 눈물로 일구어온 선조들의 희생으로 되찾은 빛, 조국 대한민국의 광복이 있었기에 가능 했습니다.

장구한 우리의 역사와 숭고한 민족의 정신인, 우리의 기상과 열을 우리가 뚜렷이 인식하여 함양시키며,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후손들에게 계승시키는 일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역할이고 사명이라고 다시 다짐해야 겠습니다.

오늘 8.15 광복절 70주년 기념 경축 대회를 맞이하여 우리의 조국과 750만 해외동포는 이날을 기억하며 선조의 희생을 다시 새겨 봅니다.

이번 광복 70주년 기념식은 우리 민족의 번영과 역량을 유지하고 보전하는 뜻 깊은 행사로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기뻐하는 광복절 기념 경축행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경축 대회사로 같음하고자 합니다.



대회장 **홍명기**  
밝은미래재단





## 제70주년 8.15 광복절 경축식

일시: 2015년 8월 15일(토) 오전 11시      장소: 주님의 영광교회

사회 : 김용호, 그레이스 이

### 제 1 부 경 축 식

- 개회선언 ..... 대회장 홍명기 / 밝은미래재단
- 국민의례
  - 국기에 대한 경례
  - 양 국가 제창
  -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을 위한 묵념
- 동포를 위한 기도 ..... 목사 신승훈 / 주님의 영광교회
- 광복회장 경축사 대독 및 독립 유공자 명단 낭독  
..... 회장 배국희 / 광복회 미서남부지회
- 대통령 경축사 대독
- 경축 기념사 ..... 회장 제임스 안 / 로스앤젤레스한인회
- 축 사 ..... 회장 임태량 / 민주평통 LA
- 축 사 ..... Hon. David Ryu / L.A. City Councilman
- 광복절 노래 제창 (1,2절) ..... LA한인회 합창단

### 제 2 부 시 상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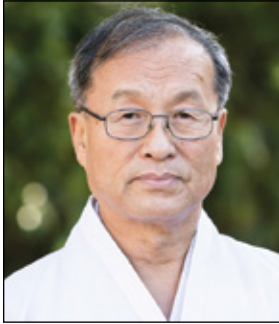
- 광복 70주년 기념 대회 각 부분 수상자 시상 ..... 회장 제임스 안

## 제 3 부 축 하 공 연

- 선열의 꿈꾸던 독립  
 안중근 영상 ..... 대금 연주 이병상  
 유관순 영상 ..... 가야금 병창 지윤자, 이병상  
 종군위안부 영상 ..... 태평무 공연 이영남 외 6명
-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그날  
 광복의 그날 영상  
 공연 : 선구자 / 그리운 금강산 ..... 테너 오위영  
 독도는 우리땅 영상 및 플래시 몹 ..... 진 최 외 40명
- 가슴뛰는 그 이름 대한민국  
 영상 ..... 한국의 발전상과 하와이 이민, 그리고 미주 한인타운의 오늘
- 우리의 소원은 통일  
 공연 : 옹헤야 / 아리랑 / 우리의 소원은 통일 ..... LA 한인회합창단

## 제 4 부 만세삼창

- 만세삼창 ..... 광복회 미서남부지회
- 합 창 ..... 다같이  
 끝절 "대한 사람 대한으로 우리나라 만세 !"
- 폐 회 ..... 사회자
- 합 창 ..... 다같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



## 대금 : 이병상

- 1976 한국민속예술의 향연 <지영희, 성금연, 가족 발표회>
- 2007 우리가락선교회 순회 연주(뉴욕, 시카고, 외)
- 2011. 6. 6 Sound of Asia Music Korea Cultural Center 연주
- 2014. 9 북가주, 산호세, 시애틀 연주

### • 안중근 (안중근 의사 추모)

한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 조국을 위해 죽는것, 이것이 참된 영광이니 오늘 우리 모두 손가락을 끊어 맹세하고 태극기에 혈서를 쓴다.

“대한독립” (大韓獨立) 나는 천국에 가서도 대한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 가야금 : 지윤자

- 1982. 5. WASHINGTON SMIT SONIANH 박물관 초청 연주
- 2005-2014 라디오서울 국악이야기 방송
- 2014. 7. 해외 무형문화 가야금 전승자 임명
- 현재 : 1190 복음방송
- 한번 더 불타오르게 하소서

### • 유관순(민족의 꽃이 되다)

열여덟살 학교에 다니던 평범한 소녀가 일본군의 총칼 앞에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체포되어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민족의 해방을 위한 외침은 절대 멈추지 않았다.

온 국민의 독립의 의지를 알리는 도화선이 된 “유관순 열사” 그녀로 인해 광복의 불길이 타올랐으며, 향후 민족 독립 항쟁의 상징이 된다.



## 태평무 : 이영남

- 2013년 10월 '아리랑. 전통춤으로 말한다' - LA한국문화원
- 2011년 11월 75회 명인 명무전 - LA이벨극장
- 2006년 6월 42회 한국의 명인 명무전 - 국립국악원 예약당
- 2005년 4월 37회 한국의 명인 명무전 - 호암 아트홀

### • 위안부(어떤 소녀의 꿈)

못다핀 꽃이 된 조선의 소녀들 …….

이제는 그 진실을 알려야 할 때이고, 더 이상 위안부 할머니가 아닌,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남은 여생을 보내고, 상처 받은 소녀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합니다. 역사의 상처로 물든 위안부가 아닌 소박한 꿈을 가진 한 여성으로, 감춰진 역사적 진실의 산증인으로, 그녀들의 꿈과 이름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호소합니다.

일본 정부가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백발 소녀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



## 테너 오위영

- 윤동주 오페라 주연
- 디즈니 콘서트홀
- Grace Mission Choir, 셋별선교합창단 지휘.
- 라크마, 한국외대문합창단,
- Los angeles christian singers solist.
- 보첼레스티 솔리스트

### • 광복의 그날 (선구자, 그리운 금강산)

일본 항복… 전쟁 끝. 36년간 식민지배 끝. 찾아온 조국의 광복!

227분의 독립운동가. 그리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수많은 분들 덕분에 우리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광복은 우리의 조상들의 희생으로 이뤄낸 것으로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재산입니다.”





## 진 최

- 이화여대 무용과 졸업
- 진발레스쿨원장
- 한미무용연합회장
- 로스앤젤레스한인회 이사

### • 독도는 우리 땅 (플래시 몹)

여러분 !

이젠, 전 국민이 한자리에 모여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큰소리로 외쳐야 할 때 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독도는 언제나 우리 땅 입니다.

우리 2세들에게 역사 의식을 갖게 하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면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 왜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 보려는 플래시몹 입니다.



## 지휘: 다니엘석

- Artistic Director and conductor of all professional orchestra “Dream Orchestra” and “Young Artists Orchestra of Los Angeles”

### • 우리의 소원은 통일 (LA한인회 합창단)

여러분에게 조국은 무엇입니까? 조국은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이고, 날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아버지이며, 힘들때 위로가 되주는 아내와 남편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수많은 순국 선열을 기리며 묵묵히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마음과 뜻을 같이 하며 힘을 합해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도록 몸과 마음을 받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 YAOLA YOUNG ARTISTS ORCHESTRA

Sung Kyu Park - President of Board, Pastor,  
Daniel SuK- Artistic Director & Conductor  
Caster June Teoh- Orchestra Director

**Violin I :** Ji Young Ahn (Concertmistress), Allen Chun, Ambrose Aubrun, Celina Nishioka, Tamsen Beseke, Yeonhee Lee, Patrick Marsh, Jacqueline Ching, Dianna Kim, Derek Xu

**Violin II :** Garrick Soohoo (Principal), Eliana Estrada, Shelly Ren, Mariel Jackson, Carissa Gibson, Samantha Vuong, Terence Mui, Willy Guan

**Viola :** Sean Lyons (Principal), Zhimin Zhao, Cloe Aquino, Veronica Lopez, Lily Mackay, Michelle Hu, Spencer Wiria Gouw

**Cello :** Yao Wang (Principal), Tiffany Kim, Jeness Johnson, Christina Park, Celianna Louise Aquino, Darren Chun, Marly Gonzalez, Kenneth Shelton, Henry Guan

**Bass :** John Hester (Principal), Sean-Paul Wiria Gouw, Miguel Martinez, Kyle Shelton

**Oboe :** Nathania Hartojo(Principal), Elaine Koo

**Flute :** Melissa St. Thomas(Principal), Daniel Egwurube, Phoebe An, Esther Lim, Yujin Hannah Lee, Ruth Shin Kaldenberg

**Clarinet :** Kevin Sakai (Principal), Abraham Lee, Hannah Lee

**Bassoon :** Yunjoo Hwang (Principal)

**Trumpet :** June Caster Teoh (Principal), Andy S Tzeng, Tzu-Ming Wang, Kinamee Ito Rhodes, Matthew Y. Lee, David Kang, Kyle Selinske, Lok-Yin Joshua Chan, Angie Amparo Trujillo, Patrick Haavin Jung, Alexander Isaiah Jun, Chan Woo Suk, Jung Woo Suk, Benjamin Lee, Alex Lee, Sofie Anne Chua Duntugan



LA한인회 합창단

**Tuba :** Jacob William Malek

**Horn :** Katie Upton, Olivier Huebscher, Liam S. Lacey, Beaumont Knechtel, Taejin Hwang

**Trombone :** Jeff Lin, Mark Miller, Sarah K. Sandoval, Rieko Kojima, Trinity Natalia Jun

**Piano :** Erin Kim, Sung Dae Ahn

**Percussion/Drum :** David Lee

**Timpani :** Dante Luna

**Dream Youth Choir :** Hannah Kim, EJ Lee, Tina Hwang, Lauren Kim, Jiahn Chung

YOUNG ARTISTS ORCHESTRA / WWW.YAOLA.ORG / INFO@YAOLA.ORG  
FOR INFORMATION PLEASE CONTACT: CASTER JUNE TEOH, ORCHESTRA DIRECTOR  
(619) 446-9524

# LA 하늘 높이 태극기 휘날린다

2015년 8월 15일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역사적인 현기식 행사를 재현한다

남가주는 미주 독립운동의 1번지이다. 초기 미주 한인들이 민족 지도자와 함께 국권회복운동을 40년간 (1905 ~ 1945) 벌인 역사가 살아 숨쉬는 땅이다.

1942년 8월29일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LA시 청앞에서 태극기 현기식을 갖고 대한독립을 기원했고, 맹호군을 창설하면서 미국의 승전을 후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주 한인 모두가 독립기금을 냈고,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한마음으로 지원했다. 애국지사들이 외교를 통해서 독립운동을 벌인 무대도 바로 미국땅이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LA한인회관 앞에서 태극기 현기식 행사를 역사적으로 재현한다. 옛 독립운동가들의 고귀한 독립정신을 되새기면서 차세대에게 자랑스런 역사를 교육해 나가기 위해서이다. 2015년 8월15일 상오 10시, 남가주 한인사회는 73년만에 또다시 LA 푸른 하늘 높이 태극기를 올리면서, 한인사회의 화합과 단결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통일의 꿈을 다져간다.

## 제15회 태극기 현기식 개최의 뜻

- 대한인국민회가 앞장을 서서 창립한 재미한족연합위원회(위원장 김호)는 2차대전에 참전한 미국의 승리와 대한독립을 기원하는 제1회 현기식 행사를 1942년 8월29일(국치일) LA시청 앞에서 역사적으로 거행했다.

- 나라를 빼앗긴후 로스앤젤레스에서 처음으로 대한의 국기인 태극기를 게양하는 행사를 지금으로부터 73년전 처음으로 LA시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자랑스럽게 개최를 했다.



▲ 첫 태극기 게양식 1942년 8월29일 재미해외한족연합위원회(위원장 김호)는 LA시청앞에서 태극기 게양식 행사를 역사적으로 개최했다.

- 제2회 현기식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LA총영사관이 개설된 1949년 8월15일, LA시청앞에서 LA총영사관과 LA시의 공동개최로 행사를 거행했다.

- 1950년대와 1960년대 그리고 1970년대에도 해마다 광복절을 맞아 LA총영사관과 LA시가 합동행사로 현기식 행사를 주최해 왔다. 2003년 미주이민 100주년 축하하기 위해 한인사회는 14번째 현기식 행사를 거행했고, 이번에 15번째 태극기 현기식 행사를 재현하는 것이다.

- 광복 70주년을 기념 2015년 8월15일 현기식 행사를 또다시 재현함으로써 한미관계의 영원한 발전과 LA시와 한인사회의 우의를 다지는 행사로의 의미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크다. 특별히 데이빗 류 LA한인시의원이 처음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더욱 자랑스런 행사가 되는 것이다.

## 제1회 태극기 현기식, 그때 그 순간

- 대한인국민회가 중심이 된 재미한족연합위원회 김호 집행위원장은 1942년 3월1일 Flecher Bowron LA시장에게 LA시청앞에서 현기식 행사 개최를 요청했고, 이의 허락을 받아냈다.

- 현기식 행사는 1942년 8월29일 빅토리아하우스를 출발한 미국 육군군악대, 한인경위대, 중국과 필리핀 군인순으로 행렬이 시작되었다. 김호 위원장은 12시 서한루라는 식당에서 미국, 중국의 지도인사 40명을 초청 오찬을 베풀었다.

풀었다. 이어 전 해군제독 마살 장군과 함께 김호 위원장은 오픈카를 타고 행사장에 도착했다. 곧이어 바로 LA시장에게 태극기를 전달했고, 오후 3시 정각 로스앤젤레스 시청 깃대에 태극기를 하늘 높이 게양하면서 현기식 행사는 최고조에 달했다.

- 김호와 마살 장군, 집행부 선전부장 김용중이 각각 한국 독립을 기원하는 연설을 했다. 중경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표의 축사도 대독했다. 끝으로 김호는 대한독립만세, 연합군 승리만세, 세계평화만세를 힘차게 만세삼창을 외쳤다.

## 사진으로 보는 현기식의 어제와 오늘



1949년 8월15일 민희식 초대 LA총영사와 Flecher Bowron LA시장은 시청앞에서 태극기 게양행사를 주최했다.



한국 전쟁중인 1951년 8월15일 최운상 영사와 Flecher Bowron LA시장이 태극기를 올리고 있다.



1971년 8월15일 노신영 LA총영사와 Sam Yorty LA시장이 태극기를 올리고 있다.

2003년 8월15일 LA한인회와 크리스천헤럴드사는 미주이민 100주년 기념 태극기 게양행사를 LA시청 앞에서 가졌다.





## 미주 대한인국민회 중앙집행위원장 송헌주 선생

◆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의 한국특사 통역 담당 ◆



**송헌주 선생**

(1880. 10. 22. ~ 1965. 7. 31.)

건국훈장 독립장

송헌주 선생은 대한제국 시기 관립 영어학교에서 수학한 후 1903년 경 하와이로 이주하였다. 1906년 경 미국 본토로 건너가 프린스턴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로녹대학 재학 중이던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의 한국특사의 통역을 맡았다.

1919년 3·1운동이 미주에 알려진 직후 선생은 하와이 한인들로부터 독립금 3만 5천 달러를 모금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활동 등에 사용하도록 지원하였다.

1937년 대한인국민회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대한인국민회 총회관의 건축위원장직을 맡아 LA에서 낙성식을 치렀다.

1939년 대한인국민회 중앙집행위원장에 선임되어 미주 한인사회를 대한인국민회 중심으로 통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송헌주 선생은 1941년 재미 한인단체의 역량을 집중하고 항일운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직한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국방과장을 맡

아 맹호군으로 불리던 캘리포니아 주 민병대 소속 한인국방경위대의 정위로 임명되었다. 1945년 광복 직전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유엔 연합국 회의에 참가할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표단으로 선임되었다.

미주 한인 독립운동단체의 지도자로 활약한 선생은 1965년 85세를 일기로 미주지역 독립운동 및 단체 통합에 헌신한 삶을 마감하였다. 정부는 선생의 공로를 기려 1995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자료 출처 : 국가보훈처 보도자료  
2015. 6. 30. 발췌



구미위원부 위원과 임원  
(1920년 3월, 앞줄 왼쪽 두번째)



이승만, 김규식과 함께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유엔창립총회 대한민국 대표단  
(앞줄 왼쪽 첫번째)

한인경위대(맹호군)의 LA 시가행진  
(1942년 4월 26일,  
두번째줄 오른쪽에서 일곱번째)



**JUDY CHU, Ph.D.**  
27<sup>TH</sup> DISTRICT, CALIFORNIA  
**COMMITTEE ON THE JUDICIARY**  
SUBCOMMITTEE ON CRIME, TERRORISM, HOMELAND SECURITY AND INVESTIGATIONS  
SUBCOMMITTEE ON COURTS,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INTERNET  
**COMMITTEE ON SMALL BUSINESS**  
RANKING MEMBER, SUBCOMMITTEE ON ECONOMIC GROWTH, TAX AND CAPITAL ACCESS  
SUBCOMMITTEE ON CONTRACTING AND WORKFORC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Washington, DC 20515

**WASHINGTON OFFICE:**  
2423 Rayburn House Office Building  
Washington, DC 20515  
(202) 225-5484  
(202) 225-5467 (Fax)  
**PASADENA DISTRICT OFFICE:**  
527 South Lake Avenue, Suite 106  
Pasadena, CA 91101  
(626) 304-0110

August 15, 2015

Korean American Federation of Los Angeles  
981 S. Western Ave., Suite #100  
Los Angeles, CA 90006



Dear Friends,

It is with great pleasure that I extend a warm welcome to all those who have gathered here at the Glory Church of Jesus Christ in Los Angeles for the Korean American Federation of Los Angeles' (KAFLA) celebration of the 70<sup>th</sup> Anniversary of Korean Independence.

The Korean American Federation of Los Angeles was established in 1962 in order to serve the needs of Korean Americans in Los Angeles. Today, it is one of the most well recognized organizations within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As a nonprofit organization, KAFLA unifies over 250 Korean American local organizations, truly dedicated to serve the welfare of our neighborhoods.

With this in mind,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KAFLA for its achievements in celebrating the 70<sup>th</sup> Anniversary of Korea's Independence. As Chair of the Congressional Asian Pacific American Caucus, I am honored to represent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and their accomplishments in the United States and I look forward to their future endeavors.

On behalf of the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the people of the 27<sup>th</sup> Congressional District, I extend my gratitude to the Korean American Federation for your years of service to the community and best wishes for its continued success. Congratulations and enjoy this wonderful event!

Sincerely,

**JUDY CHU, Ph.D.**  
Member of Congress, 27<sup>th</sup> District



STATE CAPITOL  
ROOM 205  
SACRAMENTO, CA 95814  
TEL (916) 651-4024  
FAX (916) 651-4924  
  
DISTRICT OFFICE  
1808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26  
TEL (213) 483-9300  
FAX (213) 483-9305



STANDING COMMITTEE  
SENATE RULES  
CHAIR

SENATOR KEVIN DE LEÓN  
PRESIDENT PRO TEMPORE

August 14, 2015

President James Ahn  
Korean American Federation of Los Angeles  
981 S. Western Av. #100  
Los Angeles, CA 90006

Re: 70<sup>th</sup> Anniversary of Korean Independence

Dear Friends,



On behalf of the State of California, it is my pleasure to join with the Korean American Federation of Los Angeles to send my warmest wishes to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on the 70<sup>th</sup> Anniversary of Korean Independence.

It is my great honor to represent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n the State Senate and to join in celebrating the longstanding contributions of Korean immigrants to Los Angeles and the state of California.

Congratulations to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n their 70<sup>th</sup> Anniversary of Korean independence. I send my best wishes for a memorable and successful event.

Sincerely,

**KEVIN DE LEÓN**  
President pro Tempore  
Twenty-Fourth Senate District

STATE CAPITOL  
P.O. BOX 942849  
SACRAMENTO, CA 94249-0065  
(916) 319-2065  
FAX (916) 319-2185

## Assembly California Legislature



YOUNG O. KIM  
ASSEMBLYMEMBER, SIXTY-FIFTH DISTRICT



August 15, 2015

Dear Friends:

On behalf of the California State Assembly, I am honored to welcome everyone to the Korean American Federation of Los Angeles' 70th Anniversary Celebration of Korean Independence. I would like to thank KAFLA and everyone involved in the planning process for working so hard to make this celebration possible.

As we celebrate Korean Independence Day, we are reminded of so many Koreans who sacrificed their lives to advance liberty and fight for independence during the 36 years of Japanese colonial oppression. I commend KAFLA for providing us an opportunity to be reminded of these sacrifices so that we do not take our freedoms for granted.

This is a day that Korean Americans can celebrate with pride because it is the steadfast resolve, spirit and courage of the Korean people that led to our freedom. Many of the Independence fighters fought for independence right here in the United States. We see this spirit and resolve that led to Korean independence in our Korean American community today and I am proud to see how the community has grown and developed.

As the only Korean-American currently serving in the State Assembly, it is an honor to represent the 65th District in Southern California and the larger Korean community. Once again, congratulations and best wishes for a successful ev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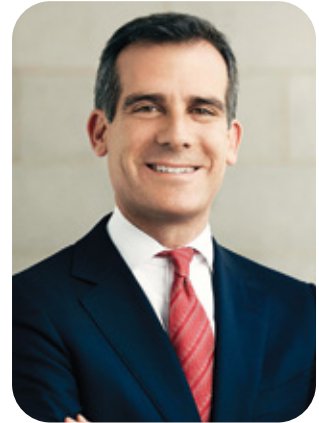
Sincerely,

Young Kim  
Assemblywoman, 65th District

*Printed on Recycled Paper*



ERIC GARCETTI  
MAYOR



August 14, 2015

Dear Friends,

On behalf of the City of Los Angeles, I am pleased to congratulate the Korean American Federation of Los Angeles on the occasion of the 70<sup>th</sup> Anniversary of Korean Independence.

Our two nations are forever tied together through this day of liberation. I commend the Korean American Federation of Los Angeles for bringing this celebration to our great city, which is home to the United States' largest Korean community. Through this celebration, you will feel the power of a people united through independence.

I send my best wishes for a memorable Korean Independence celebration.

Sincerely,

ERIC GARCETTI  
Mayor



**MICHELLE STEEL**  
SUPERVISOR, SECOND DISTRICT

ORANGE COUNTY HALL OF ADMINISTRATION  
333 W. SANTA ANA BLVD., P.O. BOX 687, SANTA ANA, CALIFORNIA 92702-0687  
PHONE (714) 843-3220 FAX (714) 834-6109 michelle.steel@ocgov.com

August 14, 2015

James Ahn  
President  
The Korean American Federation of Los Angeles  
981 S. Western Ave., Suite 100  
Los Angeles, CA 90006



Dear Friends:

Congratulations to The Korean American Federation of Los Angeles on their 70<sup>th</sup> Anniversary of Korean Independence. I wish you all continued success!

On behalf of the Orange County Board of Supervisors, I want to thank The Korean American Federation of Los Angeles for their continued service to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President James Ahn and the planning committee members all deserve special recognition for their hard work in organizing this 3 day event.

As a proud Korea American, it is an honor to work closely with an organization that is so beneficial to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 look forward to continuing to work together to make even more progress in the future.

Once again, congratulations and best wishes to The Korean American Federation of Los Angeles. Thank you to all of those involved in making this a huge success!

Warmest Wishes,

**MICHELLE PARK STEEL**  
Supervisor, Second District  
Orange County Board of Supervisors



## ● K- 2nd Grade

	1등	2등	3등
이름	Eddy Kim	Yehwan Chung	Noah Chang
학교	Warner Ave E,S	Hawthorne E,S	3가 초등학교
주제	Life with under water world	Our Country	내가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



## ● 3-5th Grade

	1등	2등	3등
이름	Ashley An	Andy Kwon	Kacy Chung
학교	Faith baptist School	코행가 초등학교	Eastshore E,S
주제	아름다운 생일잔치	21세기의 자동차	광복의 기쁨



## ● 6-12th Grade

	1등	2등	3등
이름	Dahee Woo	Steven Lee	Jessica Kim
학교	Campbell Hall H,S	El Camino Real C,H,S	Orange County School of the Arts
주제	Bridge of hope	Generations of Pride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 Being a proud Korean

Jonah Cho

Harvard Westlake High School, 9학년

The history of Korea is very special, and it is something that every Korean is proud of. We have a lot of pride in our nation simply because we know who we are and the country we have come from. Korean people are naturally very hard-working and always put in 100 percent effort in everything we do. It is just something we find to be normal, and because of this, we excel in every subject that we put our mind to. My parents always told me that they remember a time when Korea did not even have the technology to build a simple ball pen; now, they are manufacturing amazing cars and pieces of technology the world never knew could be possible. I have always been proud to have a Korean background, and I always will. Korea is a place like none other, and gives every Korean a sense of nationalism.

To the rest of the world Korea is just a little speck especially when it is compared to its neighbor, China. But I believe that the rising Korean American generation and I can enhance people's perception of Korea to be more than a speck. I truly believe this because we all know, as a Korean, we give 100% and do things that nobody would think we could do.

My name is Jonah Cho and this is why the rising generation of Korean Americans can change America for the better.

The first step in influencing America as a whole is trying to become an influential figure in our society. This is important because this is the easiest and best way to be able to reach out to America and get our voices heard. America may be one of the strongest and most powerful country in the world, but it is far from perfect

and this is where the Korean youth come in. We are the rising generation that is going to be affected the most by the new America, so we have to make sure it is the best it can possibly be. We have to touch on many flaws that America has currently and do our best in solving those problems. One major problem that I will like to touch on today is America's underprivileged. These people are living each day just to see another, and I believe we can change that. The way we do this is by looking at what is causing this and then fixing it. I am sure that if we reach to these poor people and give them education, motivation, and more importantly, hope. The way we can solve this problem is my looking at ourselves. We, Korean Americans, are the solution to making America a better place to live in.

First off, education. This is extremely important because most of the people that are living in major poverty are not educated enough. If we can educate them and teach them that there is a way to get out of your situation, than we can surely decrease the amount of poor and underprivileged people. They just have to be in the right mind set to work with the tools they have even thought it may not be a lot. Education is the basis of a stable society because it affects the way you live your life. We have the education, and it is our job to pass it on to people that are certainly not as privileged as we are. We cannot reach to every needy person out there and get every one of their stories to work on, but education will change the perception these impoverished people look at life. It will give them new ideas they can use to get out of their specific situation on their own. We are simply the groundwork that they need to get off the ground and change their lives forever.

## 컴퓨터에서 본 광복절

최 신디  
Los Angeles

나는 엄마가 컴퓨터에서 광복절에 관한 것을 인터넷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백명, 수천명이 길거리로 물밀듯 밀려나와 태극기를 두손에 높이 들고 힘껏 흔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기쁘고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일본이 아무 죄 없는 대한민국을 침범해서 아주 나쁜 일들을 저질렀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나쁜 일이냐고 여쭙어보니,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름도 일본 이름으로 바꾸게 했으며, 소처럼 한국 사람을 끌고 가서 힘든 일을 시켰다고 하셨습니다. 인터넷 속의 사진을 보니 살이 뼈에 붙어 있어 조금 과장해서 해골 같았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전쟁을 위해서 수저 등을 비롯해서 온갖 물건들을 약탈하였고, 결혼하지 않은 언니들을 잡아가 슬픈 일을 겪게 하고, 오빠들을 강제로 일본군인으로 만들어 전쟁터에 끌고가서 죽게 했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아직 내가 어려서 다 이해 못하기에 자세한 것은 다음에 다시 말씀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광복절은 대한민국이 일본의 압제에서 36년의 악행에서 풀려나 자유를 되찾은 날을 기념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잊을 수 없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손에는 태극기를 들고 한 손은 승리의 기쁨으로 두 손 높이 들고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온 세상에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을 기억합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없어지지 않는 일본의 나쁘고 못된 행동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들만에 새기듯 다짐합니다.

벌써 광복 7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나라가 안팎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에 텔

레비전에서 뉴스를 보았습니다. 아시아 체육 경기를 대한민국에서 개최하였고, 아시아에서 1등을 했습니다. 매우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엄마는 늘 아쉬운 것은 대한민국이 통일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하십니다.

가끔 외국 사람이 엄마에게 “너 한국 사람이야?”고 물을 때 “그렇다”고 대답하시면서 늘 ‘남한 사람’이라는 말을 덧붙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서 빨리 엄마의 조국이 통일되기를 바랍니다. 엄마 아빠의 조국은 나의 조국이기에 때문입니다. 엄마가 자주 ‘우리의 소원’ 노래를 들려줍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 나라 살리는 통일 이 겨레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을 이루자”

벌써 광복 70주년입니다. ‘우리의 소원’ 노래처럼 나라 살리고 겨레 살리는 통일이 어서 오기를 소원합니다. 남북이 하나 되는 자유 통일 한국을 이루어 자손 만대에 길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 광복 70주년 세계 속에 빛나는 코리아

**최 여호수아**  
Los Angeles

일본의 못된 짓 생각하면  
내가 좋아하던  
일본 어묵도 먹고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36년 동안  
죄 없는 한국을 괴롭혔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라에 힘이 없었기에  
지킬 수가 없었다고 하니  
드라마 화정이 기억납니다  
하지만 70년 역사 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  
K팝 속에 전 세계로 수출되는 전자제품과  
체육인들로 휘날리는 태극기가 자랑스럽습니다

뼈아픈 과거를 잊지 말자고  
다짐하고 다짐하며  
미국 속에 한국인을 생각해 봅니다  
어떤 한국사람은 못된 일로 마스크를 장식하지만  
그래도 많은 한국인들이 좋은 일들을 합니다  
나는 좋은 일로 코리아를 빛내자고 가슴에서 메아리칩니다



## 진정한 광복

유명희  
Valencia

오 필승 코리아!를 외쳤던 그 해, 2002년 5월 마지막 날 난 LAX에서 미국을 처음 경험했다. 그 해만 해도 단지 이 미국에 잠시 머무는 것 뿐이라는 생각이었다. 그 해 남편은 월드컵 경기를 지켜보기 위해 밤 늦게 엘에이 다운타운도 나가고, 아파트 오피스를 기웃거리며 한 경기도 안 놓치려 했다. 우리의 대한민국이 영원히 우리 가슴 속에 불타오를 줄 알고 살았다. 그러나 남편의 월드컵 응원 티셔츠 색이 바래져 가듯 어느덧 내 땅에 대한 나의 관심은 시들어 갔다. 첫째가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고 둘째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땅에 속해 보려고 버둥거리다 보니 내 땅은 먼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가끔씩 방문하는 가족들에게 듣는 소식도 점점 아주 먼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들려지는…… 그렇게 13년의 세월을 보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던가? 13년의 세월은 마음의 고향도 잊게 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고향의 골목에 피던 꽃들이 생각나고, 누구네 집 강아지 이름까지 기억하며, 이번엔 고향 국회의원은 누가 됐지? 했었는데 모든 것이 시들해져 버렸다. 가족과 친지들에게 전화도 뜸하고 조카들은 물론 사촌들 이름조차도 가물하는, 역시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긴 하나 보다.

1910년에서 1945년이라 35년 간 그들은 강제로 우리에게 한국을 지우려 했다. 나처럼 13년만 지나도 저절로 열어져 가는데 자기들이 차지한 땅에 그렇게 폭력을 사용하여 언어를 바꾸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옷을 바꿔 한국의 정

신과 걸모습을 지우려고 한 그들. 그들의 성격 그대로 급했을 것이다. 온 세상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으니, 그래서 우리나라는 마음대로 짓밟아 자기들의 목적에 사용하려 했겠지. 우리를 그냥 동물 취급하며 무지해서 자신들이 밟으면 밟힌대로 앞드려서 자신들을 영원히 섬기며 살리라 생각한 걸까? 조선을 강제로 지우려 죽이고, 고문하고, 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그들이 만든 학교에서 왜곡된 우리의 역사를 가르치고 자신들의 가짜 역사를 덧입혀 철저하게 일본인으로 만들려 한 그들의 계획들. 지금 생각해도 소름 끼친다.

13년간 영어를 배우러 다녔지만 내 영어실력은 여전하다. 그냥 생활에 필요한 말만 하고 사는 정도이다. 물론 불편하다. 아이들 학교부터 해서 사사건건 부딪치는 것이 언어의 장벽이다. 처음 내가 이 땅에 들고 온 옷들은 이 땅과 참 어울리지 않았다. 너무 알록달록하여 누군가 갓 미국 온 사람 티를 낸다고 말하여 그 옷들을 옷장 깊숙이 쑤셔 버렸다. 이 땅에서도 난 무언의 강요를 당한다. 미국에 왔으면 미국 법을 따르라고 하지만 실제론 아무도 나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솔직히 원대로 하고 살면 된다. 이 땅이 나에게 강요하는 것은 없지만 뭔가 부족하다. 밖에서 햄버거를 먹고 나면 집에 와서 꼭 김치 한 점이라도 먹어야 체기가 내려간 것 같고, 가끔씩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봐줘야 뻔뻔미한 것 같은 기분이 맑아지고,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코리아타운을 다녀와야 제대로 숨이 쉬어지는 이 알 수 없는 반응이 고향에 대한 기억도 가물해지는 정신에 반하여 여

전히 내 속에서는 ‘넌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이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내 나라에서 내 마음대로 조선인으로 살 수 없도록 만들었으니 어찌 살 수가 있었을까?

“일본의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민으로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강제로 징병되어 총알받이가 된 분들의 말이란다. 자유가 없이 사는 삶을 죽음으로 표현할 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

올해 3월에 우연히 ‘눈길’이라는 위안부를 소재로 한 드라마를 봤다. 너무 가슴이 아팠다. 큰 딸이 16살이다. 주인공의 나이가 딸 나이와 비슷해서 엄마의 마음으로 그들의 삶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고, 내가 그들 중 하나였다면 하고 생각하니 죽고 싶었고, 내 부모나 할머니의 일이다 생각하니 분하고도 원통했다. 그들의 죄를 묻는다면 단지 힘 없는 나라에 태어난 것일 뿐일 텐데. 어찌하면 우린 정말 무지했을 수도 있겠다. 인간이 그렇게 잔인할 수도 있다는 것에 우리 민족들은 너무도 무지했었던 것이다. 어린 소년 소녀까지 잡아가서 그렇게 이용하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우린 몰랐던 것이다. 우리의 소녀들, 겨우 살아 내 땅을 찾아가도 그녀들에게 돌아오는 건 수치심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가지도 못하고 평생을 숨어 지내며 상처를 안고 살았을 그녀들의 삶이 아프다.

딸이 학기말 유럽 역사 수업시간에 ‘쉰들러 리스트’ 영화를 봤다면 눈이 부어서 학교를 나왔다. 그들의 잔혹함이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유대인들의 죽음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고 했다. 딸은 쉰들러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다. 그냥 자기 살기에 급급하여 사는 삶이 아닌 나라를 위하고 누군가의 목숨을 구하

는 삶을 살고 싶다고 했다. 전부터 되고 싶었던 군인 이야긴가 보다. 딸은 군인이 되고 싶어하고 FBI가 되고 싶어한다. 어찌면 많은 미국 아이들처럼 영웅이 되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다. 한편으론 ‘그래 너라도’ 라는 생각도 든다.

애국심이라는 단어가 요즘에 얼마나 남아 있을까?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리란 꿈을 어느 정도의 아이들이 꾸고 있을까? 나라까지 아니더라도 주위의 아픔을 볼 아이들이 얼마나 있을까? 태극기를 몰래 만들어 삼일운동에 참여한 소녀들에게 선생님이 주동자가 아니냐는 취조에 “조선사람은 삼척동자도 나라를 사랑할 줄 안다”라고 답했다고 했다. 이런 애국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남았을까? 딸의 애국심이 기특했지만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위하고 싶다는 나라가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래서 딸에게 그녀들의 이야기를 해줬다. 이전 색 바랜 내 기억의 파편들을 모아 잊혀진 내 조국의 과거 이야기를 했다. ‘안네의 일기’를 통해 히틀러와 나치들의 만행 속에 희생된 어린 생명을 기억하듯,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끌려가 무참히 죽임 당하고 살아 남아서도 한평생을 그 상처로 살다 죽어가신 소녀 분들을 기억하라고. 그들의 죽음을 통해 일본이 과거에 한 일들을 이야기했다. 독립운동가들의 죽음을 함께 이야기하고 인터넷을 통해 동영상도 봤다. 이름도 없이 강제로 전쟁터로 끌려가 죽임을 당한 우리의 소년 소녀들. 그들을 기다리며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았을 우리의 어머니들. 삼일운동 하면 떠오르는 유관순 열사의 동영상도 봤다. 그녀의 죽음을 봤다. 어릴 때 학교에서 배운 건 그녀의 죽음이 아니었다. ‘나도 여자지만 잔다르크나 유관순처럼 용맹하고 씩씩하게 자라나 대한을 위해 목숨을 바치리라……’ 그랬다. 유관순은 당시 나의 영웅이

었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을 보고나선 할 말을 잃었다. 딸과 같이 보다가 울고 말았다. 그녀가 겪은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겨우 17살이었는데…… 어떤 고문보다 가장 큰 고통은 나라를 잃은 고통이라고 한 그녀를 우린 얼마나 이해할까? 새삼 내 자신이 한 없이 부끄러워진다. 30년이 넘도록 나라의 회복을 위해 국내외에서 목숨 바쳐 일하신 분들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 죽어간 생명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이렇게 세월 속에 묻고 다음 세대에 전하지도 않고 살고 있으니 한심하기도 하다.

광복 70년이다. 그늘에서만 살아야 했던 우리 땅이 빛을 회복한 지 70년이 된다. 빛은 어둠이 없었다면 그 존재의 가치가 있을까? 우리의 조상들의 고통, 죽음, 또 가슴 미어지는 원통함을 보지 못한다면 광복은 무의미한 것 같다. 단지 그 끔찍한 일들을 죄책감 없이 행한 일본인을 대대로 경멸하며 살기만 하면 이 문제들이 해결될까?

일본인들의 최대 관심은 ‘역사’였던 것 같다. 자신들이 과거 현재 미래까지 창조하는 자신들의 ‘역사’. 그들은 우리에게 그 역사를 위장했고 아직도 위장하고 있다. 어느 땅에 있든지 대한인이라면 우리나라를 다음 세대에 온전히 알리고 우리의 역사를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영원히 광복은 없다. 여전히 우린 일본이 각색한 거짓된 역사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이다. 광복된 나라, 독립된 대한민국이 아닌 우리가 거하는 땅의 또 다른 식민지 백성으로 사는 것이리라.

광복된 지 70년이라…… 그 분들, 수많은 죽음을 나눈 가족들, 살아남은 분들, 그 분들의 광복의 기쁨을 이 땅에서 우리도 누려야 하지 않을까? 내 것은 잊은채 남의 역사를 배우고 남

의 문화만 따라 살다가는 영원히 이 광복의 기쁨이 없을 것이다.

우선 대한인임에 대한 자신감부터 가져야겠다. 그리고 더욱 더 한국에 귀를 열어두어야겠다. 그래서 광복 100주년이 되었을 때는 전세계에서 대한독립만세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나쁜 쪽으로만 머리를 돌리던 일본의 방법을 역이용해서 우린 이 땅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광복된 진정한 새 역사를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만들어 가야겠다.





### 제40회 미주 테니스대회

일시: 2015년 8월 8일(토) ~ 9일(일)

장소: Cerritos Regional Park Tennis Center

주최: 세리토스 테니스클럽

주관: 재미대한테니스클럽, 광복 70주년 범동포준비위원회

후원: 로스앤젤레스한인회







## LA 족구대회

족구대회 우승팀 수상

일시: 2015년 8월 1일(토)

장소: Scholl Canyon Golf & Tennis Club

주최: 광복 70주년 범동포준비위원회

주관: LA족구협회



LA KTC 팀과 인랜드팀이 경기를 앞두고 함께 한 기념촬영

‘광복 70주년 범동포준비위원회’는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2015년 7월 23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새누리당 재외국민 위원장 심윤조 의원과 새 정치 민주연합 재외동포 위원장 김성곤의원을 모시고 포럼을 개최했다.

많은 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 두 의원은 양당의 동포 정책등을 발표했고 참석자들은 두 의원의 발표를 진지하게 듣고 또 많은 질문을 했다.

차제에 ‘광복 70주년 범동포준비위원회’는 아래의 건의문을 두 의원께 전달 했다.

- 10여개 부처로 나누어져있는 현행 재외 동포 관련 업무 부서를 효율적인 일처리를 위해 하나로 통합하여 동포청 또는 동포처의 설립;
- 40년만에 부활된 재외국민 투표권 행사에서 230만 유권자의 민의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우편 투표와 인터넷 투표의 실시;
- 800만 해외 한인과 230만 재외 국민을 대변 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약간 명의 재외동포 포함;
- 800만 해외 한인과 230만 재외 국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 증액;
- 광복 70년과 한국 전쟁 65년을 기해 초당적인 통일 정책을 수립하며, 이에 재외 동포의 참여의 보장.

2015년 7월 23일

광복 70주년 범동포준비위원회







70

광복70년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제2부

광복 70주년 경축 기념 글 모음

## 미주 한인 역사 : 코리안 아메리칸



장태한

미주 지역에 대한 한인들의 이민은 19세기말부터 시작됐으나 인종 차별적 이민법들 때문에 1970년대 까지 한인 숫자는 매우 적었다.. 그 후 1965년 이민법이 개정된 이후부터 미주 지역의 한인 인구는 급증했다. 미주 한인들의 역사는 크게 4 시기로 분류할 수 있다: 1) 제 1 시기 (1885-1903), 2) 제 2 시기 (1903-1924), 3) 제 3시기 (1950-1964), 4) 제 4시기 (1965-현재). 각 시기마다 미주 지역으로 이주해 온 한인들은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주 이유도 독특하다. 미주 한인의 역사를 근대 한국사의 연장선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미주 한인 역사의 주체로서 역동적으로 근대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와 연계를 맺는 관점으로 미주 한인 역사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 제1시기 (1885-1902)

한국인의 미주 이민을 논함에 있어, 현재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통설은 1903년 하와이 사탕수수농장으로 간 농업이민 (취업이민)으로 시작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 엄격히 말하면, 한국인의 미주 이민은 구한말 개혁가, 개혁가 지망생(유학생), 비즈니스맨(개성상인) 집단을 빼놓을 수 없다. 즉, 갑신정변(1884)으로 조선을 개혁하려다가 실패한 당시 엘리트 정치세력의 망명으로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서재필, 서광범이 대표적 인물이며, 이들에 이어 서구문물을 통해 조선 개화(현대식 표현: 조국근대

화)를 꿈꾸며 미국을 찾은 유학생들이 있었다. 서규병(1893), 안창호(1902), 김규식, 하난사 같은 인물들이다. 또, 이들보다 다소 시기는 늦지만 이승만, 박용만, 노백린 같은 인물들도 같은 범주에 속한다. 그 외에도 최소 165명이나 되는 송상 (인삼거래를 주업으로 하던 개성상인)들이 1899-1902년 사이에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일궜다. 방선주는 1902년까지 미국이 입국한 한인의 숫자가 최소 200명으로 추산하고 있고 다른 지역을 통해 입국한 사람들까지 합치면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이 많다.

### 제 2기 (1903-1924)

미주 지역으로의 공식 이민은 1903년 1월 13일 하와이에 도착한 102명의 한인으로 시작되었다. (미주 한인사회와 미국정부는 현재 1월 13일을 코리안 아메리칸 데이로 명명하고 미주 지역의 한인 이주를 기념하고 있다.) 약 7,226명의 한인들이 1903년부터 1905년에 걸쳐 하와이로 이주했는데, 내외적인 요인들이 있다. 먼저 내적 요인을 살펴보면, 양반 계급의 착취, 홍수와 가뭄 같은 자연재해,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 등이다.

외적 요인으로는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협회에서 값싼 노동력 확보를 위해 모집원을 한국으로 보냈으며 선교사들의 협조를 얻어 한인 노동자들을 모집하고 하와이로 수송했다. 당시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협회는 노동자 분열 정



책을 통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동결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초기 한인 이민자들은 대부분 20대의 도시 출신 남성들이었는데, 특히 약 40%는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다. 한편 하와이로 이주한 한인 인구 중 약 10%는 여성들이었는데, 서로 사진을 교환하고 결혼해 하와이로 온, 이른바 사진신부들이었다. 당시 사진신부와 신랑의 나이는 무려 평균 10-15세 차이가 있었다.

초기 미주 한인 사회의 특징은 교회와 독립운동으로 지칭할 수 있다. 한인 교회는 단순히 신앙과 구원의 장소가 아니라, 모국의 독립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 전략을 세우는 장소이기도 했다. 교회는 여러 농장에 흩어져 일하고 있던 한인들이 정기적으로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으며, 한국의 독립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하는 중요한 기관이었다.

초기 미주 한인 사회 독립운동의 중심엔 3명의 지도자가 있었다. 무력 항쟁을 주창한 박용만, 외교 정책을 중요시 한 이승만, 그리고 교육과 애국 지도력을 강조한 안창호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인 사회는 3명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각기 다른 노선을 걷는다. 무력 항쟁을 주장한 박용만은 네브라스카 주의 헤이스팅 시에 군단을 조직하고 군사 훈련을 시켰으며 하와이로 이주해 젊은 청년들을 군사 훈련에 참가 시켰다.

미주 한인들은 독립전쟁을 위해 공군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자각하여 비행사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실천에 옮겼는데 김종립을 비롯한 미주 한인 사회 주도로 추진되어 상해임시정부의 군무총장(현재 국방장관)이었던 노백린 장군과 함께 임정의 동의를 얻어 독립전쟁에 나설 전투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 윌로우스에 비행학교를 설립했다. 쌀농사로 백만장자가 된 김종립의 재정 후원으로 최소 3대의 비행기를 구

입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230km 북쪽에 위치한 윌로우스 (Willows)에 비행학교/대를 세운 것이다.

그러나 이승만 박사는 이러한 무력 항쟁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면서 강대국에 대한 로비와 외교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결국 한인 사회는 양분되었고 심각한 대립으로 갈등도 깊었다. 한인 지도자들은 대한민국의 독립에는 모두 헌신적으로 참여했으나 방법론에 대한 이견으로 한인 사회가 분열됐던 것이다.

1919년 3월 1일 운동으로 전 세계에 흩어진 한국인들에게 적극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소식을 전해들은 미주 한인들은 크게 고무되어, 보다 적극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미주 한인들은 독립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무려 20만 불이라는 거액을 1919년 3월부터 1920년 12월까지 모금했다.

캘리포니아 주의 리버사이드는 초기 미주 한인 역사에 매우 중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에게 소외를 받아왔다. 최근 이선주와 기타 논문에 의하면 리버사이드는 특히 도산 안창호 선생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도산 안창호는 1904년 리버사이드에 한인 집단 거주 지역을 형성하여 한인들에게 직업을 알선해주고 영어도 가르치며 예배도 함께 보는 미 본토 최초의 한인타운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리버사이드에 거주하면서 한인공립협회를 발기했고 본국과 연계하는 민족운동단체로 발족한 대한신민회도 리버사이드에서 발기되었다. 2001년 8월 12일 리버사이드 시에 도산 안창호 동상 제막식이 성대히 거행되었다. 미주 한인 사회가 동상 건립을 위해 기금을 모금하고 (위원장 홍명기) 리버사이드 시가 시청 앞 광장을 제공하여 건립되었다.

1913년 6월 25일 로스앤젤레스 인근의 리버사

이드의 해멧 벨리 (Hemet Valley)라는 농촌에서 한인들이 농장에서 일하기 위해 왔다가 일본인으로 오해한 백인들로부터 강제로 추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913년 7월 2일 브라운 국무장관은 AP 통신을 통해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일본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으며 따라서 미주 한인에 대한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는 국민회와 직접 대화로 풀 것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대한인 국민회는 미국 정부가 공인한 미주 한인 사회의 대표 기관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며 독립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미국 사회 뿐 아니라 세계 평화에 기여한 한인 2세들도 많이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인물을 꼽자면 김영옥 대령이다. 2차 세계대전과 한국 전쟁에서의 전설적인 영웅, 그리고 약자들을 대변하기 위해 평생을 바친 인도주의자로, 김영옥은 한국, 프랑스, 이태리 정부로부터 최고무공훈장을 받은 유일한 인물이다.

또 다른 한인 2세들 가운데, 1948년과 1952년 올림픽 다이빙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여 2연패에 성공한 새미 리 박사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또 존경받는 교육가 메리 리 손과 로스 앤젤레스의 일본 빌리지를 설계하고 운영했던 건축가 데이빗 현, 또 안창호 선생의 장남 필립 안은 아시안계 영화배우로는 최초로 할리우드 블르버드에 별을 달았으며, 알프레드 송은 아시안계 최초의 주요 정치가(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로 활약했다.

### 제 3 시기 (1950-1964)

한국전쟁 (1950-1953)은 한국인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1945년 남과 북으로 분단된 이후,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은 인명피해만 해도 남한측 사망자만 약 45만 명, 미군 사망자만 33,000명(행방불명자 약 7,000명 포함)에 달할 정도였으며, 수많은 이산 가족을 양산

했다. 이들 중 다수가 아직도 서로의 생사를 알지 못한 채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은 미주 한인 이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미국은 이민법을 개정해 한인 이민이 다시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당시, 미주 한인 인구는 약 17,000명으로 추산되는데, 그후 1950-1964년 사이에 약 6,000명의 한인 여성들이 미군과 결혼하여 미국으로 이주했다. 이는 당시 미주 지역 한인 이민의 약 40%를 차지한 숫자다. 또 1965년 이민법 개정 이후, 미군과 결혼하여 미국으로 이주해 온 한인 여성들이 친지 가족들을 초청했는데, 한 연구에 의하면 초청이민의 거의 과반수가 미군과 결혼하여 온 여성들의 친지 가족들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1951년 제정된 피난민법으로 약 5,000명의 고아들과 난민들이 미국으로 이주해 올 수 있었다. 전쟁 고아와 미군과 결혼한 한인 여성들이 당시 미국 이민의 2/3를 차지했다. 또 약 6,000명의 한인 학생들이 미국 대학으로 유학을 왔다.

### 제 4시기 (1965년 - 현재)

1965년 미국 이민법 개정 이후 미주 한인 사회도 급성장을 했다. 당시 미주 한인 인구는 1970년 69,130 명에서 2010년 1,706,822 명 이었다. 특히 1965년 이후의 한인 이민자들은 ‘신도시 이민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 ‘신도시 이민자’란 이들 대부분이 중산층이며, 도시근로자로, 전문직 출신이기 때문에 생긴 용어이다. 따라서 1970년대와 1980년대 초 한인 이민자들은 고학력의 고급 인력 중심이었다.

### 교회와 자영업

다른 아시안 이민자 집단과 비교하여 한인들은 교회 중심 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자영업

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교회는 재미 한인 사회에서 수적으로 가장 많으며 동시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 재미 한인의 약 70%이상이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연구 조사들이 있는데, 한인 교회는 한인 사회의 중심에서 사회, 문화, 경제적 측면에서 한인 이민자들이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1990년 조사에 의하면 미국에서 자영업 비율이 가장 높은 민족이 바로 한인들이었다. 문화적 차이, 언어 장애, 미국 사회에 대한 몰이해로 인한 노동 시장에서의 경쟁력 부재 등이 한인들을 자영업에 종사하게 하는 주요 원인들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에 맞는 직장을 구하기 힘든 미국 사회에서 많은 한인들이 자영업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 로스앤젤레스 폭동 (1992년 4월 29일)

1980년대 흑인 지역의 상권을 장악한 한인 상인들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면서 소위 한-흑 갈등이 심화되었다. 문화적 차이와 몰이해는 한인 상인과 흑인 고객간의 갈등을 더욱 부추겼고 상호간의 불신으로 야기된 긴장은 1992년 4월 29일 로스앤젤레스 폭동으로 폭발하였다. 수많은 건물들이 방화됐으며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 인종 폭동이었다. 이 폭동으로 2,280개의 한인 업소가 전소되거나 일부 파괴됐고 약 4억불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이것은 당시 총 재산 피해액 10억불의 40%를 차지하는 엄청난 재난이었다.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을 재미 한인들은 ‘사이구(4.29)’로 부르고 있다. ‘사이구’는 재미 한인 100년사 중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로, 한인들의 자각을 일깨워준 전환점이 됐다. 재미한인 사회의 방향을 뒤바꾼 역사적 사건이 된 사이구는 미주 한인 사회가 안고 있는 부실한 지도력, 정치력 부재, 세대간의 갈등,

그리고 타민족과의 융화 부족 등 여러 문제점을 노출시키는 한편, 미래에 대한 대화 및 토론을 펼치고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 결론

미주 한인들의 경험을 다문화 대한민국 사회 설계에 접목 시키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역사에 대한 망각이 계속된다면 LA 폭동과 같은 비극이 또 다시 한인 사회에도 또는 한국에도 닥쳐올 수 있다. 대한민국 사회에도 인종 폭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중, 고교 중퇴율이 이미 60%를 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소외 계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들 주거 지역의 슬럼화가 될 가능성은 더욱 높다. 그들의 불만과 분노가 폭발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누군가 성냥을 대면 폭발할 시한폭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미주 한인 사회에서 LA폭동은 반드시 기억되어야 하며 차세대 교육에 적극 활용으로 정체성 확립과 다인종 사회에서 더불어 함께 사는 지혜를 습득하는 교훈의 장으로 삼아야 한다. 다문화 사회, 한국도 중 장기적인 다문화 정책을 세우고 반영해야 할 것이다.

**장태한**

김영옥재미동포연구소장  
UC 리버사이드 대학교 교수



##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 광복 70주년을 맞으며.. )

우리의 5천년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시기인 일제 강점기 36년은 (1910~ 1945), 우리 민족에게는 참을 수 없는 수치의 나날이었다. 수백번이나 외세의 침략을 당하고도 나라를 잃는 수모는 한차례도 겪지 않았던 한국은, 19세 기초 세계적으로 팽배해있던 제국주의의 힘에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에 주권을 빼앗겼다. 하지만 1945년 8월 15일, 우리 선조들의 끈질긴 저항과 우방의 도움으로 36년의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시간은 끝이 났고, 대한민국은 주권을 되찾았다.



기나긴 식민지 생활로 인한 일본인의 약탈과 착취로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은 1945년 꿈에도 그리던 광복의 시간을 맞이했지만, 해방의 기쁨도 얼마가지 않았다.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 68억 4000만 달러라는 전쟁 피해를 안고,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66달러에 지나지 않는 최빈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거리에는 실업자들과 빈민들이 넘쳐나고, 국민들의 마음 속에는 분단과 전쟁으로인해 희망이라고는 찾아볼수 없이 절망과 빈곤이 가득찬 잿더미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런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며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기 시작한건 60년대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였다. 1차 경제개발 계획(62년 ~66년)에서 11.9%의 성장을 시작으로, 제2차(67년~71년)에 10%, 제 3차(72년 ~76년)는 10.2% 등 두자리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농업, 광업등 1차 산업 중심의 한국 경제 구조는 산업화로 들어서게 되었다. 이후 70년대 시작된 중화학공업 집중육성은, 중동건설 진출과 건설 붐을 일으켰다. 90년대에는 정보 기술과 벤처사업등을 적극 육성하며 96년 마침내 선진국 클럽을 불리는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고, 2010년에는 주요 20개국 (G20) 의장국으로써 서울에서 정상회의





동대문 야경

를 열었다. 2015년, 한국은 현재 세계경제순위에서 11위를 차지하고, 국민소득도 1953년 66달러에서 2만 8180 달러로 434배가 늘어나는 등 세계에서 유례없는 성장으로 세계인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1990년대 초까지 한국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한데는 일본 실물경제를 벤치마킹하고 이를 한국적 현실에 맞게 적용한 결과였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기술과 교통, 통신의 발전은 급속한 세계화와 디지털 혁명이 가속화 되게 만들었고, 이때부터 세계 경제의 판은 새롭게 짜이고 있었다. 90년대 초까지 산업화로 세계 2위라는 타이틀의 경제대국의 일본은, 21세기 들어서면서부터 IT 산업과 인터넷으로 뒤바뀌고 있는 환경과 개혁에 발맞추지 못한 채 현재까지 경기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반해 IT와 반도체, 인터넷의 집중육성을 기반으로한 한국 경제는, 문화산업이라는 새로운 매개체와 결합하며, 수백년간 문화수입국에 머물러 온 우리를 유의미한 문화수출국으로 바꾸어 놓았다. 21세기형 한국식 경제를 쓰고 있는것이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은 유튜브 조회수 23억 건 돌파하면서 한류에 불을 지폈고, 한국드라마 별에서온 그대 (SBS), 굿닥터 (KBS) 등은 중국과 동남아 아시아를 넘어 미국 방송사에도 리메이크 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금 세계의 이목은 한류에 집중되고 있다. 한류의 이런 인

기를 증명하듯 최근 2015년 8월 LA에서 개최된 한류 컨벤션 'Kcon'에는 6만명에 가까운 관람객들이 한류를 체험하기위해 모여들었으며, 이는대략 5억달러에 달하는 경제효과를 낸 것으로 추산된다.

2014년 통계에 따르면, 게임 드라마 K-pop으로 인한 한류의 수출효과는 연간 12조원에 달한다고 하니, 이제 한류 엔터테인먼트를 매개로 한 한국경제는 관광과 음식 뷰티등 관련산업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한껏 높이고 있다. 또한 드라마에서부터 시작된 한류는 한글, 태권도등으로 그 범위를 점차 넓히면서 이를 토대로한 한국의 경제발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제 세계는 이제 산업화의 경쟁구도에서 벗어나 '문화'라는 토대위에서 재편되고 있다. 나라와 나라간의 무역산업이 주를 이루던 시대를 넘어, IT와 인터넷으로 문화와 문명이 퍼지고 이론인해 세계가 합쳐질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초단기간의 산업화 성장을 이루어 냈다. 하지만 미래가 흐르고 있는지금, 산업화 사회의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문화와 역사가 흐르는 우리의 한국을 보여줄때 세계 강국들이 경쟁하는세계시장에서 한국경제가 다시 힘찬 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L.A. 한국문화원 제공

광복 70년 경제지표 변화

(자료: 통계청)

인구 변화	1949년 2천 16만명	2014년 4천7백 90만명
국민소득(GNP)	1953년 66달러	2014년 2만 8180달러
농업종사자	1960년 2백 30만구	2010년 1백 10만가구
무역액	1948년 2억 3000만달러	2010년 1조달러

## 미주한인 사회와 독립투쟁



윤병욱

20세기 초 조선왕조에 대한 일본의 외교권 박탈에 이어 경술늑약(1910년)으로 국권과 나라의 주체, 그리고 영토를 빼앗기는 조선왕조의 패망은 한국 역사상 최대의 치욕적인 사건이었다. 한인들의 미주이민은 근대 한국을 변혁시키며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폐쇄된 사회를 개방시키는 촉진제였다. 미주한인이 해외에서 일본의 침탈과 잔악성을 세계에 알리는 조직적이며 총체적인 독립투쟁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나라 밖에서 나라를 찾는 투쟁의 연속이었다. 그들은 바닥에 깔려있던 민족의 혼과 독립정신이 도도히 흐르고 있었다.

전반 세기는 조국이 없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세웠듯이 밖에서 잃어버린 나라를 찾기 위하여 환(環)민족주의와 해외 공동체를 만들어 무형(無形)의 한국을 보존하며 자치제도를 실시했고 유형(有形)의 한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상해임시정부가 생기기 전에 이를 대행하는 가(假)정부를 설립하게 된다. 그리고 후반 세기는 미국속에서 가장 활발한 소수 민족 사회로 발전하며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1903년 하와이에 건너 온 7,480명의 노동이민은 역사상 볼 수 없었던 민족의 대 이동인 '디아스포라'이다. 이 가운데 1,947명의 한인들이 미주 본토로 재이민을 오게 된다. 당시 본토는 서부 개척으로 로키산맥을 뚫는 태평양 철도가 개통되고 캘리포니아 금광을 찾는 골드러쉬가 이루어진다. 서부로 온 노동자들은 오랜

지밭, 농장, 광산, 철도 공사장에 참여, 당시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는 국가발전에 한 몫을 담당하게 된다. 본토의 한인 인구는 2,100명을 넘어서게 되어 유학생을 비롯한 한인들이 동부로 진출 '동진화'(東進化) 현상을 보여 준다.

미주한인 이민에 앞서 1902년 도미한 안창호는 샌프란시스코 한인친목회를 창립한 뒤 그들과 함께 1905년 공립협회를 조직하고 공립관을 세워 한인들의 직업을 찾아 주고 숙소로 쓰게 하며 한인노동소개소를 리버사이드에 세운다. 샌프란시스코와 하와이에 지방 총회, 캘리포니아 전역, 솔트레이크, 시카고 등지에 지회를 설립, 미주에만 1,10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면서 더욱 발전하여 만주, 러시아, 멕시코 지역까지 독립운동의 네트워크를 형성, 후에 세워지는 대한인국민회의 지방회로 발전하게 된다.

1908년 3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전명운(공립협회 회원), 장인환(하와이 대동보국회 회원)이 샌프란시스코 페리역에서 통감부 외교고문 스티븐스를 사살한 것은 국내외를 통틀어 최초로 일어난 항일 투쟁의 결정적인 거사였다. 그들의 석방을 위하여 해외 한인들은 샌프란시스코 공동회를 조직, 하와이와 본토에서 6,052달러를 모금했다. 하와이 한인 숫자보다 적었던 미주본토 한인들이 두배 넘게 모금을 하여 경제적인 주도권이 하와이에서 본토로 넘어 오게 된다.

이로써 하와이 협성협회, 대동보국회 그리고 본토의 공립협회가 대한국민회로 흡수 창립되어 미주 독립운동의 중심 기관이 된다. 이 단체에는 이승만도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파리 평화강화회의(1918년)에 국민회 총회 대표로 정한경과 함께 지명된다. 또한 뉴욕에서 열렸던 약소 동맹회에도 대표로 파견하는 등 이승만과 안창호의 협조 관계가 이루어진다.

1908년 콜로라도 덴버에서 박희병과 애국동지 대표를 주최한 박용만은 네브라스카에서 소년병 학교를 세우고 신한민보 주필로 참여하면서 1912년 안창호, 박상하와 함께 대한인국민의 중앙 총회를 선포문을 기초했고 후에 하와이에 건너가 삼권분립을 모방한 지방총회 규약을 기초, 민주 대의제도를 채택하며 일본 영사관을 배제한 자치권을 확보하여 중국이나 러시아에서의 독립운동 보다 미주에서 훨씬 자유롭게 독립투쟁을 전개하게 된다.

1919년 임시정부 이전 그리고 일본이 한국을 침탈한 이후 국내외 어느 곳에도 조선왕조(대한제국)를 대신할 조직체가 없었다. 대한인국민회중앙총회는 3.1운동으로 상하이 임시정부를 수립할 때 까지 해외 한인의 대표기관으로써 인정 받아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역할을 하였다. 상해로 보내는 독립자금 모금에도 이 조직을 통하여 4,200여명의 해외 한인과 외국인 등이 참여하여 임시정부의 재정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3.1 운동이후 해외독립운동은 미주에서 중국, 만주, 러시아로 확대 되었으며 미주한인들의 국권회복 전략은 지역적으로 만주나 러시아 처럼 한국과 접경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항일무장세력의 양성 보다는 그들의 투쟁을 지원하는 독립자금과 외교적인 활동에 더 무게를 두게 되었다.

미주한인들의 독립투쟁은 대한인국민회는 물론 구미외교위원부, 상하이임시정부, 외교위원부, 광복군, 재미한족연합회 등과 연계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미주한인들의 독립운동은 당시 미주에 거주하는 안창호, 이승만, 서재필, 박용만등의 역할과 활동에 맥을 같이 한다. 이민 초기부터 한인인 집중된 캘리포니아 서부 지역은 안창호, 네브라스카에서 활동하던 소년병 학교를 세운 박용만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한인국민회를 두고 하와이로 건너가 하와이 지방총회를 이끌면서 조선독립군단을 조직한다. 박용만은 이승만을 하와이로 초청하면서 가까웠던 이승만과 하와이에서의 주도권을 두고 서로 다투게 된다. 이승만은 3.1 운동 이후 상해임시정부의 대통령이 되었으나 워싱턴에서 구미위원부를 조직하여 대한인국민회를 배제시키고 상해임시정부와 충돌해 탄핵을 받으면서 단합된 독립운동을 보여주는데 실패하였다. 그리고 서재필과 협력하여 외교활동을 진행하면서 미국의회와 한국의 입장을 이해시키는데 외교적인 노력을 하였다.

미주의 네명의 독립운동가는 각기 다른 지역에서 독자적인 세력권을 형성하게 되었지만 미주독립운동의 뿌리를 두었던 그들이 초지일관으로 협력, 공동전선을 폈더라면 항일 독립운동은 크고 세로운 변화를 만들었을 것이다. 특히 시기를 나눈다면 서재필은 근대사의 변혁기와 3.1 운동기에 이승만 역시 서재필과 같이 초기의 정부개혁 운동과 3.1 운동 이후의 외교활동으로써 그리고 안창호는 구국개혁기와 미주한인사회의 정착활동 그리고 상해임정등 국내외로 독립운동을 한 인물로서 상해에서 일경에 체포되어 1938년 한국에서 순국하였다.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으로 6.25전쟁이란 국제전에서 미증유의 공산 침략을 막

아 냈으나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4.19 학생 혁명이 일어나 하와이로 망명하였고 1965년 세상을 떠난다.

미국속에 한인 인구는 이제 250만을 넘어서 사반세기 안에 미국 전체인구의 1%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미국 총인구의 2% 밖에 안 되는 유대인이 거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면 한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늠할 수 있다.

2003년 미주한인 이민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미연방의회는 매년 1월 13일을 ‘미주한인의 날’(Korean American Day)로 정하는 결의안을 2005년 하원(H,R-487)과 상원(Res-283)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미 전역에서 해마다 기념하고 있다. 미주한인사회 발전에 절대적인 공헌을 한 1세들의 노령화가 되는 반면 바야흐로 한인계 주한미국대사의 선임에서 보듯이 모국의 국제적 지위, 미주 한인들의 정체성 확립, 한류의 열풍 등의 영향은 물론, 한인계 2~3세들의 정치 및 공직, 전문직, 기술직에 증가와 경제신장은 미주사회에서 소수민족으로써의 역할에 큰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이나 미주한인들이 다같이 고민하는 것은 나라의 독립이 7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의 한국이 아닌 분단된 조국이 현실이다. 남북이 보다 성숙하고 이해하는 안목에서 깊은 고민을 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은 둘로 나뉜 나라가 아니고 하나의 나라, 하나의 국민, 하나의 영토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윤병욱**  
미주한인재단 전 총회장



# <미주지역 독립유공자 명단>



## 대한민국장(4)

이승만(1949), 안창호(1962),  
서재필(1977), 임병직(1976)

## 대통령장(4)

박용만(1995), 노백린(1962),  
장인환(1962), 전명운(1962)

## 독립장(21)

현순(1963), 김용성(1998), 김 호(1997),  
문양목(1995), 백일규(1997), 송종익(1995),  
송헌주(1995), 안원규(1995), 안현경(1995),  
유일한(1995), 윤병구(1977), 이대위(1995),  
임성우(1997), 정한경(1962), 조병요(1997),  
조용하(1977), 천세현(1995), 최진하(1995),  
한시대(1995), 흥연(1995), 강영소(2011)

## 애국장(29)

강혜원(1995), 곽임대(1993), 김경(1997),  
김원용(1995), 김현구(1995), 변준호(1997),  
송석준(1990), 송철(1994), 심영신(1997),  
양주은(1997), 이원순(1991), 임천택(1997),  
전경무(1995), 정두옥(1995), 정운수(1990),  
정재관(1990), 최능익(1995), 황기환(1995),  
박상하(2005), 김기창(2011), 김형순(2011),  
박원결(2011), 이살음(2011), 황보정결(2011),  
임정구(2013), 차경신(1993), 정원명(2014),  
이 초(2014), 한재명(2015)

## 애족장(52)

강원신(1995), 권도인(1998), 김동우(1997),  
김용중(2000), 김익주(1999), 김인수(1990),  
김진목(1990), 박기벽(1998), 박신애(1997),  
박종수(1997), 신광희(1995), 안재창(1998),  
유동면(1997), 이병익(1995), 이병익(1995),  
장 경(1995), 장금환(1999), 정양필(1995),  
조광원(1999), 최두옥(1998), 최봉운(1995),  
한승곤(1993), 한장호(1995), 현도명(1997),  
황인환(1997), 김종립(2005), 한경선(2004),  
이혜련(2008), 남궁염(2011), 박창운(2011),  
신형호(2011), 장인명(2011), 강명화(2012),

강영대(2013), 강영문(2012), 이하전(1990),  
이화숙(1995), 김창빈(1996), 이창휘(2001),  
김성권(2002), 이충천(2003), 노신태(2014),  
방화순(2014), 오임하(2014), 장병훈(2014),  
조성학(2014), 한성선(2015), 양제현(2015),  
안정수(2015), 이영순(2015), 김흥균(2015),  
황보영주(2015)

## 건국포장(64)

강영각(1997), 공백순(1998), 공백순(1998),  
박순동(1999), 손덕인(1997), 안재덕(1998),  
안창호(1993), 이종실(1999), 이흥기(1997),  
장용호(2000), 최응호(1999), 박형무(2008),  
김상옥(2011), 김성민(2011), 김흥기(2011),  
방사겸(2011), 방사겸(2011), 양호민(2011),  
위영민(2011), 이범영(2011), 이세창(2011),  
이우식(2011), 최용진(2011), 하상옥(2011),  
호근덕(2011), 박희성(2010), 조진찬(2010),  
윤진오(2012), 전득부(2012), 차진주(2013),  
이희경(2002), 차진주(2013), 김창세(2001),  
변일서(2001), 전수산(2002), 김대선(2014),  
김동현(2014), 김백수(2014), 김자혜(2014),  
서재근(2014), 송헌영(2014), 안영호(2014),  
이진일(2014), 이태도(2014), 정봉관(2014),  
차희관(2014), 최창덕(2014), 김세원(2015),  
임병일(2015), 김정식(2015), 김치일(2015),  
이성례(2015), 권영복(2015), 임성실(2015),  
이종오(2015), 박충섭(2015), 이명원(2015),  
이응목(2015), 윤응호(2015), 최창선(2015),  
하문덕(2015), 이운경(2015), 양순진(2015),  
이인상(2015)

- 총 174명

- 자료출처 : 대한민국 국가보훈처 (훈장~포장2015년기준)

### 미주독립유공자명단 작성에 수고해 주신 분들

- 대한인국민회기념재단 이사장 권영신
- 광복회미서남부지회 회장 배국희
- 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미주본부 이사장 변흥진
- 미주3.1여성동지회 회장 홍순옥
- 미주팔도연합향우회 회장 이병도
- 한미역사박물관 관장 민병용

## 코리아타운 역사와 사람 이야기



민병용

전세계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750만 한민족. 그중 한국인 새 이민자들이 로스앤젤레스에서 만든 코리아타운(Koreatown)은 한국 지도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미국 속의 작은 한국이다. 한국인들이 미국땅에 건설한 한인촌(韓人村)으로 얼굴이 더욱 다양하고 역동적이며 그리고 전통미를 풍기는 자랑스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코리아타운은 바로 한인 이민자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땀과 집념의 결실이다.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 미국에 온 한국 이민자들이 만들어 낸 위대한 작품이 바로 코리아타운이다. 새 이민자들의 꿈과 개척정신이 코리아타운을 천사의 도시 로스앤젤레스의 중심부에 자랑스럽게 우뚝 세운 것이다. 1970년 전후 올림픽가에서 스몰 비즈니스를 하던 몇몇 뜻 있는 한인 이민자들이 바로 코리아타운을 만든 주인공들이다.

45년의 세월 속에 코리아타운이 생성되고 발전되는 과정은 세단계로 나눌 수가 있다.

첫 단계는 1970년전후 올림픽가(Olympic Blvd.)에 한인 새 이민자들이 정착하기 시작한 것이다. 올림픽과 하바드 코너에 한인상점을 하나 둘 오픈했다. 이곳이 바로 코리아타운의 탄생지이자 1번지이다.

두번째 단계는 바로 올림픽가의 한인 상인들이 1973년 2월21일 코리아타운번영회라는 비즈니스 단체를 창립한 것이다. 코리아타운번

영회는 출범하면서 한글간판 달기 운동, 한인 소매점 유치하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1974년 11월 제1회 한국의 날 행사를 올림픽 거리에서 주최하면서 미국사회에 한인타운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

세번째 단계는 로스앤젤레스시로부터 1981년 코리아타운을 공식으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받아낸 것이다. 이때 남가주한인회가 그 역할을 맡았다.

코리아타운은 1980년대 이후부터 올림픽가에서 8가를 넘어 윌셔와 3가까지로 북상했고 동서로 자연스럽게 뻗어나가는 광역화를 통해 더욱 발전과 성장을 거듭했다.

1970년대 초 로스앤젤레스 한인수는 1만명선에 이르렀다. 처음 브라질을 거쳐 미국으로 들어 온 이신복씨는 1968년 올림픽가와 하바드 코너에 있는 일본 그로서리 마켓을 사서 한인 식품점으로 바꾸었다. 올림픽 거리가 코리아타운으로 만들어지는데에는 이희덕씨와 김진형씨가 큰 수고를 했다. 이희덕씨는 1971년

### 올림픽과 하바드 코너의 옛 올림픽식품점



이신복씨의 식품점을 사서 올림픽마켓으로 이름을 바꾸고 새 주인이 되었다. 한국관광공사에 근무하다 1968년 유학을 온 김진형씨는 1973년 2월10일 한국서적센터라는 책방을 올림픽마켓 옆에서 시작했다.

1974년 11월1일에는 올림픽가에는 모두 45개 업종 130개 업소가 생겨났고, 투자액은 5백만 달러라고 하는 통계가 처음 나왔다.

올림픽가에서 1974년부터 한국의 날 축제인 코리안 퍼레이드가 펼쳐지기 시작했고, 코리아타운이 주류사회에 알려지면서 성장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코리아타운번영회는 1974년 9월10일 제1회 코리안 퍼레이드를 버몬트와 웨스턴의 올림픽에서 시작하기로 결의하고 1974년 11월1일 ~ 3일까지를 축제기간으로 정했다.



1974년 11월3일의 제1회 코리안 퍼레이드

그리고 제1회 한국의 날 퍼레이드를 11월3일 하오 3시부터 5시까지 개최했다. 축제의 꽃인 퍼레이드는 미국밴드와 태권도 시범, 김동석의 농악대 등과 오픈 카를 탄 인사 등 2천여 명이 행진을 했다. 그리고 15대의 꽃차가 버몬트와 웨스턴 사이 올림픽가를 수놓았다. 이날 구경나온 인파는 예상을 넘어 3만명에 이

르렀다. 올림픽가에서 코리안 퍼레이드가 펼쳐진 후 버몬트와 웨스턴 사이 올림픽가는 더욱 코리아타운으로 면모를 갖추어 나가기 시작했다.

이희덕씨는 1974년 7월3일 영빈관을 개업했고 VIP Plaza를 세움으로 올림픽가의 대표적 한국식 건물이 되었다. 1977년 코리아타운에는 모두 8백개의 한인업소가 자리를 잡을 정도로 성장했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코리아타운은 올림픽을 중심으로 8가까지 북쪽으로 뻗어 나갔고 피코와 후버, 크렌서, 3가까지로 광역화의 모습을 보였다. 코리아타운번영회는 코리아타운 경계구역(Boundary)을 정해 달라고 톰 브레들리 LA시장과 시의회에 요청했다. LA시의회는 Koreatown Specific Plan이란 이름으로 동쪽으로는 버몬트 거리, 서쪽

으로는 웨스턴 거리, 북쪽으로는 8가, 남쪽으로는 올림픽 거리를 “Koreatown”으로 명명하고 로스앤젤레스시에서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1981년 남가주한인회는 올림픽가에 코리아타운 공식 표시판을 붙여달라고 요청했다. 이 해



8월 올림픽과 버몬트 거리 그리고 웨스턴에 코리아타운이라는 공식 안내 표시판이 역사적으로 선을 보였다. 1981년 10월30일에는 8가에 코리아타운 파출소가 세워졌다. 1982년 1월12일 산타모니카 10번 프리웨이 입구에서 또다시 코리아타운이라는 공식 안내판을 설치하는 명명식을 가졌다.



올림픽과 버몬트에서 갖은 코리아타운 표시판 제막식

LA총영사관이 1988년 10월22일 윌셔가와 버몬트 코너(3243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의 4층 건물을 구입 이전을 해와서 코리아타운은 더욱 한국의 면모를 과시했다.

윌셔가(Wilshire Blvd.)가 또한 한인 비즈니스 타운의 중심으로 꾸준히 뿌리를 내려갔다. 웨스턴가는 한인상가가 더욱 집중현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코리아타운의 상권은 1980년대에는 올림픽가와 8가에 중심적으로 형성되었고, 2000년대이후에는 웨스턴과 윌셔가로 더

욱 뻗어 나갔다.

올림픽가 노르만디가 만나는 곳에 자리잡고 있는 아드모어 공원을 1999년 10월6일 서울국제공원(Seoul International Park)으로 LA시를 움직여서 이름을 바꾸는 역사를 한인들이 또한번 만들어 냈다. 그리고 2010년 8월20일 LA시의회는 코리아타운 구역안을 최종 통



코리아타운을 알리는 게이트웨이

과를 시켰는데 동서로는 버몬트와 웨스턴 그리고 남북으로는 3가와 올림픽으로 결정을 했다.

1970년대와 1980년대는 한인들이 힘을 모아 코리아타운을 만들었다면, 1990년대 이후에는 로스앤젤레스시가 재단장 공사, 구역 정하기, 다울정 건립지원, 노인 커뮤니티센터 부지 제공, 올림픽경찰서 건설 등 지원에 나섰다.

1992년 4월29일 LA폭동후 최대 피해를 본 한인사회는 5월1일 10만동포 평화대행진을 시작



한 곳도 바로 코리아타운 중심에 있는 서울국제공원이다. 그리고 한국 정자를 본 딴 다울정이 2006년 1월 31일 올림픽가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냈다.



올림픽과 노르만디에 세워진 다울정

무엇보다도 한인사회의 오랜 숙원이던 올림픽경찰서가 2009년 1월4일 버몬트와 11가에 역사적으로 문을 열면서 더욱 안전한 코리아타운이 되었다.

또한 코리아타운 안에는 한인사회와 주류사회를 위해 공헌을 인사를 위해 LA시는 광장(Square) 명명식을 가졌다. 세미 리 광장은 올림픽과 노르만디(2010.8.5)에, 하기환 광장은 월셔와 버몬트(2013.12.16), 장성균 광장은 웨스턴과 8가(2014.1.13) 그리고 김진형 광장은 올림픽과 버몬트(2014.9.18)에 이름이 오르면서 한인들의 위상이 로스앤젤레스에서 더욱 높아졌다. 올림픽가 재단장 공사도 2011년 12월 5일 모두 마쳤다. 버몬트와 웨스턴에는 처음으로 게이트웨이가 선을 보임으로 코리아타운을 관광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갔다.

코리아타운은 이제 반세기의 세월속에서 1970년대는 생성기, 1980년대는 다양화의 시기, 1990년대는 광역화의 모습 그리고 2000년대는 역동적 이미지 그리고 2010년대는 한류와 함

께 문화적 색채를 더욱 물씬 풍기고 있다. 코리아타운은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한국인 이민자들의 마음의 고향이자 대대로 우리 후손들이 발전시켜 나가야 할 미국 속의 영원한



한국 전통양식으로 세워진 영빈관

한인들의 땅이다. 코리아타운에는 젊음과 희망이 있다. 코리아타운의 매력은 무엇보다도 다양성과 전통적인 한국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폭동을 이긴 코리아타운에는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정말 미국다운 곳이고 로스앤젤레스 문화의 중심지이다.

앞으로 코리아타운을 위해 외국인과 한국 및 타주의 한인 그리고 1.5세 및 2세를 위한 코리아타운 투어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 코리아타운 안에 문화 공간을 갖춘 복합상가, 국제적 회의장 및 복지과 공연 시설이 더욱 들어 설 것이다. 문화적으로 상징성 있는 건물이 우뚝 설 때 코리아타운은 로스앤젤레스의 명소 중의 명소가 될 것이다.

**민병용**  
한인역사박물관 관장

## 해외 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육



경정아

광복 70주년!

어느덧 민족의 빛과 얼을 되찾은지 70년이 되었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해외에서 이민생활을 하고 있는 한국인으로서 한국어의 중요성을 되짚어봅니다.

유구한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 그러나 그 찬란한 문화와 역사가 무참하게 짓밟혔던 치욕의 날이 있었습니다. 1910년(경술년) 8월 29일에 일어난 국가의 치욕인 한일병합이 일본에 의해 강제로 체결되고 대한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습니다. 이 때부터 광복이 이루어지기까지 영토와 국민은 있었지만 이들을 지킬 정부와 외교권이 없는 나라 잃은 슬픔과 치욕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경술국치입니다.

### 일본의 한국어 말살 정책

한국을 강제 병합한 일본은 민족 말살 정책으로 1) 언어 말살 2) 문자 말살 3) 역사 왜곡 4) 창씨 개명 5) 토지 조사 사업 6) 지하자원 수탈 7) 공출과 농지 수탈 8) 인력 징발(병력, 노무자, 정신대, 위안부 등) 9) 신사 참배 강요 등을 자행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어 사용, 창씨 개명, 신사참배 강요 등은 우리 민족의 얼을 말살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가장 잔혹한 정책이었습니다. 1940년 우리글 신문이 폐간 되고 1942년 조선어학

회 사건 등 폭력적인 언어 탄압이 가해졌습니다. 모든 교과서는 일본어로 발행되고 우리글과 우리말을 교육의 영역에서 배제하여 한국인들을 일본의 지배에 순응하게 만들려고 하고, 교육에서 우리말 우리글 사용을 금지하여 한국 민족의 미래를 꿈꾸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일본은 우리 문화 말살과 함께 궁궐인 창경궁을 동물원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 광복의 꿈

일본의 이러한 만행과 악행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은 광복을 꿈꾸며 노래했습니다. 심훈은 다음과 같이 절규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종락.....

나는 밤하늘에 날으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鍾路)의 인경(人磬)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頭蓋骨)은 깨어져 산산(散散)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恨)이 남으리까

그날이 와서 오오 그날이 와서  
육조(六曹)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하거든  
드는 칼로 이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鼓] 만들어 들쳐 메고는  
여러분의 행렬(行列)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꺼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광복의 기쁨을 자신의 가족이라도 벗겨서 북을 만들어 치며 춤을 추리라고 했습니다. 그 민족의 꿈이 70년 전 1945년 8월 15일에 이루어져 광복되었습니다. 우리의 조국을 되찾음은 우리의 자랑인 우리 민족의 얼이 담긴 한글을 되찾음과 같았습니다.

### 광복 후 한글 정책

세계적으로 드물게 창의적이요 과학적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문용어는 외국어에게 자리를 내줄 수 밖에 없고 한국어는 일상어로서의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광복후 언어에서 일제의 정신적 잔재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 했으나 일본어는 광복 후에도 한 동안 지식층에서 유용한 언어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언어 상류층이라고 할 수 있는 지식층의 인식 문제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1968년에 이르러서 “한글 전용 5개년 계획 결의”가 정부 차원에서 있었으나 이 후에도 한글 한자 혼용과 한글 전용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혼란도 겪었습니다. 광복은 되었으나 언어 식민주의에서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빼앗겼던 한글과 한국어의 자리는 되찾았지만 현실은 또 다른 영어 식민주의에서 독립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영어 식민주의에서 자국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 재외 동포의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외 동포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의 중요한 역할을 한국어가 해주는 것입니

다. 가끔 한민족의 후손이라고 소개되는 명사들을 보면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등의 말 외에는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것을 보거나, 한국어를 좀 한다는 재미 한인들의 2세들이 높임말을 알지 못하고 윗사람에게도 낮춤말을 사용하는 것을 볼 때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단지 몇 마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것으로 한국인의 정신과 가치관을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말 한국학교 교사로 재직할 때, 자녀를 한국 학교에 데리고 와서 교실 뒷자리에 앉아 자녀와 같이 한글을 배우는 부모들도 있었습니다. 어릴 때 한국어를 배우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고 말하면서 지금은 사회에서 인정 받는 직책을 맡고 있지만 한국어를 못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외국에 살면서 외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할 줄 알아도 우리는 그 나라의 주류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넘기 어려운 고개인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자기 민족의 가치 있는 전통적인 사상과 문화, 생활 습관, 음식 문화 등을 잃지 않을 때 인정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에서도 같은 능력을 가진 조건이라면 직원 채용에서 자국민을 선택할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말을 훌륭하게 구사할 수 있는 우리의 2세들이 오히려 존중 받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개인적 이익의 차원을 넘어서 세계 속의 ‘문화 영토’ 확장을 구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해외 동포는 귀중한 자산인 것입니다. 해외 동포들이 세계 어디를 가도 김치를 먹듯이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어를 잊지 않고 ‘외교 사절단’ 역량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세계사 속의 한국 문화

의 공헌을 꿈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 해외 동포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정책

LA한국교육원(<http://kecla.org>)에서는 한국어 보급을 위하여 미국 정규 학교 한국어반에 대한 운영 지원, 재미 청소년 한국어 교육, 한국어반 장학생 장학금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재외 한국학교 교육 활동 지원으로 한글학교 교사 연수, 한글학교 교재 보급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주 초중고등학교 한국어반 개설 수는 초등학교 47개교, 중학교 31개교, 고등학교 71개교 등으로서 한국어를 정식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LA한국교육원의 통계를 보면 2015년 현재 California에 등록되어 있는 한글학교수가 219개교이고 교사수 1,936명 학생수 12,37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도 이중 언어로 한국어를 선택하여 이중 언어 수업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LA통합교육구(LAUSD)가 올 가을부터 온라인 한국어 수업을 본격적으로 허용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어반이 없어서 외국어 과목으로 채택하지 못했던 학생들도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온라인 한국어 수업은 UC에서 정식 학점으로 인정 받아 대입 지원 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류 붐을 타고 세계 속의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로서는 해외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현지 교사 양성과,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현지 한국어 교육 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교사의 전문성 높이기, 효율적 한국어 교육 지원을 위한 연구를 계속 증진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철없이 신조어나 줄임말, 비속어 생성 사용 등으로 한국어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해외 동포로서 이민 1세대들이 그 나라 국어를 습득하는 데에 매우 어려움이 있듯이 이민 2세대들이 한국어를 습득하는 일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해결책으로 한 가지 실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와 자녀들이 가정에서는 한국어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영어가 서툰 부모들이 영어가 술술 나오는 자녀들을 기특하게 여기고 있는 동안 한국어 습득은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초기 이민자들은 빠른 영어 습득을 위해 한국 사람이 모이는 모임에는 가지도 않았다는 일화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는 외양은 한국인이건만 한국어를 제대로 할 줄 모르는 2세대들이 되고만 것입니다.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하고 주말에는 한국학교로 자녀를 보내는 수고를 해야 모국어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컴퓨터 전문가들도 한글은 컴퓨터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할 정도로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글입니다. 우리말 우리글로 우리의 가치 있는 일을 승계하여 한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사회 속에서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세종대왕 618회 돌이면서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세계 속의 우리말 우리글의 창달을 기원합니다.

## 경정아

로스엔젤레스 한인회 이사  
로스엔젤레스 한인회 문화 예술 체육  
분과위원장  
나성문학회 이사장  
시와시인 회장  
영재한국학교 교장  
영재어린이학교 교장





## 반일보다는 극일을...



영 김

우리들의 조국 한국이 해방된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3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수 많은 사람들이 옥고를 치르며, 목숨을 잃는 민족적 수모를 당했지만, 7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일본의 식민통치하에서 벗어난 것은 물론, 반일보다는 극일을 위한 노력의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견원지간처럼 계속해서 으르렁거리며 지내왔지만, 일본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일본의 문화가 결국, 한반도에서 내려간 백제 유민들에 의해 시작되었고, 꽃 피우게 되었다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일본에서 아무리 이를 부정하려고 노력하며, 또 고분 발굴을 중지하고 백제 유물을 숨겨도,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일본보다 우리 스스로의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말로는 우리가 일본보다 낫다고 우기지만, 아직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리를 마련하거나 잘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본이 밍다고 해도, 일본이 더 강하면 우리의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게 되며, 우리는 결국 또 다른 편견의 피해자가 될 뿐입니다.

일본의 식민통치시대 기록 영화를 보면 속이 상합니다. 피가 끓어 오르지만, 또 한편에서는, 왜 우리 선조들은 저렇게 당하기만 했을

까... 더 속상한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일본에 일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지나간 것은 용서하고, 과거의 나쁜 기억들이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본과 무조건 잘 지내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강해질 때, 우리는 저절로 일본이라는 나라를 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나갈 때, 우리는 저절로 일본을 넘어설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더 건강한 나라가 될 때, 일본은 우리 앞에 머리를 수그릴 수 밖에 없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위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과연 일본을 넘어서기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우리는 과연, 전쟁을 치르며 철저히 무너졌던 일본보다도 더 나은 민족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조국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은 과연 우리 조국의 뼈아픈 과거를 알고 있고,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

습을 먼저 직시해야 합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구호보다는 실천으로, 악을 쓰며 욕을 하기보다는 지긋한 미소로, 우리 한인 한 명, 한 명이,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기 위한 첨병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애국은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미국인들은 우리 한인들보다도 일본인들을 더 선호할까? 왜 미국인들은 일본문화에 심취하고 이를 배우기 위해 노력할까? 왜 미국인들은 혼다나 토요다와 같은 일본 상품에 열광하는 것일까? 왜 미국인들은 미국을 공격한 일본에게 그렇게 우호적일까? 과연 미국은 일본을 용서하고 일본을 진정한 미국의 최우방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정말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에 대한 우리의 해답은 무엇일까요?

해방 70주년을 맞아 저는 제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당한 수모와 희생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일본을 찾아가 소리도 지르고, 아직도 위안부 문제를 외면하며 사과를 안하는 일본의 위정자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돌을 던지고 싶지만, 저는 문제의 해결책을 제 자신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일본인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우위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일본인들보다도 더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본인들보다도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본인들보다도 더 관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본인들보다도 더 많은 것을 세계를 위해 기여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일본을 미워하고, 일본에 대항해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인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 날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일본을 극복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하며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도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더 정직하고 모범적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더 성숙해지는 제 자신을 위해, 책도 많이 읽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일본보다도, 우리의 조국 한국이, 세계 속의 한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 이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광복 70주년이 그저 행사로 시작해서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닌, 정말 우리 스스로가, 반일이 아닌 극일을 위해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는, 일본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어야,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국가가 아닌,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가 있고, 또 해야만 하는 것이, 광복 70주년을 맞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 김**  
California 하원의원



## L.A. 한인타운 경제



한인 이민 역사가 올해로 112년째를 맞았습니다. 지난 1903년 하와이 사탕수수 노동자들로 부터 시작된 우리의 이민 역사는 가장 많은 인구 수와 가장 큰 상권을 자랑하는 이 곳, 로스앤젤레스에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통상 LA에 한인 상권이 태동한 것은 1970년대 부터로 바라봅니다. 1970년대 초 미국의 이민 쿼터 증가와 대한항공의 LA 취항으로 한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한인들은 한국을 상대로 한 무역업과 한인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막연한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태평양을 건넌 한인들은 큰 자본이 필요하지 않고 언어 문제 발생도 적은 노동집약적 산업에 주로 종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타고난 근면함을 앞세워 자녀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을 물려주고자 밤낮 없이 일했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한인 커뮤니티는 가랑비에 옷이 젖듯 미국이라는 낯선 땅에 터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민 1세대의 끈질긴 노력으로 작게나마 어느 정도의 자본금이 마련되기 시작한 이후로는 소자본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가발업, 리커 스토어, 마켓, 봉제공장, 세탁소, 식당, 의류업, 슈퍼마켓 등으로 경제 활동의 영역이 넓어지며 코리아타운으로서의 면모가 서서히 갖추졌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인 커뮤니티와 상권은 더 많은 성장을 거듭합니다. 지역적으로도 로스앤젤레스를 벗어나 오렌지 카운티, 밸리 등 교외 지역으로 뻗어나갔습니다. 당시 미국은 개스값이 폭등하고, 모기지 금리가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20%를 웃돌 정도의 엄청난 불경기였지만, 한인 사회의 성장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균계일학이었습니다.

저희 한미은행이 태어난 것도 이 즈음인 1982년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잇달아 지상사를 개설하고, 이에 맞춰 이민자와 유학생의 수도 크게 늘어난 것도 이 때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들어오고 한국 제품들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한인 비즈니스 업체들은 규모를 키우는 것은 물론 주류 사회로 확장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한인 경제의 젖줄’이라 부르는 한인 의류업계도 이 시기에 LA 다운타운에서 의류 및 봉제업을 중심으로 성장하며 지금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의 해외투자 자유화 바람을 타고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해 졌고 88 서울 올림픽을 즈음해서 시행된 해외여행 규제 완화는 한국 여행객 수를 크게 늘린 기폭제 역할을 했고 한인 상권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 시기에 비디오, 제과점, 노래방, 카페 등 한국의 영향을 받은 비즈니스들이 LA에 문을 열



며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성장을 이어가며 1990년대를 맞은 한인 경제는 이제 주류 사회의 전유물이던 월서 불러바드를 코리아타운의 중심지로 바꿔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는 한인커뮤니티에 큰 상처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1992년의 4.29 폭동과 1994년의 노스리지 대지진이라는 두 번의 악재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폭동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들이닥친 대지진으로 그 동안 땀 흘리며 일궈온 많은 것들을 잃은 수많은 한인들이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1997년 모국인 한국이 맞았던 IMF 사태도 한인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한인 사회의 우려가 컸고, 주류사회에서 한인 사회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하는 등 모국을 위한 도움의 손길을 아끼지 않으며 어려울 때 더욱 크게 발휘되는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어려운 한국을 벗어나려는 한국 자본들이 미국으로 대거 유입되며 미주 한인 경제는 또 한번의 성장을 위한 탄탄한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호황을 거듭하던 한인 경제는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시작된 금융위기라는 어려움에 맞닥뜨렸습니다. 한인 사회는 물론 미국 사회 전체가 경험하지 못했던 혹독한 불경기로 수많은 비즈니스가 문을 닫고 삶의 터전마저 잃은 한인들도 많았던 것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경제 전체가 활기를 띠면서 한인 경제 또한 살아나고 있습니다. 한동안 보기 힘들었던 한인들의 비즈니스 및 투자 활동

이 하나 둘씩 눈에 띄고 있습니다. 물론 불안정한 유가와 중국 및 유럽의 불확실한 경제상황, 연방 금리 인상 등 미국 경기상황을 좌지우지할 복병들이 숨어 있고, 한인 상권은 특히 다운타운 의류도매업을 대상으로 한 연방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의 영향이 아직도 남아 있기는 합니다.

한인 사회는 다른 어떤 이민자 커뮤니티와 비교해도 밀리지 않을 탄탄한 경제성장을 보여줬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112년에 걸친 우리의 노력이 이제 미국에서 꽃을 활짝 피우고 있는 만큼 이제 정치, 법조, 문화, 예술, 언론, IT 등 분야를 넘어서 두각을 나타낼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 112년의 한인 이민 역사는 지금의 한인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한인사회가 재정적으로나 규모 면에서 강해졌다고 자부합니다. 한인들이 우리의 역사와 뿌리, 이민 선배들의 눈물과 땀을 기억하는 한, 한인사회 경제의 미래는 매우 밝고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을 이루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사 속 33년 전 태어난 저희 한미은행도 그 동안 한인 사회와 기쁨과 행복,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하며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했습니다. 자본도 크레딧도 없이 갖 이민 온 한인들에게 근면과 성실을 담보로 빌려준 종자돈은 지금의 고층빌딩과 사업체로 진화했습니다. 앞으로도 한미은행을 향한 한인 사회의 변함없는 성원에 보답하고자, 리딩뱅크로서의 소임을 다하며 한인사회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한미은행 제공**



길민택

## 미국 사법제도와 한인 법조인

미국은 50개의 주가 모여 하나의 연방 국가를 이루고 있으며, 미국의 법제도도 연방법(Federal Law)과 주법(State Law)의 이중 체계를 갖추고 있다. 연방법과 주법이 다루는 분야는 서로 다르다. 그러나 혹시 연방법과 주법이 서로 상충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연방법이 상위법이므로 우선한다.

표들은 연방 정부가 각 주의 권한을 너무 깊이 침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연방 정부의 권한을 외교, 국방, 주와 주 사이의 통상의 3분야로 제한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외 시민들의 일상 생활과 관련된 모든 분야는 당시 각주의 법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 A. 연방법 (Federal Law)

#### 1. 연방 헌법의 탄생과 범위

연방법의 범위는 미국의 연방 국가(United States of America)가 탄생할 당시의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미국에는 현재는 주가 50개이나, 미국 연방이 탄생한 1776년 당시에는 오직 13개의 주가 있었다. 이 주들은 주로 영국에서 이주한 시민들이므로 영연방 제국의 간섭을 많이 받았으며 여러 종류의 조세 요구에 시달렸다. 각 주의 지도자들은 혼자 힘으로는 영국의 간섭과 지배로부터 너무 미약함을 느끼고 모두가 하나로 뭉쳐 그들에 대항할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좀더 강력한 “하나의 국가”를 설립하기로 하고 1776년 각 주 대표단이 버지니아주에 모여 미국 연방 국가 설립에 합의하고 그해 7월 4일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이 작성한 독립 선언문을 낭독하고 영국으로부터 독립해 미국을 설립하였다.

그 당시 미국 국가 체제의 핵심인 연방 헌법(Constitution)을 제정하면서 새로 생기는 연방 정부와 기존의 주 정부 간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각 주의 대

#### 2. 연방법의 제정과 범위의 확대

연방법은 연방 의회(Congress)가 제정한다. 연방 의회는 상원(Senate)과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이 있으며, 상원 의원은 각 주에서 2명씩 모두 100명이고, 하원 의원은 인구 비례로 그 수가 정해지며 모두 435명이 있다. 연방법은 상하원 모두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법으로서의 효력을 발효한다.

연방법은 위에서 말한대로 외교, 국방, 그리고 주와 주 사이의 통상 분야에 국한 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법원은 ‘주와 주 사이의 통상(Interstate Commerce)’ 조항의 적용 범위를 점점 넓게 해석했다. 그 결과 오늘에 이르러서는 상거래 분야에서 연방 통상법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넓게 해석되고 있다. 어느 한 상거래가 한 주의 경계선을 넘으면 주와 주의 통상을 관할하는 연방법의 저촉을 받는다. 예를 들면, 가주에서 주식 회사를 설립할 때 투자금이 가주 내에서만 모금되면 연방법이 저촉되지 않으나, 일부 자금이라도 타주에서 오면 연방법의 저촉을 받는다.

• 연방 정부의 사법 제도

연방 정부의 사법 제도는 3심제를 골격으로 하며 대법원(U.S. Supreme Court), 고등 법원(U.S. Court of Appeals) 그리고 지방 법원(U.S. District Court)으로 구성된다. 연방 법원은 연방 정부를 상대로 하는 케이스나, 연방법과 관련된 케이스만 취급한다.

연방 대법원은 워싱턴에 있으며 9명의 대법관(Justice)으로 구성된다. 연방 고등 법원은 전국을 13개 지역으로 분할하여 13개 고등 법원을 두고 있다. 연방 지방 법원은 전국적으로 94개가 있으며 물론 연방법과 관련된 케이스만 다룬다.

**B. 주 법 (State Law)**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방 국가가 탄생한 1776년 이전의 13개 주는 이미 각각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있었으므로 자체 헌법은 물론 완전한 사법 체제와 법률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므로, 각 주는 연방 정부에 이양한 국방, 외교, 주와 주간의 통상 3 분야 이외의 모든 법, 즉 형법, 민사법, 상법, 재산법, 교육법, 공무원법, 조세법, 상속법, 아동관련법 등등은 각각의 당시 법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 주 정부와 지방 정부

각 주는 주 차원의 업무를 관할하는 주 정부, 카운티 업무를 관할하는 카운티 정부, 시 업무를 관장하는 시 정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방 정부들은 각각의 행정을 위한 법이 있으며, 주 의회에서 제정한 법은 코드(Code) 또는 스태츓(Statute)이라고 하고 카운티나 시에서 제정한 법은 올디난스(Ordinance)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3지방 정부도 연방 정부와 마찬가지로 각각 검찰부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검사(District Attorney, D.A.)들을 고용하고 있다. 이들 검사는 형사 사건에서 정부측 변호사로 활약한다. 이들은

여기서 정부를 대변해서 업무를 수행하지만 사실은 국민을 대신해서 사법처리 한다고 보면 된다. 왜냐하면 정부는 국민을 대신해서 활동하기 때문이다.

• 주 정부의 사법 제도

각 주도 연방 사법 제도와 같이 3심제를 기본으로 하며, 주 법은 주 의회(State Assembly)가 제정하고 행정부가 집행한다. 주 의회도 연방 정부와 마찬가지로 상하원이 있다.

• 주 대법원 (Supreme Court)

가주 대법원은 가주의 최상위 법원이므로 주법에 관한 한 최종 판결을 내리는 법원이며 7명의 대법관(Justices)이 있다. 연방 대법원이 미국 제도상 주 대법원보다 상급 법원이지만 연방 대법원은 주법과 관련된 케이스(case)는 말지 않으므로 주 대법원 판결이 주법에 관한 한 최종 판결이 된다.

• 주 고등 법원 (Court of Appeals)

가주 고등 법원은 가주를 6개 지역으로 나누어 관할하며 모두 6개의 고등 법원이 있다. 고등 법원은 지방 법원에서 올라오는 항소 케이스를 다루며 현재 가주에 약 105명의 고등 법원 판사가 있다.

• 주 지방 법원 (Superior Court)

가주에서는 최하위 법원을 수피어리어컷(Superior Court)라고 한다. 수피어리어 컷는 카운티를 기준해서 조직되어 있으므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있는 지방 법원의 경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수피어리어 컷(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이라고 부른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만 해도 38개의 지방 법원이 요소요소에 산재해 있다. 우리가 주 법에 의거하여 소송을 제기하든 또는 소송을 당하든 처음 재판을 하는 곳이 이 법원들이며 일반 시민들과 가장 밀

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의 주소를 참고로 뒷편에 적어 놓았다.

## C. 한인 법조인 현황

### • 연방 법원 판사

한인 연방 법원 판사 수는 주 법원 한인 판사 수에 비해 많지 않다. 주 법원 판사가 되는 것도 물론 어렵지만, 연방 법원 판사가 되기는 더욱 어렵다. 연방 법원 판사는 대통령이 추천하고 상원이 임명한다.



연방 법원 판사로는 ‘한인사회 데이터 뱅크’에 의하면, 북가주에 루시고판사(Lucy Hyeran Koh, Federal Judge), 일리노이스 시카고에 John Z. Lee판사, 그리고 매리랜드에 Theodore D. Chuang판사등 3명의 한인계 연방 판사(U.S. District Judge)가 있고, 일리노이스 시카고에 김영배 매지스트레이트 판사(U.S. Magistrate Judge)가 있다.

루시고 판사는 몇년 전 삼성과 애플케이스를 맡아 잘 알려져 있다. 그녀는 1993년 하버드 법대를 졸업하고 다이앤 파인스타인과 바바라 박서 두 가주 연방 상원 의원들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소개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1월에 상원에 임명을 추천하였으며 그해 6월에 연방 상원의 인준을 받음으로써 한인 최초의 연방 법원 판사가 됐다.

John Z. Lee판사와 Theodore D. Chuang판사도 하버드 법대를 졸업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추천하여 각각 2012년 5월과 2014년 5월에 연방 상원이 임명하였다. 매지스트레이트 판사는 필요 시 시민 그룹 등의 추천을 받아 해당 법원의 판사들이 결정한다.

### • 남가주 주 법원 판사

가주의 경우 수피어리어 법원(Superior Court) 판사는 선거로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결원이 발생할 경우 주지사가 그 자리를 임명하여 충원한다.

한인 사회 데이터 뱅크(Korean american data bank.org)에 의하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수피어리어 법원에 현재 아래에 적은 8명의 한국계 판사가 활동 중이다.

Charles A. Chung, Judge,  
Superior Court of Los Angeles County, North District

Charles Carlos Chung, Judge  
Superior Court of Los Angeles County, South District

Lisa Mangay Chung, judge  
Superior Court of Los Angeles County,  
; Central District



Howard Lee Halm, Judge  
Superior Court of Los Angeles County, Central District ; Norwalk

Dorothy C. Kim, judge  
Superior Court of Los Angeles County, Central District

Mark Kim, Judge  
Superior Court of Los Angeles County, South District ; Long Beach

Ann H. Park, Judge  
Superior Court of Los Angeles County, North District

Tammy Chung Ryu, Judge  
Superior Court of Los Angeles County, South Central District, Compton

오렌지 카운티 수피어리어 법원에도 Richard Y. Lee, Judge (Superior Court of Orange County, Orange)가 재직 중이다. 물론 남가주 이외의 많은 주에서 한국계 판사들이 활약을 하고 있다.

• **한인검사 활동**

위에서 간략히 서술한 바와 같이 연방 정부는 물론 주 정부, 카운티, 시 정부는 각각 수 많은 변호사를 정부 검사로 고용하고 있다. 현재 수 많은 한국계 변호사들이 주 검사, 카운티 검사, 시 검사로 활약하고 있으며 남가주에만 그 수가 9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미주 한인 검사들은 한인 검사 협회(Korean Prosecutors Association)를 구성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으며 한국 검사들과도 매년 모임을 갖고 사법 제도의 비교 검토를 통해 사법 제도의 상호 이해와 향상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

국 한인계 검사들뿐 아니라 캐나다, 호주, 영국, 독일, 브라질 등의 한인 검사들도 위 협회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그 활동 범위가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 **남가주 변호사 활동**

한인 타운에서의 한인 변호사들의 활동은 1970년대에 이민 1세와 1.5세대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1.5세대와 2세 한인 변호사들이 1년에 가주 전체에서 매년 100~150명 정도, 때론 그 이상 배출 되면서 한인 타운에서 개업하는 변호사 수가 많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언어의 불편을 겪는 많은 한인들에게 이중언어가 가능한 변호사들로부터 더 많은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한인 사회에 한미 변호사 협회(Korean American Bar Association)와 한인 타운 커뮤니티 변호사 협회(Korean Community Lawyers Association)등 2개의 변호사 협회가 한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2세 변호사들 대부분은 한인 타운에 개업하기 보다는 주류사회의 규모가 큰 법무 법인이나 정부의 검사로 활약하거나, 또는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다.

**길민택 변호사**  
〈이력〉

Attorney / CPA / MBA / Broker  
Juris Doctor - Southwestern University  
로스앤젤레스한인회 이사  
Lions 전 총재 - District 4-L3, LCI

〈저서〉

상속 계획과 리빙 트러스트 Basics of Estate Planning and Living Trust (2005)  
Income Tax Law for Start-Up Businesses- Amazon.com

## 로스 앤젤레스 카운티내 슈퍼어리어 코트 각 시별 위치

### Alhambra

Alhambra Courthouse - 150 W. Commonwealth, Alhambra  
CA 91801

### Avalon

Catalina Courthouse - 215 Sumner Ave., Avalon, CA 90704

### Bellflower

Bellflower Courthouse - 10025 East Flower St., Bellflower  
CA 90706

### Beverly Hills

Beverly Hills Courthouse - 9355 Burton Way, CA 90210

### Burbank

Burbank Courthouse - 300 E. Olive, Burbank, CA 91502

### Chatsworth

Chatsworth Courthouse - 9425 Penfield Ave, Chatsworth  
CA 91311

### Compton

Compton Courthouse - 200 W. Compton Blvd., Compton  
CA 90220

### Downey

Downey Courthouse - 7500 E. Imperial Hwy, Downey, CA 90242  
Los Padrinos Juvenile Courthouse - 7281 E. Quill Dr., Downey  
CA 90242

### East Los Angeles

East Los Angeles Courthouse - 4848 E. Civic Center Way, L.A.,  
CA 90022  
Eastlake Juvenile Court - 1601 Eastlake Ave., L.A., CA 90033

### El Monte

El Monte Courthouse - 11234 E. Valley Blvd., El Monte, CA 91731

### Glendale

Glendale Courthouse - 600 E. Broadway, Glendale CA 91206

### Inglewood

Inglewood Juvenile Courthouse - 110 Regent St., Inglewood,  
CA 90301

### Lancaster

Alfred J. McCourtney Juvenile Justice Center - 1040 W. Ave. J,  
Lancaster, CA 93534  
Michael Antonovich Antelope Valley Courthouse - 42011 4th St,  
West, Lancaster, CA 93534

### Long Beach

Governor George Deukmejian Courthouse - 275 Magnolia, Long  
Beach, CA 90802

### Los Angeles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 위치한 지방법원 L.A. 카운티 본부  
Stanley Most Courthouse - 111 N. Hill St., L.A., CA 90012

Airport Court House - 11701 S. La Cienega, L.A., CA 90045

Central Arraignment Courts (형사 케이스)  
429 Bauchet St. Los Angeles, CA 90012

Central Civil West Courthouse  
600 S. Commonwealth Ave., Los Angeles, CA 90005

Clara Shortridge Foltz Criminal Justice Center  
210 W. Temple St., Los Angeles, CA 90012

Hollywood Courthouse - 5925 Hollywood Blvd., L.A., CA 90028

Mental health Courthouse - 1150 N. San Fernando Rd, L.A.,  
CA 90065

Metropolitan Courthouse - 1945 S. Hill St., L.A., CA 90007

### Monterey Park

Edmond D. Edelman Children's Court - 201 Centre Plaza  
Dr. Monterey Park, CA 91754

### Norwalk

Norwalk Courthouse - 12720 Norwalk Blvd., Norwalk, CA 90650

### Pasadena

Pasadena Courthouse - 300 E. Walnut Ave., Pasadena, CA 91101

### San Fernando

San Fernando Courthouse - 900 Third St., S.F., CA 91340

### Santa Clarita

Santa Clarita Courthouse - 23747 W. Valencia Blvd., S.C.  
CA 91355

### Sylmar

Sylma Juvenile Courthouse - 16350 Filbert St., Sylmar, CA 91342

### Torrance

Torrance Courthouse - 825 maple Ave., Torrance, CA 90503

### Van Nuys

Van Nuys Courthouse East - 6230 Sylmar Ave., Van Nuys  
CA 91401  
Van Nuys Courthouse West - 14400 Erwin St. Mall, V.N.,  
CA 91401

### West Covina

West Covina Courthouse - 1427 West Covina Parkway  
W.C., CA 91790

## 한인 이민사회와 교회의 역할



백지영

이민 교회의 시초를 보면 1903년 하와이 사탕 농장의 노동 이민을 시초하여 초기 이민자들은 신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인교회를 세워 자녀를 예배당에 보내 기독교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또한 국어 한글학교를 설립하여 민족교육, 문화교육에도 비중을 두었습니다. 하와이 사탕 농장에서 출발한 이민자들의 일부는 미국 대륙으로 건너와 역시 오렌지 및 포도밭과 논에서 일하면서 공부하였고 이들은 강한 민족의식으로 곳곳에 있는 한인 교회를 중심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였습니다.

조국이 이웃나라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민족이 그들의 노예가 된 시대에 그들은 교회에 모여 독립운동을 줄기 차게 펼쳐 갔습니다.

1919년 3월 한반도 전역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으로 인해 세워진 중국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도왔던 이민교회의 활동은 특이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 제국의 호놀룰루항 공격으로 시작된 태평양 전쟁 중에는 하와이와 캘리포니아에 있는 몇 십개의 한인교회가 중심이 되어 전쟁에 나가 광복을 위하여 싸울 지원병을 모았으며 수도 워싱턴 D.C에 구미 위원부를 세워 독립 외교를 펼치는 일을 도왔습니다.

니다. 강한 민족적 의지로 말미암아 초기 한인 교회의 연합과 단결하여 이루어 낸 사회 참여와 봉사는 후세에 길이 전해질 귀감이 되었습니다.

### 현대 이민교회의 사회 참여

1965년 이민법이 개정되어 1782년 이래 유럽 백인 위주에서 비 유럽 비 백인 위주로 바뀌면서 한국인의 이민이 본격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이때까지는 전쟁신부와 입양아 그리고 유학생을 모두 합쳐서 1만 5천여 명이 들어와 제 1세의 이민자 까지 합하면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수는 약 3만명 정도로 추산 되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교인수는 약 40% 정도였다고 합니다. 1965년을 기준 삼아 한인 교회는 20개 정도 였으며 연합과 단결을 중심으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정든 한국땅을 떠나 미국에 와서 살아가는 많은 한인 이민자들은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며 “삶”을 영위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 이 땅에 한인 이민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고 살아가는 성도는 얼마나 될까요?

이제 이민교회 112주년을 살아가는 우리 재미동포들은 이 미국은 장차 한국이 세계 선교회 마지막 주자로 영적 부흥을 일으킬 때 한국을 도와 세계 선교회의 선봉장으로 함께 쓰임 받

을 나라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청교도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미국땅에 4100개의 교회를 세워 주셨고 한인 이민교회가 새벽을 깨우는 열정으로 미국을 살리는 파수꾼의 역할, 중보자와 이민교회 목자들이 해야 할 사명이라고 봅니다.

2015년 현재 남가주에는 1500개의 육박하는 한인교회가 있으며 한 해에 50~60개의 교회가 개척되고 있지만 이에 못지 않게 소멸되는 교회도 비슷합니다.

### 이민 사회의 미래의 꿈

이제 미국 이민 112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민 사회에서 성공한 자녀들을 보면 하와이 주 정부에서 주 하원의원, 상원의원, 대학교수, 의사, 판사, 검사로 주류 사회에서 당당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여러 각 주에서도 김창준 연방하원의원 신호범 주 상원의원, 임용근 주 상원의원 1세 이민자들의 헌신적인 기도와 희생의 눈물이 있었기에 American Dream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가주만 해도 1.5세대 2세들의 정치인들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며 한인들의 모범이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유대계 미국인들이 메인 스트림에 기여한 것은 닉슨, 존슨 등을 비롯한 수 많은 대통령의 연설문을 작성자가 유대인들이며 상원 전문 스텝의 1/3이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도 잘 알

고있는 키신저와 올 브라이트가 국무장관으로 미국에 기여했고 부통령 후보(조셉 리버만)을 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유대인을 배제하는 국방부에서도 코원 장관에게 미국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유대계 미국인들이 월 스트리트 금융 시장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3%밖에 안되는 유대인들은 신앙을 중심으로 응집된 강한 단결력과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도 대통령을 꿈꾸며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영역을 다스릴 인재를 양성하고 하고자 하는 꿈이 있다면 정말 힘을 모아 사람기르는 일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21세기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1963년 마틴 루터킹 목사가 흑인이 피부색이 아닌 정당하게 인격으로 대우 받는 꿈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40년정도가 지나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조국 대한 민국의 통일을 위해 광복 70주년과 6.25 한국 전쟁 65주년을 맞아 8.15 행사를 준비하는 제임스안 회장과 여러 단체장님, 그리고 한인회 관계자님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백지영 목사**  
남가주 한인 목사회 회장



# 미국속의 한국 문학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 LA 중심으로



김 문희

## 들어가면서

한국에서 볼 때 해외에 나가 살며 문학을 하는 일은 통칭하여 이민 문학이라 칭하기도 하지만 의견이 분분하고 아직 이렇다 할 개념 정립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라 하겠다. 또한 이민 문학은 디아스포라 문학(이산문학)의 한 갈래라고 볼 수 있다.

한인 이민자들은 미국을 비롯하여 중국, 구 소련, 일본 등의 세계 각 나라에 흩어져 있다. 한마디로 해외에 살고 있는 한국인의 문학이라 할 때 이민 가 있는 한국 작가들이 쓰는 작품만이 이민 문학인가, 아니면 한국에서도 미국이나 해외에 나가 사는 동포들을 소재로 쓴 작품이면 이민 문학인가. 또 한국인이 영어로 쓴 작품도 그 내용이 한국 민족을 대상으로 쓴 작품이 이민 문학이냐 하는 의문점이 나올 수 있다.

나는 현재 해외에 사는 한인이 모국어로 쓰는 작품에 국한하여 이민 문학이라고 정의 내리고 싶다.

한국어, 한국 민족, 한국 역사라는 전통적 가치관과 고유한 정서에 대한 작가적 인지와 그것을 계승 발전 시킬 수 있는 이념이나 이상이 무엇인가, 그들의 삶속에 있던 정서란 어떤 것이냐를 가늠해 볼때 작가적 탐색과 추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Korean American 으로서 한국적인 전통문화와 실용적 미국 문화와의 충돌과 수용 과정에서 새롭게 문학작품이 탄생한 것이다.

오늘은 LA 중심으로 미숙 속의 한국 문학의 흐름을 전개하기로 한다.

## 문학 단체들의 출범

미주 한인 사회에 문학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은 1982년 9월 2일, LA에서 '미주 한국 문인협회'가 송상옥, 김호길, 전달문 등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그해 12월에 협회지 [미주문학]이 창간되었다. 현재까지 30여년 동안 한 회도 거름없이 발간되고 있다. 1983년 11월 7일에는 [미주 크리스찬 문인협회]가 강일, 김문희, 정지윤 등이 중심이 되어 LA의 용궁 식당에서 창립되면서 [크리스찬 문예] 창간호를 내고 그 이후에 [크리스찬 문학]으로 제호가 바뀌면서 현재 26집을 내고 있다.

1987년 9월에 전달문, 송순태, 김문희 등이 주축이 되어 [재미시인 협회]를 창립하여 회원 문집 [외지]를 년간집으로 꾸준히 발간하고 있다.

LA의 문학 단체들이 문집 발간 외에 괄목할 만한 행사 등을 간추린다면 미주 문협에서는

26회가 넘는 [토요문학의 밤]을 이끌어 문학의 활성화를 꾀하였고, 재미 시인 협회는 1987년에 각 예술 단체의 협찬 속에서 [재미시인 축제]를 가져 성황을 이루었다. 또한 미주 기독교 문협 (이후 미주 크리스천 문협으로 명칭 변경)에서는 종합 문예지 해외문학 [울림]과 함께 해변 문학 세미나를 개최하여 벤츄라 해변에서 미 전역의 문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화합의 자리를 마련했다. 지금은 명칭도 [해변문학제]로 바뀌어서 국제 PEN 미서부지역 위원회 (회장 김영중)가 맡아서 27회째 샌패드로 바닷가에서 문학의 열기를 불태우고 있다. 이외에도 1999년 9월 <세계 한민족 작가 연합> <재미 수필 문학가 협회> <미주 아동 문학가 협회> <기독교 문인 협회> <재미 소설가 협회> 등 장르별로 문인 단체가 세분화 되고 다양화 되면서 활발하게 문학 활동을 해 오고 있다.

이러한 단체가 결성됨과 동시에 동호인 그룹이나 동인 같은 작은 모임도 어깨를 나란히 활기를 띠고 있다.

시사랑모임으로 출발한 미주시문학회, 오렌지 글사랑 모임, 미주 카톨릭 문우회, 시와 시인 등 여러 동아리들이 결성되어 작품집 출간을 지속하고 있다.

2001년에는 한국에 본부를 둔 국제 PEN 미서부 지역 위원회와 한국문인협회 미주지회도 제각각 문집을 발간하며 다양한 문학 행사를 하고 있다.

1987년 7월 해외에서의 민족 문학의 성장에 기여할 목적으로 해외문예지 [울림] (발행인 김문희) 창간되었고 그 이후에 종합 문예지 [문학세계] (발행인 고원)가 “해외에 살고 있는 한국계 문인들의 창작활동을 자극하고 그 결실을 모으려는 뜻”이라고 밝힌 문학지에 이어 조윤호 시인이 발행한 [해외문학], 배정웅 시인이 출간한 [미주시인]이 그 대를 잇고 있다.

## 내일을 위한 미국속의 한국문학

미국 속의 한국 문학의 주제는 한마디로 이민자들의 애환이 그 주를 이룬다 하겠다. 이민 초기에는 고향에 대한 향수와 타향살이의 설움, 또 새로운 삶의 고통이 그려져 있다는 점에 대해 다소 비관적인 시선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다시 말해 시든 소설이든 수필이든 대부분이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전부이기 때문에 진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미주에 거주하고 있는 문인들이 상상력에 의한 말장난으로 절실한 아픔없이 흉내 내기나 과장된 신음을 하여 이민 문학에 오히려 해를 입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봐야 할 것 같다.

미주내 문인들 스스로가 이러한 점들을 비판하고 반성해 나갈 때 보다 절실한 문학이 창출되리라 생각한다.

남의 땅에 와서 뿌리를 내리려는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 의식주 해결이 급선무인 것이다.

이런 이민사를 생각해 볼 때 미주 지역의 문학사는 크게 나누어 1945년 광복 이전과 그 이후로 시기와 성격을 나눌 수 있다. 전반기가 세계소수 민족문학에 나타난 보편성으로서의 민족의식의 고취와 각성의 문학이라면, 후반기는 민족의식과 현지에서의 삶의 갈등기로 볼 수 있다. 미주의 한국 문학이 향수달래기 차원의 지평이 머문 것이 아니라 떠나온 자의 향수와 인간 실존의 문제가 공존하는 21세기 문학사조의 한 흐름을 반영했다는 사실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끝으로 미주 한인 문학은 고국의 문단과 직접적인 협조와 관련 없이도 자생하고, 세계적인

문학으로 능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과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 따라서 미주의 한인 작가들은 미문화 사회 속에 사는 전 인류적인 세계인으로서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동시에 가장 한국적인 민족 정체성을 작품 속에서 천착, 형상화 하는 작가들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 미주 한인 작가들에게 남겨진 과제는 한국적인 것을 발굴하고 소재로 삼아 가장 세계적인 문학 작품으로 창작하는 작가적 기량과 안목을 높이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최상의 작품을 위해 정진해야 함이 귀중한 과제이다.

### 김문희(金文姬)

1986년 한국 수필로 수필가로 등단  
1987년 시문학으로 시인으로 등단  
재미시인협회 / 미주 크리스찬 문협 회장,  
이사장 역임  
국제 PEN 미 서부지역 위원회 회장 역임  
현 작가의집, 아트홀 이사장

#### 〈수상〉

영랑문학상 / 해외 소월문학상  
시문학상 / 한글 문학상 / 미주 펜 문학상 등

#### 〈저서〉

시집 8권, 수필집 4권

## 로스앤젤레스 한인 동포사회 언론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타국에서 광복절을 맞는 해외 한인들은 감회가 더 새로우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말과 글을 빼앗기고 살았던 일제 치하 36년. 광복을 맞고, 그 세월의 딱 곱절이 되는 해가 지났습니다. 지금은 캘리포니아 태양 아래에서 한국어 방송이 24시간 전파를 타고 흐르고, 한국어 노랫말의 멋진 한국 노래를 라디오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한국 TV, 한국 신문, 그리고 한국 라디오 방송. 수많은 미디어들은 이곳이 미국임을 잠시 잊을 만큼 미주 한인들 삶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말과 글로 된 방송과 신문은 미주 한인들의 눈과 귀가 되어 주며 넓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1989년 개국, 한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미디어로 굳건히 자리매김한 라디오코리아는 개국 이래 언제나 한인 동포들과 호흡해왔습니다. 한인들과 가장 밀착되어있는 매체였던 만큼 한인 동포 사회의 어제와 오늘을 가장 잘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여러 차례의 큰 고난들을 우리는 잘 이겨내었습니다. 지난 1992년 4.29 폭동 때에도 모든 한인이 하나로 똘똘 뭉쳐 이겨냈고, 1994년 벌어진 놀스리지 대지진도 슬기롭게 잘 극복했습니다.

광복 70년을 맞은 현재, 한인들은 미국 내 각계 각층에서 눈부신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

히 한인 정치인들의 약진이 돋보입니다. 올해는 역사상 한인 시의원도 탄생했고, OC 수퍼바이저, 가주 하원의원, 시장 등 한인들의 정치적 활동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은, 한인 이민자들의 권익 보호는 물론 고국의 정치 사회적 이슈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 1세대, 2세대들이 밤낮 없이 일하며 황무지건 모래밭이건, 일단은 땅을 확보해놓는데 힘을 썼다면, 이제 현재를 살아가는 젊은 한인들은 그 땅을 더 기름진 땅으로 만드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권을 비롯 더욱 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한인들이 늘어야 할 것이며, 한인 커뮤니티가 더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라디오코리아도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대지진이 일어난 네팔에 성금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세계 곳곳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을 때마다 한인 대표 언론으로서 앞장 서서 도움의 손길을 보냈습니다.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그리고 고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 작은 일이라도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실천하고 산다면, 그것이 결국 미주 한인들의 권익 보호로 이어질 것입니다. 인구 센서스에 적극 동참하고, 미국 선거 투표권을 행사하고,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심



을 갖고 참여를 한다면 ‘대한민국’의 이름 ‘한인’들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미국 내 한인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게 되면, 위안부 문제나 독도 문제 등 고국의 정치적 이슈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해외 한인들의 특징 중 하나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모국과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학연, 혈연, 지연 등에 자신

의 뿌리에 애착을 갖는 한국인들의 특성이 고국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이어진 것일 것입니다.

본인의 뿌리를 잊지 않고 사는 한인들의 특징. 자신의 가족과 민족, 집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의 특성은 앞으로도 한인 커뮤니티를 탄탄하게 유지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 동포사회의 어제는 참으로 숨가빴으며, 한인 동포 사회의 오늘은 힘차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민족보다 부지런하고 끈기 있으며 명석한 두뇌까지 갖춘 한인들이 열어갈 미래. 그 내일은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한국 땅을 떠나 살고 있지만, 고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뜨거운 재미 한인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한인 커뮤니티의 더 큰 미래를 함께 열어가길 희망합니다.

**라디오코리아 제공**

## 한인타운의 어르신들의 삶



정문섭

어르신은 존경 받는 삶을 가진 분들을 말하고, 노인은 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노인들은 외롭고 쓸쓸합니다. 뉴욕을 가도 한국의 서울을 가도, 노인들의 생활은 매우 외로운 것입니다. 로스엔젤레스에 사시는 노인들도 예외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 이곳에 와서 문화와 언어의 장벽은 물론 인종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하지만 한인 타운에 사시는 분들은 한국어만 가지고도 생활에 지장이 많지는 않습니다.

교통 수단도 한국어를 사용하는 택시를 이용하며 마켓과 많은 곳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도 한국인 의사들의 진료는 물론 한인 타운을 중심으로 대형 병원들의 한국어 서비스와 병원 음식도 한국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로 병원의 데이 케어 서비스는 홀로 사시는 노인들을 교통 편의를 통하여 아침부터 오후까지 돌보아 드리며 점심과 운동, 의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인 라디오와 TV를 통하여 본국의 소식도 들으며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해외에 나 오면 다 애국자가 된다고 합니다. 문화 생활에 좋은 도움이 되며 외로움을 달래는 지름길도 됩니다. 범규나 문화의 지장으로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은 가기 힘들지만 주위

의 많은 한국어 봉사 단체가 있으며 한인 교회가 여러 곳에 있어서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경로 대학이 개설되어 성경 공부는 물론 여러 가지의 봉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단체 여행과 의료 서비스 레크레이션 등은 물론 배움의 길로 인도하며 외로움을 덜하게 합니다.

근래에는 한인 타운의 올림픽과 놀만디에 지역 사회 봉사 센터가 시의 지원을 받아 새로 건축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많은 프로그램이 노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백명의 어르신들이 컴퓨터, 그림 그리기, 영어 회화, 라인 댄스와 노래 교실 등 많은 과정에 등록하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 전화기 사용 강의에 수백명의 많은 분이 오셔서 청강했으며 반응도 매우 좋았습니다.

또한 노인들은 정신 건강에 관심을 갖습니다. 우울증과 노인 학대 문제에 법적인 자문을 합니다. 독감 계절에는 예방 접종 주사와 성인 병에 대하여 무료 진찰과 상담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여러 좋은 혜택을 이용하는 것이 노인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시는 분

들 중 소수의 분들은 외로움에 견디기 어려워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타운 내에 아침이면 모여서 지정된 버스를 타고 카지노에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돈을 노름에 다 쓰고 생활비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입니다. 근래에는 교포들

그리고 많은 재산을 봉사 기관에 기부하는 문화도 매우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한인 타운은 공동체이기에 타민족과도 화합, 협력하며 내일의 정치 경제를 창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후진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미국에 정착한 노인들에게 의



의 협력으로 이러한 버스를 타운 내에 못 들어 오게 해야 한다는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들에게서 노인들이 학대를 받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날에 찾아 와서 도움을 달라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은 매우 극소수이지만 효를 사랑하는 한인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금년에는 노인들이 대거 선거에 참여하여 한국인 시의원을 역사상 미국에서 처음으로 큰 도시에서 배출했습니다. 매우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한인 노인들의 조건 없는 기부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면학할 수 있는 장학금을 만들어 주는 분들도 많습니다.

미가 큼니다. 이러한 일에 어르신들이 자랑과 기쁨을 가지는 한인 타운입니다.

박사 정문섭  
LA Christian Mutual Assistance  
Foundation 회장

## 로스앤젤레스한인회, 어제 그리고 미래로



민병용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단체, 한인회를 만들자는 첫 움직임은 1960년 봄 한국의 4.19학생의거 후 한인사회에서 구체화 되기 시작했다. 반세기 전이다.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새 민주정부가 들어섰다. 남가주에서 독립운동에 앞장을 서온 대한인국민회와 동지회가 더이상 반목, 갈등, 질시가 아닌 화목, 단결,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는데 생각이 모아졌다. 초기 이민 원로와 한국 유학생 그룹이 미래를 향한 새길을 찾자는 변화된 생각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김호씨는 국민회 대표였고, 송철씨가 동지회 대표였다. 4.19후 김호씨와 송철씨는 두 단체가 합하여야 새 한인사회 그리고 조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처음으로 한자리에서 만났다.

김호씨는 1960년 5월1일 한인사회 모두가 참가하는 첫 민중대회를 대한인국민회 주최로 열었다. 동지회에서도 참석했다. 이날 집회의 뜻은 3.15 마산사건 희생자를 위한 추모와 모금을 해서 한국의 유가족에게 보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미주 한인사회가 대동단결해서 미래로 나가기 위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244명의 한인사회 인사가 참석을 하는 등 대성황을 이루었다. 11명의 각계 대표는 “한인사회 미래를 위해서 재미한인들이 대동단결해서 일을 할 때가 왔다. 과거의 단체들은 해산을 하고 정치적 색채를 떠난 거류민단을 만들자. 한인회를 만들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회를 위해 일해 나가도록 하자”

는 발언을 했다.

1960년 10월 30일에는 대한인국민회 총회관에서 각계 대표들이 모임을 갖고 한인회의 설립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처음 실시했다. 106명 참가자중 76명이 새 시대에 맞는 한인회를 만들자. 국민회가 계속 대표단체의 일을 맡아야 한다가 12명, 그리고 동지회가 한인사회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가 2명으로 나타났다. 한인사회 원로와 유학생들은 새로운 사회, 새로운 단체를 만들기 위해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1962년 5월 한인 커뮤니티 센터를 역사적으로 발족했다. 한인사회가 대동단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만남의 장소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건물을 먼저 구입한 것이다. 1962년 3월15일 한인 커뮤니티 센터는 발기인 총회를 가졌고, 회장은 독립운동가인 김호씨가 맡았다.

한인 커뮤니티 센터는 1963년 4월5일 7만달러로 크렌셔와 제퍼슨 근처 버논가(2525 W. Vernon Ave. Los Angeles, CA 90008)의 2층 유태인 회당을 구입하고 개관식을 성대하게 가졌다. 하지만 한인센터는 건물을 구입한 후 회의 및 주요 행사 장소로는 빛을 보았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을 풀지 못했다.

이때 유학생 그룹으로 한인센터에 참여하고 있던 젊은 이사들이 “한인회를 새로 만들어서 한인센터의 어려운 재정을 지원하자”는데 뜻을 모아 갔다.

젊은 유학생 그룹은 1964년 6월 남가주지역에



서 한인회 창립을 위한 첫 발기인 모임을 갖고, 조용삼 박사를 준비위원장에 선출을 했다. 총무는 이경동씨가 맡았다. 남가주한인회 설립에는 애국지사, 유학생, 젊은 사업가, 대학교수, 새 이민자, 교포 단체장, 초기이민 2세들이 참여했다. 1년후인 1965년 3월14일 역사적인 발기대회가 각계인사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려정에서 열렸다. 창립목적은 첫째는 한인센터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다음은 새 시대에 맡은 봉사를 해나가자는 것으로 정했다.

한인회 설립위원장 조용삼 박사는 이에 앞서 1965년 3월19일부터 모두 4차례 걸쳐서 신한민보에 「제2의 목적을 이루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고를 했다.

“앞으로 우리는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강력하고 책임성있는 한인회를 가짐으로서 우리민족 복리와 번영을 이룰 수 있다. 미주 한인의 목적이 조국 해방과 자유의 추구가 제1목적이었다면, 1960년 4.19후의 제2의 목적은 한인회를 통해서 타민족과 비교해서 부끄럽지 않은 우리

남가주한인회 창립대회는 1965년 5월8일 한인센터에서 열렸다.

안광수 LA총영사, 김호 한인센터 회장, 초기



남가주한인회로 명칭을 바꾸고  
새 간판 앞에 선 회장과 이사들

한인사회 단체장, 독립운동가, 유학생, 대학교수 등 2백여 한인들이 참석을 했다. 남가주한인회 초대회장은 조용삼 박사, 부회장은 김하태 박사, 김창하 박사, 그리고 20명의 창립이사를 선출했다. 참석 인사들은 “새로운 한인사회에 한인회가 꼭 있어야 한다. 뭉쳐서 화목하게 지내야하며, 젊은이들이 앞장서서 한인사회



1965년 남가주한인회 회장과 이사들

한인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모든 단체와 한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한인회를 만들고 자랑스런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자 “

를 리드해 나가기 바란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1965년 남가주한인회 창립에는 한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는 큰 뜻이 담겨 있었다.

1962년에 창립한 한인센터와 1965년에 창립한 남가주한인회는 3년후인 1968년 1월14일, 남가주한인거류민회라는 이름으로 두 단체의 통합을 이루어 냈다. 통합회장은 남가주한인회 초대회장을 역임한 조용삼 박사(칼스테이트 LA 경제학 교수)가 맡았다. 두단체의 통합에 일부 인사는 반대의견을 냈으나, 한인센터와 한인회의 창립 목적이 같기 때문에 통합을 하는 것이 좋다고 양보를 하게 되었다. 남가주한인거류민회는 1972년 조지 최 회장 때에는 남가주

웨스턴과 올림픽가의 4층 건물을 35만달러에 구입했다.

오늘의 한인회관은 역대 한인회장들이 큰 꿈을 가지고 세운 100만 한인의 집이다. 한인사회의 중심단체인 한인회가 만남과 회의를 할 수 있는 자체건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믿었고, 한인회장 선거 때마다 후보들은 공약으로 한인회관 마련을 내세웠다. 소니아 석 한인회관 건립위원장과 양희직 한인회장이 힘을



1975년 11월 한인회관 개관식에서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한인회로 다시 명칭을 바꾸었고, 1973년에는 비영리단체 등록을 모두 마쳤다.

1970년 후반부터 한인사회는 급성장을 해나갔다. 올림픽가에 코리아타운이 만들어졌고, 해마다 한국의 추석에 맞추어 개최한 코리아 퍼레이드 를 통해 한인사회의 이미지를 높여 갔다. 하지만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는 친정부와 반정부의 갈등이 심해졌고, 한인회장 선거도 한국정치의 입김을 크게 받았다. 무엇보다도 1972년 한인회는 올림픽가에 처음으로 자체 사무실을 오픈했다. 그리고 한인회관 건립 위원회를 발족하고 모금 및 건물 구입에 나섰다. 박정희 대통령과 한국정부 지원과 한인센터 기금, 한인사회 모금으로 1975년 11월22일

모았고, 드디어 회관 건립의 꿈을 이루어 낸 것이다.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남가주한인회는 회장 선거로 4차례나 소송사태에 휘말렸다. 1990년대 LA한인회는 다시 안정과 성장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뉴 밀레니엄 시대를 여는 2000년, LA한인회는 번영과 자랑 그리고 화합의 멧시지로 출발을 했다. 한인사회의 대표단체인 LA한인회는 새 시대에 맞는 참신한 봉사자를 뽑자는 여론이 조성되었다. 과거에서 미래로 나가는 한인회를 다짐했고, 처음으로 1.5세 한인회장을 뽑는 등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이했다.

LA한인회의 정신적 뿌리는 대한인국민회이다. 한인회 역사는 1909년 2월1일 창립된 국민회로 부터 대표성을 이어받았다. 독립정신이 오늘 한인회를 통해 계승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LA한인회와 대한인국민회는 한인사회의 대표 단체 중의 대표 단체이다. 옛 국민회와 새 한인회는 창립 목적, 조직과 대표성 그리고 회원 제도가 같다. LA한인회는 임시정부의 역할을 맡아온 대한인국민회의 범통성을 물려 받았고, 오늘은 새롭게 변하는 한인사회와 함께 중심단체로서의 사명을 다해가고 있다.

한인회는 1960년대는 친목과 단결을, 1970년대는 봉사와 이민 안내를, 그리고 1980년대 및 1990년대는 성숙한 한인사회가 되기 위한 사

업을 펴나왔다. 2000년 이후에는 단체중의 단체, 대표단체로서 주류사회 진출 지원, 한국과 협력 및 교류 그리고 수많은 한인사회 단체를 위한 소통과 연합사업의 길을 걸어오고 있다.

2014년 7월1일 취임한 제임스 안 LA한인회장은 광복70주년을 맞은 2015년, 40여 한인단체와 연합으로 15개의 광복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등 한인사회 1세와 2세를 어우르면서 미래로 향한 꿈을 이루어 가고 있다.

**민병용**  
한인역사박물관 관장



100만 한인의 집인 한인회관 개관식



## 한류 스포츠



문상열

한국에 거주하는 분들은 가끔씩 로스앤젤레스의 한인타운을 방문하면 많이 놀란다. 널리 알려진 코리안타운이 '이정도 밖에 안되나'라는 실망감 때문이다. 한국은 하루가 다르게 고층건물이 들어선다. 여기저기 빼죽빼죽 고개를 내미는 서울의 고층건물을 보면 개발도상국을 방불케한다. LA의 한인타운은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높은 건물이 별로 없다는 게 특징이다. 또 하나 입간판이 화려하지 않다는 점이다. 시골의 읍 면을 연상케 한다. 변하지 않는 LA다.

그러나 세상이 급속도로 바뀌면서 한인 사회의 풍속도는 변했다. 미국에서의 국내 정보 취득은 일일생활권이나 다름없어졌다. 예전에는 시간대를 정해서 한국방송이 송출됐다. 요즘은 24시간 실시간대 시청이 가능하다. YTN을 비롯해 한국의 KBS, MBC, SBS 지상파 방송을 늘 접할 수 있다. 한 때 최고의 비즈니스였던 비디오대여 업체는 이미 옛날의 향수를 느끼게 하는 사양 업종이 된지 꽤 오래다. 소수의 노년층을 제외하고 다운로드로 국내의 전 방송을 받아보는 시대가 됐다. 한류의 파급력을 이곳 LA에서도 실감하는 세상이다. 한국인들의 위상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한류는 스포츠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미국은 스포츠 천국이다. 스포츠가 하나의 일상 생활이며 문화다. 미국에서의 최고 접대는 스포츠 이벤트에 초대받는 일이다. 한인 동포들

에게 스포츠를 통해 일체감을 심어준 선수는 누가 뭐래도 박찬호(42)다. 2015년 현재 텍사스 레인저스 추신수, LA 다저스 류현진(어깨 부상),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강정호가 야구 최고봉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할 수 있는 원천은 박찬호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스포츠의 슈퍼스타 한 명의 활약은 오늘도 한국을 알리기에 바쁜 수 십명의 외교관들의 역할보다 파괴력이 큰 게 사실이다.

'코리안 특급'으로 통했던 박찬호는 그를 밀착 취재한 기자 입장에서 하늘이 내려준 행운이다. LA 다저스 입단과정, 아시안게임을 통한 군면제등은 행운이었다. 물론 스포츠에서 운은 실력을 닦았을 때 찾아온다. 운도 실력이라고 하는 이유다. 올해 가세한 강정호를 제외하고 박찬호, 추신수, 류현진의 공통점은 슈퍼 에이전트로 통하는 스콧 보라스가 대박 계약을 성사시켰다.

박찬호는 1990년대 당시로서는 실현이 어려웠던 미국행을 시도해 최초의 코리안 메이저리거가 됐다. 훗날 박찬호의 기록이 경신될 가능성도 있지만 2010년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유니폼을 입고 현역에서 물러날 때 통산 124승(98패)을 작성하고 아시안 역대 최다승을 남겼다. 박찬호를 행운아로 보는 까닭은 뛰어난 구위를 자랑했던 선배들인 최동원(작고), 선동열(전 기아 타이거즈 감독)등도 미국행을 시도했다가 좌절됐기 때문이다. 주변 여건이 성



숙되지 않아 불발됐다.

박찬호를 메이저리그 무대에 올려 놓은 숨은 주역들은 많다. 그러나 그에게 최대 관심을 표명했던 LA 다저스 전 구단주 피터 오말리와 민박으로 연을 맺은 전 에이전트 스티브 김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오말리 전 구단주와는 지금도 각별하게 지내고 있다. 박찬호는 병역의무를 마치지도 않은 상황에서 미국 땅을 밟았다. 최동원의 미국행 불발은 병역의무가 최대 걸림돌이었다. 자신의 집에서 머물게했다가 훗날 에이전트가 된 스티브 김이 없었다면 박찬호의 미국행은 애초부터 가능성이 없었던 시도다. 1991년 LA에서 벌어진 고교야구대회에 참가해 스티브 김의 집에 머문 게 인생 행로를 바꿔 놓았다. 이후 호형호제하는 사이가 됐다. 메이저리그 강속구



투수의 대명사 논란 라이언을 이상처럼 여겼던 박찬호는 한국으로 돌아간 뒤 서신을 교환하며 미국행을 꿈꿨다. 꿈은 실현됐다.

박찬호는 1994년 1월13일 코리아타운내 옥스포드 호텔에서 입단식을 가졌다. 오말리 구단주가 박찬호에게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를 짐작케하는 대목이다. 다저스 구장도, 다운타운의 호텔도 아닌 코리아타운 한인 호텔에서 입단식을 했다는 자체가 이를 웅변해준다. 코리언 박찬호에 이어 일본 프로야구 대투수 노모히데오를 영입한 오말리 구단주는 ‘앰버서더 오브 베이스볼’로 통한 인물이다. 한양대학교 2학년을 중퇴한 21살의 어린 박찬호는 다저스의 레전더리 토미 라소다 전 감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입단식을 갖고 메이저리거로서의 단계를 밟기 시작했다. 박찬호가 1994년 입단

후 단 2년의 마이너리그 생활을 거치고 빅리그에 승격된 것도 오말리 구단주의 각별한 관심 때문이었다.

박찬호의 메이저리그 성공신화는 이어 김병현(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서재응(뉴욕 메츠), 김선우(보스턴 레드삭스), 최희섭(시카고 커브스)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모두가 박찬호는 될 수가 없었다. 애리조나에서 월드시리즈 반지를 끼었던 마무리 김병현도 선발투수를 고집하다가 룡런을 하는데 실패했다. 야수로서 가능성을 보였던 최희섭은 다저스 유니

폼을 입고 한 경기 3홈런이라는 대기록도 만들었으나 몸쪽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국내로 돌아왔다.

박찬호 이후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한 선수가 외야수 추신수(33)다.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한 추신수는 애초에 투수로 시애틀 매리너스에 입단했다. 그러나 외야수로 전향하면서 마이너리그 생활을 거친 뒤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로 트레이드돼 야구인생의 꽃을 피웠다. 클리블랜드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추신수는 2013년 내셔널리그 신시내티 레즈로 옮겨 생애 최고의 시즌을 보내면서 FA 대박을 터뜨렸다. 박찬호가 2001년 12월 텍사스와 5년 6500만달러 계약을 맺었을 당시 국내 야구계 주변에서는 앞으로 누구도 이 계약을 깰 수 없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11년 후 추신수는 텍사스와 7년 1억3천만달러 계약으로 상한가를 쳤다.

28세의 동갑내기 류현진과 강정호는 KBO 리그 출신으로 포스팅을 거친 최초의 투수와 야수다. LA 다저스는 2012년 11월 류현진의 전

소속팀 한화 이글스에 25,737,737달러를 주고 6년 연봉 3600만달러에 영입했다. 첫 해 14승 8패 평균자책점 3.00을 기록하며 국내 최고 투수는 메이저리그에서도 통한다는 진리를 일깨워줬다. 이어 지난해 14승 7패 3.38을 작성하며 2년 연속 14승으로 주가를 높였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디비전시리즈 호투로 큰 경기에서도 강한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2015년 시즌 200이닝 투구를 목표로 했던 류현진은 왼쪽 어깨 수술로 단 한경기에도 등판하지 못하고 내년시즌을 기약하고 있다. 재정이 취약한 KBO 리그의 넥센 히어로스는 강정호가 FA가 되기 전에 포스팅으로 돈을 챙길 심산에 메이저리그행을 열어줬다. 피츠버그는 500만2015달러에 포스팅 금액을 넥센에 주고 강정호와 4년 1100만달러 계약을 맺었다. 강정호의 눈부신 활약으로 그를 붙잡은 피츠버그 닐 헌팅턴 단장은 Bargain Deal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찬호가 마운드에서 한인들에게 기쁨을 선사했다면 필드에서는 PGA 투어 최경주와 LPGA 박세리가 코리아의 위상을 드높였다. 이들 3명의 공통점은 활동시기가 비슷했고 최초의 선수라는 점이다. 이곳에서 K J 초이로 통하는 최경주는 1999년 Q스쿨을 거쳐 2000년 한국인 최초의 PGA 투어 플레이어가 됐다. 데뷔 첫 해 상급 랭킹 125위에 랭크되지 못해 또 다시 지옥의 관문으로 통하는 켈리파이 스쿨 문을 두드렸다. 2년 연속 Q스쿨이었다. 이후 최경주는 제5의 메이저 대회로 통하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우승 등 PGA 투어 통산 8승을 거두며 한국의 전설이 됐다. 최경주는 오는 10월 인천 송도에서 벌어지는 미국-인터내셔널팀의 프레지덴츠컵 코-캡틴으로 선임됐다. 최경주에게 아쉬움이 남는 것은 한국인 최초의 메이저 우승이 미완으로 넘어간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후배 양용은이 달성하면서 코리

아의 골프강국 면모를 다시 한번 과시했다. 제주도 출신 양용은은 2006년 유럽피언투어의 일환인 HSBC 챔피언십에서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를 2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차지했다. 우즈의 첫 최종라운드 역전패였다. 이어 2009년 미네소타 해즐타인 내셔널골프클럽에서 벌어진 PGA 챔피언십에서 양용은은 또 다시 타이거를 3타 차로 누르며 완벽한 호랑이 사냥을 했다. 아시안으로는 최초의 메이저 우승이었다.

박세리는 LPGA 투어 통산 25승을 거둔 전설이다. 후배들이 박세리의 25승을 뛰어 넘기에는 그녀가 이룬 업적이 너무 크다. 현역 선수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몇 안되는 선수다. 25승 가운데 메이저 우승만 5승이다. 아쉽게도 시즌 처음 열리는 ANA 인스피레이션(종전 크래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달성하지 못해 커리어 그랜드슬램은 이루지 못하고 있다. 현재 37세인 점을 감안하면 생애 그랜드슬램은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박세리가 달성하지 못한 쾌거를 '박세리 키드'로 통하는 박인비가 지난 2일 리코 위먼스 브리티시오픈 우승으로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완성했다. 2013년 크래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 위먼스 PGA 챔피언십, US 위먼스 오픈 등 메이저 3연속 우승으로 한 캘린더 이어에 그랜드슬램 달성을 눈앞에 뒀던 박인비는 결국 2년 앞에 LPGA 투어 사상 통산 7번째 그랜드슬램 작성자로 우뚝 섰다. LPGA 투어에서 한국 남자군의 강세는 골프 한류로 이어지고 있다. 스포츠의 장한 코리아들이다.

문상열  
라디오서울 스포츠  
해설위원

# 미주 한인의 정치력 결집과 신장을 위한 제언

미주 한인 정치력 결집에 대해 다루기 위해서는 다른 커뮤니티, 특히 일본, 중국, 인도, 유대인 커뮤니티와의 비교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김창준

## 1. 일본인 커뮤니티의 정치력 결집

일본의 이민 1세대들은 1960년대 최고의 성장을 이루었으나 일본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거의 다 본국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남아있는 1세대들은 주로 새크라멘토 벨리 근교에서 쌀농사를 지으며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다. 그 결과 많은 일본 2세대들이 정치적으로 가장 성공한 선망의 그룹이 되었다. 하와이의 Daniel Inouye 연방 상원의원, 새크라멘토 출신의 Bob Matsui 연방하원의원, 산호세의 Norman Mineta 연방하원의원이 대표적인 예다. 이들은 모두 민주당이다.

미국 내 일본인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했는데 1942년 일본군의 하와이 기습 직후 루즈벨트 대통령의 특명으로 소위 Internment Camps에 수용됐다. 이는 마치 포로수용소 같은 곳인데 주로 서부지역 몇 군데에 설치해 수용했다. 이들이 일본과 내통할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는 분명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었다. 수용소에 가지 않기 위해 우리 한인 교포들은 문 앞에 우리는 일본인이 아니고 한국인이라고 크게 써 붙여야 했었다. 그 당시만 해도 동양인을 차별하는 이민법 때문에 한국인은 극소수였다.

당시 일본인들의 재산은 몰수당했고 수용소에 부모를 따라 들어가 격리생활을 했던 쓰라린 경험을 기억하는 이민 2세대들은 자라면서 인종차별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갖게 되었다. 자연히 백인 정당인 공화당을 등지고 거의 전부가 민

주당에 가입했다.

주로 일본 2세대들은 Japanese American Citizens League를 구성하고 일치단결해 그 정치적 힘이 막강해졌다. 이들은 내가 당선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를 찾아와 어찌 동양인인 내가 공화당을 택했냐며 강하게 항의했던 기억이 난다.

지금 미네타의 뒤를 이은 혼다 의원도 수용소 세대로 인종차별을 혐오하기 때문에 한국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부모의 모국인 일본을 비난하는 것이지 이를 친한파라고 단정짓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 2. 중국인 커뮤니티의 정치적 결집

일본 이민 1세대들이 거의 다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차차 중국 이민 1세대들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Hacienda Heights로 중국의 부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주위 백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중국식 사찰도 이곳에 지었는데, 이는 중국 교포들의 강해진 영향력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하지만 이곳은 주로 대만계통이 많았다. 홍콩 출신 중국인들은 주로 샌프란시스코 지역, 남가주에는 주로 대만 출신으로 이들은 만다린어를 쓰기 때문에 칸토니즈를 쓰는 홍콩 중국인과는 통역관이 있어야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그 당시 이들은 대만이 독립하느냐 아니



면 중국에 종속하느냐로 갈라져 자기들끼리 칼부림을 벌인 적도 있다. 하지만 미국이 One China Policy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대만 독립운동은 사라졌고 중국 본토의 경제력까지 합쳐져 일본 1세대들이 빠진 틈을 타 미국 내 중국인들의 정치력은 급속도로 성장했다.

그 사이에 내가 등장했던 것이다. 한동안 중국계들이 나를 여기저기에서 초청해나를 통해 자기네들의 정치적 힘을 키우려 했다. 당선 되어서 선서도 하기 전에 중국 주석의 초청을 받아 중국 교포들과 함께 베이징에 간 적이 있었고, 그곳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았었다. 마침 모든 시선이 당시 LA 카운티 수퍼바이저였던 Matt Fong의 연방 상원의원 출마에 집중되면서 한국인인 나의 인기는 떨어지기 시작했다. 중국인들의 엄청난 모금운동에도 그는 애석하게 낙선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중국인들의 정치참여 의욕이 상승하면서 오늘 날에는 연방 하원에 3명, Grace Meng (NY), Ted Lieu (Ca), Judy Chu (Ca) 이 당선되었고, 앞으로 일본계를 앞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모두가 민주당이다. 중국인들의 정치적 성공은 그들이 밀집해 살면서 중국 타운을 형성해 그 지역구 안에서 모금과 득표가 모두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다른 인종이 넘겨볼 수 없도록 탄탄한 중국인들만의 지역구를 형성해 놓았다. 오랫동안 인종차별로 핍박 받아온 이들 1세대와 2세들의 단결력은 대단하다. 1세는 돈과 투표로, 2세대는 이들을 업고 정치에 앞장서는 형식이다.

### 3. 인도인 커뮤니티의 정치적 결집

Bobby Jindal 연방하원의원은 2003년 루이지애나 주에서 당선되었고, 나이도 이제 겨우 44살이다. 이후 2007년에 루이지애나 주의 주지사로 당선되었다. 그는 공화당 소속이다. 그는 미국 루이지애나에서 태어난 인도계 이민 2세로서 지금은 미국 정계에서 뜨는 별이다. 그

는 부인이 인도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만나 결혼했는데, 미국 내 모든 인도인들의 자랑스러운 중심 인물이 되었다.

인도는 영어를 국어로 채택한 후 급속도로 발전했고, 인도인들은 미국에 와서도 전혀 언어 장벽이 없어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이민사회 중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다. 예전에는 일본, 중국, 한국의 순서였지만 지금은 단연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미국 안에서 가장 성공한 이민자 그룹이다. 지금은 연방정부의 많은 고위직을 장악하고 있고 앞으로 5년 안에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인구로 발돋움하면서 세계가 중국에서 인도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 추세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인도인들의 미국에서의 정치적 결집은 강해졌다.

Jindal 주지사 때문인지 중국인들과 일본인들이 압도적으로 민주당인 것과 달리 인도인들은 공화당을 지지한다. 이는 인도인들의 미국 이민 역사가 짧아서 인종차별에 대한 원한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앞으로의 미국에서의 정치적 영향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그 이유는 중국인들과는 달리 뿔뿔 뭉쳐서 사는 인도타운도 없고 또 집단적인 단결력도 약해 주로 개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 4. 유대인들의 정치적 결집

오늘날 이스라엘의 정치경제 발전에 미국 내 유대인들의 도움이 컸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다. 많은 미국의 유대계 젊은이들은 이스라엘이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연합군의 공격을 받았을 때, 자원 입대했다. 이들은 이스라엘에 가 본적도 없지만 부모의 조국이라는 이유로 목숨을 바치겠다는 결의를 전 세계에 보여줬다. 실로 무서운 국민들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질투해서 미국 내 유대인들의 악착 같은 성공담을 돈만 아는 행태로 비하하기도 한다. 하지만 전세계 6백만여 명의 유대인



들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독일에 의한 대학살(홀러코스터) 참극의 역사를 전세계에 상기 시키면서 결국 미국의 수도 워싱턴의 홀러코스트 추모관을 건축하게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 내 유대인 1세대들은 점점 쇠퇴하고 2세, 3세대들도 다른 인종들과 결혼해 갈수록 이스라엘 본토와 멀어지기 시작했다. 미국 내 많은 유대인 교회가 문을 닫는 현상을 보인다. 하지만 아직도 이스라엘 본토에 거주하는 유대인들과 전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의 관계는 세계 어느 민족보다 돈독한 가운데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Benjamin Netanyahu 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첫 총리이지만 어렸을 때 미국으로 건너온 1.5세대.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는 그는 1996년 최연소로 총리에 올랐고 1999년에 총리직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당선된 대단한 인물이다.

이번 오바마 대통령이 몇 년을 두고 애쓴 보람으로 이란의 핵무기 확산을 종식시키고 이란과 정상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에 네타냐후 총리는 정면으로 반대했고, 이젠 미국 의회에 일대 일의 전략으로 치열한 반 로비활동을 하고 있다. 예전 같았으면 이처럼 이스라엘이 반대하면 미국 본토 유대인들이 합심하여 결국 성공시켰지만, 이젠 다르다. 이제 곧 하원에서 이란과의 핵확산 금지 법안에 대해 찬반투표가 있을 예정인데 의회에서 통과될지 두고 볼만 할 것이다.

원래 공화당은 정책상 이스라엘을 중동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으로 인정해 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이 이란 법안이 의회에서 부결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경고를 했다.

얼마 전 한국 국회의 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똑 같은 헌법 규정이 미국에도 있어서 이번에 오바마가 비토하

면 2/3의 투표로 미 의회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비토를 무효화 시켜야 한다. 2/3가 안되면 오바마의 이란 핵 법안이 성공하는 것이다.

과반수가 넘는 압도적인 숫자를 가진 의회 공화당은 과연 오바마의 비토를 누를 수 있을지 봐야겠지만 이것이 어찌면 이스라엘의 미국에 대한 영향력, 다시 말하면 미국 유대인들의 정치적 결집이 아직도 얼마나 영향력 있는지 보여줄 기막힌 마지막 테스트가 될 것이다.

### 5. 미주 한인의 정치력 결집

그렇다면 우리 한인의 정치력 결집과 그 신장은 어떤가? 우리들의 이민 역사는 비교적 짧다. 우리는 오랜 역사를 통한 인종차별을 겪어 보지 못했다. 우리 2세대들은 아직도 젊다. 이들의 미 정계 진출에는 우리 1세대들의 후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우선, 우리 한인 타운도 거의 이민 1세가 운영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복잡하다.

**첫째,** 우리에게서 북한이 있다. 다른 어느 커뮤니티에는 없는 소위 종북과 세력이 있다. 얼마 전에도 여성 교포 성악가가 북한에 들렀다가 한국에 와서 북한에 가보니 좋더라는 메시지를 전국을 다니며 강연과 노래로 발각 뒤집어 놓고 결국 한국 정부로부터 추방당했다. 어느 재미동포가 또 북한으로 올라갔다가 붙잡혀 그 석방 운동에 미국 고위층이 북한을 방문해 겨우 석방시켰는데 또 이번엔 미국의 영주권 소지자 재미교포 청년이 북한에 올라가 구금되었다. 모두 다 남북통일을 돕기 위해서라고 한다.

몇달 전에는 뉴욕과 LA시에서 박 대통령은 물러가라, 세월호의 진상을 밝히려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들고 시내 복판에 서서 지나가는 시민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했다. 그 뿐이 아니다.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비싼 돈을 들여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에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광

고를 내기도 했다. 미주 한인들이 고국을 이처럼 비난하는 것은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다.

**둘째,** 지난 번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 의회 연설 때 우리 교포들이 모셔 놓은 위안부 노인에 대해서는 전혀 인사도 시키지 않고 완전히 무시당한 상태에서 아베 연설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미국은 이제 한국이 아닌 일본을 공식적인 안보 파트너로 정하고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을 약속 받고 아베는 의기양양했다.

우리는 미국을 향해 아베로부터 사과를 받아달라고 요구할 때마다 일본과 한국이 둘 다 미국의 우방국인 입장이라 당사자들끼리 직접 만나 해결하길 원하는데 줄곧 미국을 통해 대신 사과를 받아달라는 우리 교포들의 요구는 미국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이 때문에 요즘 미국 정가에서는 Korean Fatigue라는 용어가 나왔다. 이는 한국인들에 대해 피로감을 느낀다는 의미다.

**셋째,** 우리 자신들의 단결이 필요하다. 항상 한인회 선거 때마다 한인회가 두 개가 생긴다. 자기가 아니면 안된다는 의식 때문인 것 같다. 교포 인구가 얼마 안되는 이곳 수도 워싱턴에도 한인회가 여러개 있다. 한인 커뮤니티의 정치력을 결집시키려면 우선 창구가 하나여야 한다. 우리 1세대끼리의 단결된 모습을 2세 정치 지망자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넷째,** 우리는 우리만을 대표해 줄 수 있는 지역구가 없다. 우리는 중국 커뮤니티같이 중국인들이 몰려 사는 몬테벨로, 몬터레이와 같은 중국 타운이 없고 East LA에 집결되어 있는 Hispanic Power도 없고, 유대인의 뉴욕 같은 기반도 없고 또, 일본인 같은 세크라멘토 기반도 없다. 한인 타운이 있다지만 그 곳에서 주로 사업을 하지 주거지는 학군이 좋다는 백인 동네에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한인 타운에서

표를 결집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때문에 모금 운동은 한인타운에서 하고 표는 백인 지역구에서 모아야 하는 모순을 갖고 있다. 우리는 흑인 타운에서는 전혀 당선될 희망이 없고 히스패닉, 중국, 일본 타운에서도 당선될 희망은 거의 절망적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유독 백인 타운에서 경쟁해 이겨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처럼 한인들만의 지역구가 없기 때문에 정계 진출이 어려운 것이다. 많은 한국인 후보들은 거의 전부가 민주당을 택하는데, 그 이유는 민주당이 소수민족을 대표하는 당으로 믿기 때문이다. 정치판에서 소수민족이란 주로 흑인, 히스패닉, 여성을 말하는 것이지 한인이 우선순위가 아니다. 거기에 끼서 성공하기란 힘들다. 우리 1세대들이 단결하여 힘을 모아 하나의 한인 지역구를 만들 때까지는 우리 2세대들은 백인 지역구에서 백인 후보들과 경쟁해야 한다. 그러니 백인 정당인 공화당을 택할 수 밖에 없다.

## 6. 결론

광복 70주년을 맞아 LA 지역은 일제 치하에서 해외 독립운동의 심장부로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우리 선배들의 숭고한 정신을 우리 교포 사회에서도 그대로 반영시켜야 한다. 이제부터 우리 손으로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미 연방 의원에 우리 후세들을 보내기 위해 이번 축제를 통해 우리의 단결된 모습을 타인종들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준비위원회 한분 한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한인타운이 발전하고 정치적 신장도 가능하다고 믿는다.

**김창준(金昌準)**

전 미 연방하원의원 (3선)

(사)김창준 미래한미재단 이사장

(사)김창준 정경아카데미 이사장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 미주한인 정치참여의 모범

또 다른 100년의 과제는 정치적 역량을 결집하고 확대 시키는 일이다



김동석

미국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인종을 이민 그룹으로 분류해 보면 대륙을 발견한 앵글로색슨계와 원주민인 인디언, 아프리카로부터의 흑인 노예, 유럽으로부터의 백인 이민자, 서부 개척 당시 식민지인들인 남미계, 그리고 후발 이민자인 아시안계로 분류할 수 있다. 미국에서 인종별 사회적 지위는 이러한 유입 배경에 의해서 그 위치와 권리가 차별적이다. 동시에 이민 동기에 따른 구분으로 각 인종별 집단적인 이해관계가 결합되어 있다. 200년 남짓한 미국의 역사는 백인 지배 계층에 대항하는 각 인종들의 권익 투쟁의 연속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주기적으로 인종 폭동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이 법적으로 엄격하게 보장되는 미국에서, 그것도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 오늘날에도 인종 차별이 노골적으로 자행되며 인종 폭동이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각 인종별 권리 투쟁의 방식과 형태를 보면 투쟁이 성공하여 그 성과물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케이스는 반드시 합법적인 정치력을 축적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면 불가능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각 인종 집단이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정치력을 획득해 왔다.

1903년 하와이에 처음 도착한 한인 이민의 시

작이 올해로 106년이다. 다른 인종에 비교하여 한인 이민은 그 동기가 좀 특별하다. 일본을 비롯한 구미 열강들에게 국가의 주권을 거의 상실하게 된 처지에서 미국으로의 이민이 시작되었다. 사회적으로 정치, 경제적인 족쇄에 묶여서 인종적으로나 자연인으로 기본권의 상실 위기에서 비자발적 이민이었다.

1920년대에 접어들어 이민금지법에 묶여서 미국 속의 한인 이민이 고정되었다가 비로소 1965년 이민법의 개정으로 이민이 급증하였다. 이민 역사가 100년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속에 한인 커뮤니티의 형태가 생겨난 지는 이제 약 30년이 된 것이다. 초기 이민은 반강제성이 있었던 것에 비하여 본격적인 이민은 모국이 정치, 경제 그리고 안보의 측면에서 불안한 가운데 기득권층의 안전한 곳으로의 선택적 이민이었다고 설명할 수도 있겠다.

본격적인 한인 이민자들은 본국에서는 기득권층이었는데 비하여 모국을 떠난 미국에서의 현실은 사회의 맨 바닥 층일 수밖에 없었다. 사회적 신분과 지위가 박탈 된 것 같은 상실감은 한인들끼리의 사회적 역량을 결속하는 데 있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다. 미국 속의 자신의 처지를 체면 위주의 비현실적인 사고와 권위주의에 입각한 봉건적인 가치관에 의하여 이민자로의 고달픈 현실을 개별적으로만 견디고 극복하게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커뮤니티 개념을 갖기가 힘들었으며 더구나 한인들끼리 집단적인 힘을 구축

하는 일을 기대하기에는 더더욱 어려웠다.

한인 이민자들의 이민 동기가 100년 전 초기 이민은 모국에서의 생존이 거의 불가능한 강제성 이민이었고 시대적으로 민족 공동 과제인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전체 한인들의 공동의 목표가 되었었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 초기 한인 이민자들의 년 수입 평균 10%가 독립자금으로 기부되었다고 한다. 초기 한인 이민자들은 전체가 독립 운동가였고 개인이나 집단이나 공동의 목표가 나라의 독립이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였다. 한인 동포들의 사회적 활동이 모국의 독립을 위해서 모든 내용이 규정되었고 독립운동의 차원에서 집단적인 힘과 목소리를 냈던 것이다.

1965년 이민법이 바뀌고 미국으로 한인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그 이민의 성격이 크게 달라졌다. 본국의 경제적 낙후와 정치적 불안 그리고 국가 안보의 위기에서 더 나은 생활의 조건과 안전한 곳을 찾아서 선택한 곳이 미국으로의 이민이었다. 또한 본국의 기득권층의 자식교육열에 기인한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이민을 결정하는 것이 주요한 동기가 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대도시에 한인 커뮤니티가 본격적으로 형성된 1970년대의 미국 이민은 본국의 기득권층의 유행이었으며 모국의 불안한 일상의 조건을 기피하는 도피이민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초기 이민에 비교하여 미주 동포사회에서 민족이라는 동질성으로 집단적인 힘을 만들기에 쉽지 않은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해도 전혀 무리가 아니다.

한인 이민의 또 다른 100년을 향하여 이민 역사를 돌아보는 시점에서 가장 절박하고 시급한 이슈는 한인의 집단적인 정치력을 신장시키는 일이다. 그동안 우리는 이것을 거의 방관하고 방치해 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지금 한인 정치력은 난민으로 구성된 베트남계보다도 미국 속의 합법적인 정치력은 크

게 뒤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한인 커뮤니티 정치력의 현실’을 언급해 보는 것은 냉정하게 우리의 처지를 살펴보고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는 데에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100년이 생존을 위한 정착의 과정이었다면 앞으로의 100년은 코리언어메리칸이 다인종 사회에서 탄탄한 자기의 자리를 확보하여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타 소수인종들이 피나는 투쟁으로 이룩한 이만한 법과 제도적 장치 내에서 우리의 커뮤니티를 보호할 수 있는 정치력 신장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치력에 의해서 소수인종들로부터는 연대세력의 대상으로, 주류사회로 부터는 무시할 수 없는 당당한 시민사회의 한 커뮤니티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코리언 어메리칸들은 작고 큰 사회적 사건들을 통하여 미국사회에서 정치력이 법에 우선한다는 경험을 반복하여 왔다. 한인사회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1세대들이 일상의 정서로나 관심이 지나치게 본국 지향적인 것이 이곳에서의 정치력 신장에 크게 장애가 되는 것을 늘 경험했다. 따라서 미주동포들의 정치적 역량을 결집하고 신장시키기 위해서 본국의 미주 동포 정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일이 아니다.

### 시민참여센터는 ?

1992년 나성에서의 4.29폭동은 미주 한인사회는 물론이거니와 미 전역에 큰 충격을 주었다. 특히 한인들처럼 미국에서 소수인종으로 살아가는 이민자들에게 정치력의 불가피함을 절감하게끔 하였다. 한 도시가 불에 타 순식간에 폐허가 되었고 피해자는 거리에 나뒹구는데 가해자가 없고 처벌이 없는 기이한 현상이 미국에서 벌어진 것이다. 폭동 후엔 어떠한 배상이나 보상도 없었고 복구대책도 없었다. 집단적인 가해자인 흑인과 라틴계는 그들을 보호



하려는 정치력을 활용하여 언제 약탈과 방화를 저질렀는가? 하는 식으로 전혀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보란듯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것을 한인들이 목격한 것이다. 정치력의 부재이다. 이민 역사상 이처럼 참혹한 피해가 없었지만 한인들은 이민 역사상 처음으로 정치력 신장의 절박함을 각성하게 되었다.

한편 동부지역의 뉴욕 도시권에서는 4.29폭동 일년 전인 1991년 뉴욕 부르클린에서 한인 업주와 흑인 고객 간의 갈등이 집단 간 충돌의 위기로 갈 위기가 있었다. 소위 ‘처치애브뉴 레드애플 청과상 사건’이다. 아시아 이민자들에 대한 흑인들의 분노감이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원인인데도 당시 한인사회는 흑인들을 겨냥한 집단마찰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말로 위험천만함이었다. 다행히 시청 앞에서의 한인들 평화시위로 그리고 당시 흑인 시장인 딕킨슨 시장의 적극 중재로 진정이 되었다.

흑인들은 노예의 신분에서 그들 스스로의 피나는 투쟁으로 노예 해방, 참정권 획득, 정치인 배출, 정치력 발휘……등을 통해서 미국내 모든 소수인종들이 영유하고 있는 권리와 이익이 자신들 노력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이라는 다인종 사회에서 후발 이민자들은 무임승차하여 오히려 자신들의 위치를 빼앗고 있다는 서운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소수인종이 투표권을 한다는 일은 생명을 거는 위험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다. 1950년대 후반에 흑인들의 참정권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던 학생 시민운동가들을 백인우월주의자들과 백인 경찰들이 미시시피 강물에 빠져죽게 하는 사건이 있기도 하였다.

1960년대 흑인 참정권 운동에 참가했던 흑인

할아버지들을 만나면 ‘지금 아시안들은 왜 투표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는 소리를 하는데 귀담아 들어야 할 일이다. 1960년대 흑인 민권운동을 통하여 소수계에게 허용된 소수인종 참정권 획득은 미국 정치계에 지각변동을 갖고 오는 계기가 되었다. 참정권을 획득한 흑인들은 전략적으로 대도시 흑인 밀집지역에서 흑인 정치인들을 배출하기 시작하였다. 지금 미국 전역의 대도시 흑인 정치인들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1992년 4.29폭동을 경험하고 자기 커뮤니티의 현실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2세들이 한인 커뮤니티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1980년대 한국이 군사 권력의 폭압에 인권이 유린당하는 사실들이 미국의 주류 미디어에 크게 보도가 되고 특히 1980년 광주민주화쟁이 세계 언론의 초점이 되자 이를 위하여 미국의 진보세력과 연대하여 활동을 하던 1.5세와 2세들이었다. 이들이 4.29폭동의 현장을 목격하고 한인 동포사회의 잇슈에 관심을 돌리고 비영리단체 전문가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 대표적인 단체가 소수인종 연대와 이민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한다는 취지에서 설립된 나성의 ‘한인노동상담소(KIWA)’이다. 그런 영향으로 대도시 한인사회 내 비영리단체 내에선 커뮤니티 서비스 분야만큼 ‘비영리 권익 분야(Advocacy)’에 관심을 높이게 되었다.

1992년 말부터 뉴욕에서는 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적극 가담했던 한인 청년 학생들이 모여서 한인사회의 권익을 위한 활동을 모색하기 위하여 인권운동가, 비영리단체 전문가, 한인 인권변호사, 여성 폭동에서 한인을 위하여 일했던 활동가들을 초청하여 여러 차례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론으로 우선 동포사회를 단합하는 방향에서 유권자 등록 운동을 장기적으로 펼쳐나갈 비영리단체를 설립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서 1996년 1월에 뉴욕 퀸즈 후러싱에 ‘한인유권자센터 (현 시민참여센터)’를 설립했다.

이와같은 배경으로 설립된 ‘한인유권자센터 : Korean American Voters’ Council’는 연방정부에 비영리단체(501C)로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유권자 등록 운동에 돌입했다. 그동안 명분과 구호에서 머물던 한인사회 내 유권자 등록 운동이 실질적인 맨 파워를 확보하면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한인사회의 관계자들 손에서 나돌던 한인 유권자 명부를 확보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시키는 일과 매주말 1-2회씩 한인상가나 대형 행사장, 종교 모임에 빠짐없이 참가하여 등록 운동을 펼치며 동시에 이 이슈의 중요함을 홍보하고 각종 선거 때 마다 투표율 올리기에 전념하였다. 1995년도 약6%에 머물던 투표율이 2006년도를 지나면서 27%에 육박하기도 하였다. 1995년도 겨우 1500여명 정도의 데이터베이스 한인 유권자가 2007년에 이르러서 4만여 명이 되었다.

‘한인유권자센터’는 전적으로 1.5세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에 의존하였다. 1.5세나 2세 자원봉사자들 중에는 현직 공립학교 교사나 회계사, 변호사들도 있어서 그 활동이 처음부터 비교적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활동이 확대되고 1세대 커뮤니티의 요청이 많아짐에 따라 비용이 증가되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이러한 사정으로 ‘한인유권자센터’는 1996년부터 뉴욕 시민단체들과 함께 인권 운동에 적극 가담하던 맨하탄의 한인 상인들과 만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맨하탄의 한인 상인들의 재정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유권자운동이 한인 영세 자영업자들과 연대를 하게 되었다. ‘한인유권자센터’는 한인의 정치력 신장에 실제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시민권 업무가 필수임을 경험하고 시민권 신청

을 대행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시민권 교육, 시민권 인터뷰, 유권자 등록, 투표 참여, 한인 유권자 관리……등 뉴욕 일원 한인 동포사회의 유일한 유권자 관련 전문기관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2000년 한인유권자센터는 뉴저지의 한인 밀집지역인 포드리에 ‘뉴저지한인유권자센터’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미국 동부지역 한인사회에 정치력 신장을 위한 항시적 활동 전문기관인 ‘뉴욕, 뉴저지한인유권자센터’가 자리잡게 되었다.

### ‘한인유권자센터’의 성과

‘한인유권자센터’는 30년 프로젝트로 계획하고 출발했다. 재원, 기획, 조직으로 나누어 담당 3명이 30년이란 기간을 설정하고 1993년에 활동을 시작했고 1996년 연방정부 비영리단체로 등록했다. 첫 10년은 뉴욕 도시권에서 유권자 등록 운동을 일으켜서 한인 3만명을 신규 유권자로 등록시키면서 동포사회에 항시적인 사회운동체로 만들면서 동포사회 중심부의 지도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였다. 두 번째의 10년은 전문적인 정치력 발휘, 한인 정치인 배출, 유권자센터 전국 조직화, 그리고 세 번째의 10년은 워싱턴DC에 한인싱크탱크 설립, 시민 로비스트 고용을 목표로 했다.

지난 2006년 설립 10주년 기념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고 두 번째의 10년에 돌입했다. 처음 설립 당시 7% 정도였던 한인 투표율을 10년 만에 24% 로 끌어올렸다. 3만 2천여 한인 신규 유권자를 등록시켰으며, 한인 유권자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2006년부터 전문(변호사)인력을 확보했고 그 첫번의 성과로 한국과 미국간 비자 면제 프로그램,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그리고 2008년 여름엔 갑자기 워싱턴에서 벌어진 ‘독도 명칭’ 문제를 하원 외교위원들을 압박해서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외 지역에서의 성과로는 뉴욕과 뉴저지에서 한국어 투표 서비스 시스템을 만들어 냈으며 한인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뉴저지 세탁업을 위한 ‘퍼크사용금지안’에 대해서, 뉴욕시 청과업을 위해서는 ‘그린카트법안’에 대해서 자영업을 보호하는 조치로 크게 역할 했다. 2005년도엔 뉴저지 에디슨시에서 한인 시장을 배출했고, 뉴저지 한인 밀집지역 내 풀뿌리 지역 정치인으로 한인들을 대거 진출시켰다. 2000년도 한명도 없었던 선출직에 현재 교육위원 8명, 시의원 3명이 한인이다.

1. 2002년 뉴욕의 한국어 투표 서비스, 2005년 뉴저지 한국어 투표 서비스
2. 한인 정치인 배출
3. 투표 참여율 18% 증가
4. 3만 2천여 한인 신규 유권자
5. 뉴욕 - 그린카트 법안, 뉴욕 - 퍼크 사용금지법을 수정
6. 한미간 비자 면제 프로그램 (VWP)
7. 연방 하원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통과
8. 독도 명칭 변경 저지

2010년에 들어서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하고 조직의 이름을 ‘시민참여센터’로 변경했다. ‘시민참여센터’의 목적은 1. 미주 한인의 권익 신장. 2. 한미 관계 발전 등이다. 지역에서는 정치력을 결집하고 신장시켜서 한인 공동체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워싱턴 DC에서는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이제 세 번째 10년을 보내면서 미주 전 지역의 한인들을 상대로 풀뿌리 정치 참여 운동을 일으키고 있다. 전국의 한인들이 일년에 한번 워싱턴 DC에 모여서 연방의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시민로비를 펼치는 일을 추진 중이다. 그것이 ‘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이다.

200만 이상의 전체 한인들을 모두 동원시킬 수 있는 일은 아니다. 30년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이 풀뿌리 정치 참여 운동은 일단 2025년까지로 목표를 설정했다. 그때까지 지역에

서는 KACE(시민참여센터), 워싱턴에서는 KAGC(한인풀뿌리대회 : 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로 전체 한인 사회 내에 가장 모범적인 정치 참여 운동을 만들어 낼 것이다.

### 김동석

시민참여센터(구 한인유권자센터) 설립자 겸 전 소장 김동석 전 소장은 한인 투표율을 1996년 5% 미만에서 2008년 65% 이상으로 높였으며, 23,000명의 한인들이 유권자 등록을 받았고, 2003년에 뉴욕시에서 한국어 선거서비스가 시작되게 하고, 2006년에는 뉴저지 버겐카운티에서 한국어로 선거 자료가 번역되게 하였으며, 2007년에 미연방하원의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2008년에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국 지정, 2008년에 뉴저지주 유권자 등록 용지 한국어 번역 등의 놀라운 성과를 올렸다.

전국 규모의 캠페인을 주도하면서, 김 전 소장은 2007년 미의회 전문 신문인 더힐지가 에이펙, 쿠반 아메리칸, 타이완 어메리칸에 견주는 정치력을 쌓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김 전 소장은 월간조선, KBS, 한국일보, 뉴욕일보, 뷰즈앤뉴스 등에 정기적으로 기고를 하고 있으며, 많은 미국 미디어 및 한인 미디어를 통해 영향력 있는 풀뿌리 단체 지도자로 인정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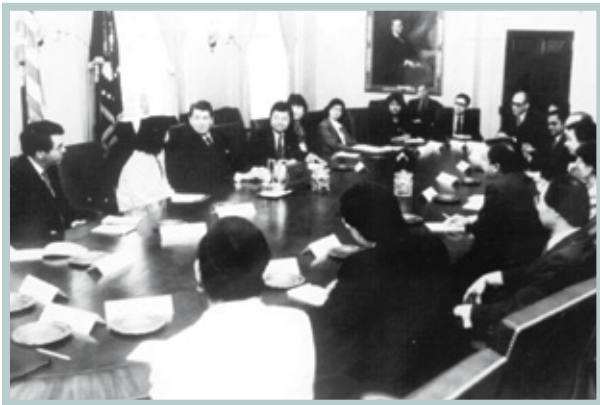
## THE WHITE HOUSE STORY OF MY LIFE



Dr. Kyo Paul Jhin

I like to call this fragment of my life, “My White House Story”. As the first Korean American to be appointed by three P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to positions of trust and a high level of responsibility, my story is unique and inspirational in how it lays out and defines the “Land of Opportunity” we each have her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PRESIDENT RONALD REAGAN



Historic AAVC meeting with the President Ronald Reagan at the White House, 1987

In early 1986, following my election as the National Chairman of the Asian American Voters Coalition, I began to research the data in relation to past Presidential appointments of Asian Americans to various posts, commissions and advisory boards. Data confirmed that out of the twenty-five appointments of Civil Rights Commissioners and United State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ers not one appointment was of an Asian American. With

the hope of changing this statistic the Coalition, as a group, requested to meet with President Reagan. The purpose of the meeting was to introduce the President to our leadership, and ultimately include Asian American leaders in Presidential appointments to committees, commissions and other advisory positions in the White House. As leaders of the Asian American community each of us had a keen awareness of the tremendous discrimination suffered by Asians as a result of their skin color and/or nationality.

Within one week of the request to meet with President Reagan, he responded with an invitation to meet with him in the White House Cabinet room. On June 10, 1986 fifteen leaders of the Asian American community gathered in the White House Cabinet room with President Reagan for a historic meeting. This was the first time in history a President met with Asian American leadership.

As the facilitator of the meeting, I began by stating, “Mr. President, on behalf of our Asian American Voters Coalition, I wish to express our sincere appreciation for giving us this historic meeting with you today”. President Reagan smiled and listened intently as I continued: “Mr. President, in the history of America, U.S. Presidents appointed twenty five U.S. Civil Rights Commissioners or the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ers. It is a known fact that Asian Americans have suffered tremendous discrimination because of their skin color and/or their nationality. Mr.



President, guess how many of these twenty five commissioners were Asian Americans?” The President replied by asking “How many?” I lifted my right hand, touching my index finger to my thumb, creating a “zero”. I then added, “Mr. President you can make history by appointing the first Asian Americans to the U.S. Civil Rights Commission and the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The president then turned toward his Director of Presidential Personnel (Bob Tuttle) on his right and said, “Bob see what you can do about this?” I responded, “Thank you Mr. President, my speech is over. Bob I will be in contact with you soon”.

Within six months of the historical meeting in the Cabinet room, President Reagan appointed the first Asian American, Chinese American Sherwin Chen to the U.S. Civil Rights Commission and Indian American Joy Cherian to the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These appointments created a history that paved the way for involvement of the Asian American community to not only manage our country, but to shape it for future generations to come. Every President since has appointed at least one Asian American to the commission(s). On January 10, 1997 once again, Asian American leadership and President Reagan gathered at the White House. This time the meeting was in the Oval Office and the purpose was a presentation of a plaque to the President as a thank you for appointing two Asian American Commissioners, to the Civil Rights Commission and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The plaque currently hangs in the Reagan Library and Museum in Simi Valley, California.

## PRESIDENT GEORGE W. BUSH

In 2002, I was appointed as Director of Special initiative and Director of Planning, Policy and Analysis at the Peace Corps. The appointment was by President George W. Bush. Leading up to this appointment, I was very active in the

Bush-Cheney 2000 campaign activities. Some of these activities included membership on a National Steering Committee of Asian Americans for Bush-Cheney 2000, as well as membership of the Republican National Convention Gala Committee. I was a delegate for George W. Bush at the Republican National Convention in 2000. As a co-chairman of American Dreamers, Bush for President 2000 I was one of thirty two national leaders invited to lunch with then Governor George W. Bush in December of 1999. In addition to these activities, I authored an article titled: “Why Asian Americans Should Support George W. Bush for President”. This article was published in six Asian ethnic language newspapers nationwide during the primary and general elections.



Appointed as Peace Corp's Director of Special Initiative by President Bush

My re-appointment in 2004 followed my heavy involvement in the Bush-Cheney 2004 campaign activities. Some of those activities involved establishing a “72 Hour Task Force Volunteer Program” in which I recruited sixty-one volunteers who manned the minority outreach phone bank. The phone bank activities identified over 20,000 registered Ethnic voters (Ethnic Voter Identification Program). This included Chinese Americans, Korean Americans, Vietnamese Americans, Indian Americans and Hispanic Americans.

Serving as a Surrogate Speaker for Bush-Cheney 2004, I delivered a speech titled “Why

Asian Americans Should Vote for George W. Bush for President”. This speech was presented at a variety of venues, including the Philadelphia Korean American Community Leaders Banquet, Yongsang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in Philadelphia and the Vietnamese Americans for Bush-Cheney 2004 Rally.

In September of 2004, I delivered a speech titled “Why Asian Americans, Hispanic Americans and African Americans Should Vote for George W. Bush for President” at the Virginia Bush-Cheney Rally. There were over seven hundred people attending the rally, representing the three ethnic groups listed in the title of my speech. Other speakers at the rally included Senator George Allen, Republican National Convention Chairman Ed Gillespie, as well as Congressmen Frank Wolf and Tom Davis. Ethnic Media provided broad coverage of the event.

Other venues for speaking engagements and outreach of advocacy for minority ethnic groups included an interview on a Korean American Radio Station, and speaking at the Asian American Republican Coalition Board, as well as an appointment as Senior Advisor to the Virginia Asian Americans for Bush-Cheney 2004. I also served as a volunteer at the Republican National Convention in New York, New York in August/September 2004.

In 2007, I met with numerous United Nations officials to explore further collaboration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Peace Corps. The first meeting included the Secretary-General Ban Ki-Moon. Following that meeting, the Secretary-General called a meeting of Peace Corps – like agencies to explore further collaborative efforts.

On March 22, 2007, Ronald Tschetter, Director of the Peace Corps met with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nd Peace Corps. They met at the office of the Secretary General in New York. The purpose of this historical meeting was to explore collaboration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Peace Corps to promote

peace and understanding around the world.

Another historical meeting took place on October 12, 2007. This meeting featured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Ban Ki-Moon speaking as to his desire to have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s work in close collaboration with the Peace Corps programs. The event is categorized as historical due to the fact it was the first time ever a Secretary-General spoke at a Peace Corps meeting. About six weeks later, the first collaboration event occurred when Dr. Peter Piot, Executive Director of UNAIDS and Under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poke at the Peace Corps during the Loret Miller Ruppe Speaker Series. Dr. Piot emphasized how important it would be for the Peace Corps and UNAIDS to work together to help solve the HIV/AIDS crisis around the world, particularly in underdeveloped countries. The outcome of this meeting was the agreed upon collaboration between the Peace Corps and UNAIDS to work together and select pilot countries and sectors in which they may collaborate.

Mr. Tschetter has given a testimony regarding my work with the Peace Corps and United Nations as collaborates. A portion of his testimony includes:

“I worked with Dr. Jhin from 2006-2009 when I was Director of the U. S. Peace Corps and he served as Director of Special Initiatives. Dr. Jhin’s service and contributions were outstanding. The Peace Corps and the United Nations had rarely worked together even though there were obvious overlaps in our common worldwide initiatives.

Through Dr. Jhin’s efforts we had a meeting with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Mr. Ban Ki-moon in New York. During this meeting, I offered the Secretary General an opportunity to speak at the Peace Corps offices in Washington, D.C. He graciously accepted. Consequently, on October 12, 2007, Mr. Ban made history by addressing Peace Corps staff and dignitaries.

These efforts by Dr. Jhin led to the signing of a number of memorandums of understanding and cooperative agreements between the Peace Corps and the United Nations that continue to function today.

I can truly say that as a result of his work in this area the Peace Corps/ United Nations collaborations have never been deeper and more effective.

In addition, he has represented the Peace Corps and the United States at several conferences and forums to advance better understanding in the Middle East, Africa, and in several European countries.

Dr. Jhin's accomplishments at the Peace Corps are a testimony to his legacy as one who made a difference in worldwide community while at the Peace Corps that will continue to bear fruit for years into the future

## **PRESIDENT GEORGE HERBERT WALKER BUSH**

In 1990, President George Herbert Walker Bush appointed me as the Executive Assistant to the Secretary of Veterans Affairs. In order to receive this appointment, I was very active in the Bush-Quale 1988 Campaign activities. Some of these activities included work as the National Co-Chairman for Asian Americans, alternate delegate at the 1988 Republican National Convention in New Orleans, Co-Chairman, Asian American Festival in honor of George W. Bush at the RNC, Surrogate speaker for Bush-Quale 1988 national, state and local organizations and conventions. An article I authored was published in six Asian ethnic language newspapers nationwide during the primary and general elections. The title of the article was "Why Asian Americans Should Support George H. Bush for President". The article was also published on two national Asian American websites that included five hundred thousand subscribers.

During my tenure at the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I served as a personal advisor and

consultant to the Secretary on the formulation of broad department policies and the implementation of programs within the Department. The programs were authorized by Congress and mandated by the President. My major responsibility was to launch Total Quality Management (TQM) initiatives in the agency and transform the VA to adopt TQM culture.



Appointed as the Executive Assistant to the Secretary of Veterans Affairs by President H. Walker Bush

The following is a portion of testimony given by Mr. Anthony Principi, former Secretary of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Dr. Jhin served as my Executive Assistant and was given a broad portfolio of responsibilities to improve the management of our government's second largest department with 230,000 employees and a budget exceeding \$60 billion. He accomplished his responsibilities by bringing people together from throughout the department to plan and implement a dynamic process to improve the delivery of healthcare and benefits to our nation's 24 million veterans. He employed innovative approaches in order to transform the VA's culture to focus on the individual and patient. In doing so, Dr. Jhin won the respect of a bureaucracy unaccustomed to change.

Dr. Jhin's major responsibility was to launch Total Quality Management (TQM) initiatives in the agency and transform the VA to adopt TQM culture.

In addition, Dr. Jhin has helped to establish a strong working relationship between the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and the Korean Ministry of Patriotic and Veterans Affairs.

## PRESIDENT GERALD FORD

In 1976, I was appointed as a member of the National Advisory Council on Adult Education by President Gerald Ford. Accomplishments leading up to this appointment included my tenure as Executive Director of the Top of Alabama Education Service Agency. The agency was able to assist more than ten thousand adults in passing the High School Equivalency Exam to receive their General Education Diploma (GED). President Ford acknowledged this extraordinary accomplishment with the appointment. The Senate agreed and confirmed my appointment to the National Advisory Council on Adult Education.

After becoming the Vice Chairman of the Council, I was a leader of the team responsible for conducting hearings on the needs of Adult Education in fifteen of the fifty United States. I also testified at Congressional hearings. This work led to Congress increasing the budget for Adult Education 200% in 1979.

The following is a portion of a testimony provided by Mr. Dean Y. Matthews, Former Executive Director of Top of Alabama Regional Council of Governments:

“In 1976, Dr. Jhin received a Presidential appointment to become a member of the National Advisory Council on Adult Education by President Gerald Ford. When Dr. Jhin was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Top of Alabama Regional Education Service Agency, he introduced a historic innovative Adult Education Project, using televised classes to teach a General Education Development (GED) program. The project helped over 10,000 adults without high school diplomas to receive the GED certificates. The GED is a high school graduation equivalency project. It was selected as



Meeting with UN Secretary-General Ban Ki-Moon

one of the seven most successful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and one of the fourteen most successful programs in the world, to make presentation before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ult education in Washington, D.C., 1976.

This successful and innovative project attracted many adult education officials from all over the world. Because of this success achievement, President Gerald Ford appointed Dr. Jhin in 1976 to be one of the five members to serve on the National Advisory council on Adult Education for a five-year term (1976-1981). Later, Dr. Jhin was elected as the Vice Chairman of the Council.

In 1979, he testified before the Congressional Committee on behalf of the 54 million adults without high school diploma. As the result, an appropriation for the adult education was doubled in 1980. In order to prepare for this hearing, Dr. Jhin and his colleagues conducted a nationwide hearing on Adult Education in ten major cities.

Looking back to the first meeting with President Reagan, I had no idea how the outcome of that meeting would guide the path of my future accomplishments. That historical meeting opened many doors and provided me with untold opportunities to positively impact society and shape the perception and acceptance of cultural diversity amongst th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people throughout the world.



## 40년만에 부활된 재외국민 참정권



이내운

우리 대한민국의 재외국민 참정권은 유신공화국 체제의 유신헌법에 대한 부정적인 문제점으로 1972년도에 해외부재자 투표제도가 폐지되고 오랜기간 국내 부재자 투표제도만이 명맥을 유지하여 왔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가 2000년 초반부터 재외국민 참정권에 대한 한국내의 정치권 분위기와 해외에서 살고 있는 재외동포들의 관심이 증폭되었고 2007년 6월28일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진 '재외국민 참정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라는 헌법 불일치 판정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재외국민 참정권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진 헌법불일치 판정이 계기가 되어 재외국민 투표법안은 국회에 발의 상정되었고 마침내는 2009년 2월 5일 본 법안이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서 1972년 해외부재자 투표제도가 폐지된지 37년만에 전세계 230여만명의 재외국민에게도 한국대통령과 국회의원선거에 직접 선거권이 부여되었다.

40년 만에 해외에서도 역사적인 재외국민 참정권이 부활이 되어 지난 2012년 4월과 12월에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와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실시하였다. 전세계의 750만 해외한인들 중에 230여만명의 재외국민선거권자에게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고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 투표에 참여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치루기 위하여 해외지역

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고 이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2011년 10월 14일로부터 2013년 1월 1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었다. 재외선거 관리위원회의 역할과 업무는 공직선거법 218조 3에 따라 선거 위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재외투표소 설치장소와 운영기간 등의 결정 및 공고, 재외투표소의 투표관리, 재외투표소 투표사무원 위촉 및 투표 참관인을 선정하고, 재외투표 관리관이 행하는 선거 관리위원 임명 및 선거관리사무 감독, 선거범죄 예방과 단속 업무 등을 관장 하게 되었다. 부활된 재외국민 참정권으로 재외국민들은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국내투표보다는 10일전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는 2012년 3월28일부터 2012년 4월 2일까지, 제 18대 대통령 선거는 동년 12월5일부터 12월10일까지 직접 재외국민 참정권을 행사하였다.

### 1.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하여 LA 총영사관 지역 재외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정철교 재외선거관과 박철웅목사, 총영사가 추천한 임시홍 동포담당영사, 새누리당에서 추천한 최용조씨, 통합민주당에서 추천한 전직 남가주 총청향우 회장 이내운씨 등 총5명으로 구성되었고 2011년 11월1일에는 신연성 LA총영사가 5명의 재외선거 관리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였다. 5명의 위원은 이날의 기자회견을 통하여 재외선거인 등록과 재외선거 흥

보계획 등을 밝히면서 재외선거관리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파악했었던 LA총영사관 관할내 예상 선거인수는 약 20 만명 이었다.

2011년 11월14일에는 유권자 등록을 시작하게 되었고 첫날에는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 36명과 유학생과 지상사 직원을 포함한 국외부재자 47명 등 총83명이 등록에 참여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재외선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LA 총영사관 조경윤 부총영사가 가장 처음으로 유권자 등록을 마쳤으며 한국에서 유권자 등록 촉구행사를 위하여 LA를 방문하신 한나라당 김정권 사무 총장과 황영철 의원이 LA선거 상황실을 들러서 실제 유권자 등록 현황을 참관하며 격려와 감사의 말을 전하였다.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 신고접수는 91일간 진행 되었으며, LA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정철교 선관위원장과 위원들은 2011년 11월3일 LA한인회를 방문하여 재외 선거 등록 접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홍보를 당부하였다. 이날 방문에는 이내운, 최용조, 임시흥 선관위원이 함께 동석을 하였으며 선거인 등록신청서 4,000장과 선거위반사례 팸플릿 1,500매를 한인회 측에 전달하였다. 또한 선관위는 2일 오렌지카운티한인회를 시작으로 베이커스필드와 샌디에이고, LA북부 한인회 등도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협조와 당부를 하였고, 중앙일보와 한국일보 본사도 방문하여 한인들의 선거인 등록 참여를 호소하기도 하였다. 국회의원 재외선거 등록 신청 및 신고는 11월11일 마감되었는데 당초 예상보다는 훨씬 낮은 5.57%의 선거인 등록을 하였고 LA총영사관 지역에도 저조한 4,500여명만이 선거인 등록을 마쳤다. 등록율이 너무 낮아서 한국 정치권에서는 재외선거 무용론까지 대두되기도 하였으나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제도적으로 참여가 쉽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등록률이 낮은

이유는 먼거리에 있는 투표권자가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등록도 하고 또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경비를 감수하면서 두번 방문해야 되는 불편으로 재외국민들의 참여가 쉽지 않은 점이였다. 다시말해 해외에서는 접근성과 편의성이 매우 어려운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하였으나 한국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투표의 편의성 보다는 공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상반되는 주장을 했다.

3월28일 시작한 제 19대 국회의원선거는 김승재(24)씨 투표 개시 30분 전인 오전 7시30분부터 LA총영사관 앞에서 기다리다 1번으로 투표를 하는 열정을 보였고, 영주권자로 가장 먼저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김병호(55)씨였다. 이분은 LA 한인타운 에서 11년째 골드핑거 양복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유권자 등록은 1,400번째로 등록을 하였지만 투표 만큼은 가장 먼저 하고 싶어 일찍 투표소를 찾았다고 하면서, 지난 1997년 한국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이후 15년 만에 선거를 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는 소감을 밝히기도 하였다. LA총영사관에서는 이날 가장 먼저 투표한 사람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오래전 한국을 떠나 호적이나 주민등록 번호가 전산처리가 되지 않은 관계로 유권자 등록에 어려움을 겪었던 고령의 유권자들도 이날 자녀들의 도움으로 영사관을 찾아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기도 하였는데, 최고령 유권자는 95세인 고기승씨로 이분은 본인이 비록 나이가 들어 거동은 불편하지만 해외 영주권자들에게 처음 부여된 참정권을 직접 행사하기 위하여 투표소를 방문했노라고 말을 하였다. 투표 당일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LA 총영사관에 마련된 투표소를 방문한 유권자들도 눈길을 끌었는데, 생후 2개월이 갓 지난 딸과 함께 투표장에 나온 남석인씨 부부는 “해외 연수기간에 한국 총선이 실시돼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걱정했으나 재외선거의 도입에 따라 국외부재자 신고를 통해 선거에 참여하게 됐

다. 미래 유권자인 어린 딸이 자라면서 참정권을 비롯한 선거 참여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깨닫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LA 총영사관은 투표 시작 시간인 8시가 임박해서야 영사관 민원용 주차장을 개방하는 바람에 투표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영사관을 찾은 일부 유권자들이 주차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한편 “왜 지역구가 없느냐” “후보 이름이 없느냐” 고 묻는 등 해외에서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는 사람이 아닌 정당에만 투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채 나온 영주권자들도 적지 않았다. 여하튼 40년만에 처음으로 6일간 실시하였던 LA 총영사 관내 재외선거는 별문제없이 무난하게 마무리되었고 재외선거인의 총 2,373장의 투표지는 투표가 끝난 다음날인 4월3일 외교행낭에 담겨 한국행 비행기에 실려 한국으로 보내졌다. 세계 각지의 재외선거 투표지는 한국에 도착하여 국회의원 선거일인 2012년 4월 11일 국내 투표마감 시간인 오후 6시 이후에 개표를 실시하였다.

## 2. 제 18대 대통령 선거

2012년 12월19일에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에서 과견된 강남형 재외선거관을 비롯해 공관장 추천의 임시흥 동포담당 영사, 새누리당 추천의 최용조 위원과 통합민주당 추천의 이내운 위원과 일반인의 박철웅위원이 확정되었고, 위원장에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강남형 신임 재외선거관을 만장일치로 추대하였다. 재외선거관위는 한국에서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들이 결정되는 8월 이후를 기점으로 한인사회의 선거 열리가 더욱 과열될 것으로 전망하고 선거법 위반 시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한인 단체 또는 모임을 찾아다니며 선거법에 대하여 집중 안내를 하였으며, 한국의 제 18

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개시일을 2주일 앞두고 선거인 등록 신청 및 신고 접수시설의 최종 시험점검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신연성 LA총영사는기자회견을 통하여 “총선 참여도는 낮은 편이었지만 공정성 면에서는 재외국민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대선에서도 이런 모습이 지속되도록 신경을 쓰겠다”고 말하였다. 재외선거인 등록은 7월22일부터 10월20일까지 3개월간 90일을 등록하였다.



유권자 등록 첫날인 7월22일 LA총영사관을 비롯한 전 세계 110개국 162개 공관에서 선거인 등록이 시작되었는데, 첫날 LA총영사관에서는 모두 71명이 등록을 하였다. 여야 정치권과 중앙 선관위는 재외국민의 대선 투표율이 4월 총선보다는 최소 2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해외한인 표심잡기에 나섰고,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경선후보 캠프에서는 코미디언 자니 윤씨를 재외국민본부장으로 영입했고, 민주통합당은 한명숙 전 대표와 김성곤 세계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을 임명 미주지역을 순회하며 적극적인 선거참여 호소를 하였다. LA총영사관 재외선거 관리위원회는 임시흥영사와 박철웅위원의 유고로인하여 새선관위원회에 김한신 변호사와 전근석 영사를 선거관 리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전근석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유권자 등록은 10월 20일 LA 총영사관을 비롯한 전 세계 163개 재외공관에서 일제히 마감되었는데, 등록결과는 223만3,695명의 유권자 가운데 21만7,507여명이 접수를 마쳐 총 9.74%의 등록률을 기록하였다. 지난 총선 당시의 5.53%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20일 LA 총영사관 지역 에도 재외선거인 3,997명, 국외부재자 6,199명 등 총 1만196명이 등록을 마쳐 지난4월 총선의 2.28% 등록률에 비하여서는 126%가 증가한 수치였다.

6개월전 복수국적을 신청한 뒤 이날 오후 극적으로 한국 여권을 받아 LA 총영사관을 찾은 한인 정흥준(76)씨는 “지난 4월 한국에서 복수국적을 신청한뒤 45년만에 이국땅에서 한국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다” 며 눈시울을 붉혔다.

투표소 관계자들은 한국의 대선이 축제의 한마당으로 승화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즐거워하였으며, 선거권자들은 주말을 맞아 자녀와 함께 가족 단위로 투표소를 많이 찾았고 유학생도 친구 또는 연인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쉽게 포착할 수 있었다. 이들은 투표전이나 후에 영사관 로고나 재외 투표소 안내 표시를 배경으로 또는 투표용지를 담은 봉투를 투표함에 넣는 순간을 스마트폰에 담은 등 첫 재외선거 참여에 대한 설렘과 기쁨을 즐기는 표정이었다. 투표소 진행요원과 선관위 관계자 참관위원 등도 만면에 웃음을 띠며 흥겹게 투표인을 맞았다. 이들은 예상보다 많은 재외선거인이 몰리며 쌓인 피로에도 짜증보다는 보람에 들뜬 표정이었다.

이내운 선거관리위원과 최용조 선거관리위원은 “이렇게까지 많이 투표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축제처럼 즐기는 모습에 선관위 관계자로서 자부심과 뿌듯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선관위원과 참관위원들은 부모의 가슴에 안겨서 오거나 손을 잡고 오는 어린이에게 과자나 사탕 곶을 건네기도 했으며, 페이스

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SNS에는 인증샷이 많이 올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친구의 인증샷을 서로 격려하며 한국에 친지와 친구에게도 투표를 독려하자고도 하였다.

제 18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 LA 총영사관 투표소에서는 등록 유권자 1만 242명 가운데 79.6%에 해당하는 8,156명이 투표를 마쳐 사실상 80%에 달하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이는 등록 유권자수가 5,000명이 넘는 9개 주요 공관 가운데는 가장 높은 것으로, 세계 평균 투표율보다는 10% 가량 차이가 나면서 남가주를 비롯한 LA 총영사관 관할지역 한인 유권자들의 뜨거운 대선 투표 참여 열기를 보여줬다. 또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수에서도 LA 총영사관은 일본 도쿄 대사관 (9,632명)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이어 뉴욕 총영사관이 7,548명이 투표하며 68.0%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베이징 대사관 6,846명(투표율 68.3%), 상하이 총영사관 6,745명(74.8%) 순이었다. 전 세계적으로는 재외선거 등록 유권자 총 22만2,389명 가운데 15만8,235명이 투표를 마친 것으로 집계되어 이번 대선의 재외선거 투표율은 71.2%로 기록됐다. 이는 지난 4월의 19대 총선 당시 첫 재외선거 최종 투표율 45.7%보다 무려 25%포인트가량 높아진 것이다. 대륙별로는 유럽이 77.2%로 투표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미주 72.9%, 아프리카 70.8%, 아시아 69.0%, 중동 67.9% 등의 순이었다. 주요 3개국 투표율은 미국 71.6%, 중국 68.2%, 일본 67.8% 등이었다.

강남형 LA 총영사관 재외선거관은 “예상보다 한인 재외선거 투표자들이 많이 몰려 투표기간 내내 쉴 틈이 없을 정도로 바빴지만 투표율이 높아 매우 보람이 크다”며 “한국에 투표용지들을 우송하는 마지막 절차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 투표권을 행사한 유학생 박아현(20.어바인)씨가 LA총영



사관에서 이어진 사상 첫 한국 대선 재외선거에서 LA 투표소의 마지막 투표자로 기록됐다. 박씨는 이날 투표 마감시간인 오후 5시를 불과 3분 앞둔 오후 4시57분쯤 투표소에 도착해 오후 5시1분 투표를 마쳤다. 7개월전 어바인으로 유학 왔다는 그는 “학교에서 3시에 수업이 끝나고 곧바로 LA로 향했다. 교통체증 때문에 늦을 것 같아 조마조마했는데 이렇게 무사히 투표를 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박씨는 새 대통령에 바라는 바를 묻자 “서민들이 행복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상식이 통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셨으면 한다. 다음번 투표 때도 미국에 살고 있다면 그때는 마지막이 아닌 첫번째 투표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신연성 LA총영사는 12일 중앙일보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하여 두번의 재외선거를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해준 LA지역 재외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등록과 투표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위법, 탈법, 불법 또는 추한 모습이 발생하지 않은 선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한인들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또 자원봉사자로 진행요원으로 참관위원이나 선관위원으로 대단히 열과 성을 다해 선거업무에 임해준 분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하였다. 신 총영사는 재외선거 실시는 한인사회 뿐만 아니라 공관과 한국 사회에도 변화를 가져왔다고 진단했다.

또 재외선거는 국내 투표보다 열흘 이상 먼저 실시된다는 점에서 미국의 사전투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한국 선거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LA의 등록이나 투표 참여는 전세계 다른 공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며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LA 신 총영사는 재외선거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재외선거인 등록은 더 간편해져야 한다고 본다. 이번 대통령선거 투표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등록은 전체 예상 유권자의

10% 정도에 그쳤지만 이들 가운데 80% 가까이 투표에 참여했다는 것은 앞으로 어디에 더 신경 써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대선 등록 마지막 순간에 이메일 등록을 허용한 것은 큰 개선이다. 이를 훨씬 실효성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나머지는 종합적 입체적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을 했다.

투표기간 동안 인상에 남은 사람은 라스베가스에서 투표하러 LA까지 온 정 할아버지가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 70대 후반의 정 할아버지는 둘째 날인 6일 버스로 투표소를 찾았다. 정 할아버지는 이날 국적 확인에 필요한 영주권 원본을 갖고 오지않아 선관위 직원으로부터 투표를 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정 할아버지는 잠시 고민하더니 “오늘은 돌아가는 버스가 없으니 내일 아침 출발하는 버스로 갔다가 모래 다시 오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수십년을 기다렸는데 한 번 더 갔다 오는 건 일도 아니다”고 말해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정 할아버지는 약속대로 이틀 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는데 이분은 투표를 하기위해 4일 동안 1,200마일이라는 거리를 이동했고, 교통비와 숙박비, 식사비 등으로 수백달러를 지출해야만 하였다.

해외동포들은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 처음 적용된 재외국민 선거가 공정하고 성공적으로 치러진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재외국민선거 연구소가 12·19 대선 직후 일본, 미국, 중국 등 3개국 거주 동포 288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들은 ‘재외선거 공정성’ 항목에서 10점 만점에 평균 7.1점을, ‘재외선거가 한국의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라고 묻은 결과 응답자들은 평균 8.07점을 줘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51.6% 득표해 문재인 후보(48%)를 3.6% 차로 누르고 당선되었지만, 재외국민 개표 결과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157, 291표 중 67, 319표

(42.8%)를 얻어 89,192표(56.7%)의 문재인 후보에게 21,873표 차로 뒤졌다.

이번에 실시한 대통령선거에는 대선참여운동 LA본부를 구성 유권자등록에 힘쓴 이병도 대표와 공동회장 박흥기, 조남태 명예공동회장과 이내은 공동회장 김성희, 선이 공동본부장, LA 한인회 배무한회장과 LA 참정권실천연합회 김완흠 회장, 새누리당남가주위원회 이용태 회장 및 남가주 한나라포럼 박형만 회장을 중심으로 한 30여개 단체가 재외선거 참여를 늘리기 위한 유권자 등록에 숨은 공로자들 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헌정 사상 처음 실시된 재외선거를 통해 제18대 한국 대선에서 참정권을 행사한 미주한인들은 18일 밤부터 19일 아침까지 이어진 개표를 지켜보며 뿌듯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향후 유권자 등록 및 투표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재외선거 관련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인식이 미주는 물론 한국 정부 정당 관계자들 사이에 확산되기시작한 것도 큰소득이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관계자들도 “앞으로 해외 참정권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주의의 권력은 유권자로부터 나온다.

이제 40년만에 부활되서 실시한 재외투표는 모두 끝이 났다. 재외국민, 특히 남가주 한인들은 높은 투표율로 투표 참여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보여줬으며, 웬만한 불편은 참정권을 직접 행사한다는 이유로 감수를 했지만 4년 뒤에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이같은 문제점들이 반복해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제 다가올 재외선거는 2016년 3월에 있다. 앞으로 재외국민의 참정권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결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LA한인회가

주축이 되어 “광복 70년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을 “구호로 LA 범동포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난 7월23일 실시한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의 여야의원 특별초청 재외동포정책포럼에서 재외국민들을 위한 재외동포처 설립, 투표율 제고를 위한 우편 투표와 인터넷투표, 해외비례대표제 국회의원, 재외국민을 위한 정부예산 증액, 미래지향적인 통일정책 방향설정 등을 건의한 바가 있다. 인터넷등록, 우편등록, 4만이상 투표자 있는 곳에 추가투표소 설치, 영구명부등록제 등 실제적인 재외국민참정권 정책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며 현실화되고 있다.

앞으로 전세계 750만 해외한인과 230만 재외국민들을 위한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더욱 보완되고 발전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발전은 물론 세계속의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기를 LA미주한인들은 진심으로 기원을 한다.

## 이내은

중원포럼 공동회장  
 로스앤젤레스 한인회 이사  
 로스앤젤레스 올림픽라이온스클럽 제 3부회장  
 세계한인민주회의 운영위원및 자문위원  
 LA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 역임  
 남가주총청향우회장 역임  
 대선참여운동 LA 본부 공동회장 역임

## 기업이 성공하려면



고석화

광복 70주년을 맞아 빈곤과 분단의 어려움 속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일궈낸 대한민국의 저력을 되돌아보며 미주한인사회의 일원으로 뿌듯함을 느낍니다.

미국 땅에 한인 이민역사가 시작된 지 113년, 고국이 힘든 시기를 견디며 이겨내고 성장하는 동안 미주한인 사회 또한 당당하게 일어섰습니다. 미지의 땅에 새로운 뿌리를 내리고, 예측할 수 없는 비바람과 폭풍우를 견디며 곳곳이 성장한 미주 한인사회는 이제 나란히 주류사회의 일원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성실재근(成實在勤). 정직하고 근면하게 노력한 결실이 오늘날 성공을 가지고 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이,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70년을 내다보며 미주한인사회와 지역경제가 이루어갈 우리의 성공적인 미래를 설계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주한인 사회의 경제발전의 역사를 함께 일구고 함께 성장한 월셔은행은 올해 창립 35주년을 맞이하며 앞으로의 35년, 70년을 뛰어넘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월셔은행은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중심에 한인들을 위해 세워진 최초의 은행으로서, 35년간 미주한인들과 함께 교감하고 함께 꿈을 이루어 나가는 든든한 파트너로 성장하였습니다. 좋은 은행은 최대수익 창출로 경제발전에 이바지 합니다.

하지만 최고의 은행은 경제적 이윤 창출이라는 기업 본연의 목표 이외에도 고객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꿰뚫어 파악하고 고객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안내하며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은행이 나아가야 할 길은 한인 및 금융서비스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주변 타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성장을 돕는 것 입니다.

모든 성공의 비결 뒤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 인종이 근무하는 미주한인 기업에는 서로 다른 그룹들을 모두 포용할 특별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로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소통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확고한 원칙을 세우고 따르며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며, 이로 인해

직원들과의 신뢰를 쌓고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어 교감을 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성공의 비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스타벅스의 성공비결은 고객만족, 품질경영, 업무표준화 등 많지만 무엇보다 일하는 사람이 가장 만족하는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도 월셔은행이 계속 성장,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탁월한 경영진들과 열정적으로 뭉친 직원들간의 팀웍이라 평가합니다.

성공하는 기업의 리더는 방향제시와 함께 특색있는 자신만의 고객 서비스로 무장해야 합니다. 계획없는 목표는 한낱 꿈에 불과하다는 말처럼, 기업은 항상 목표를 향해 도전하는 정신을 새겨야 한다고 믿습니다. 확고한 공동체의 목표를 가지고 모든 직원들을 응원하며 같이 나아가는 길이 올바른 리더의 자세이며 다같이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正道(正道)입니다.

현 세대를 이끌어 나갈 리더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고객의 요구에 한발짝 앞서 나가는 특별한 고객 서비스를 추구해야 합니다. 최고의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의 말을 인용하면, 리더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미래를 파악'하고 기업의 목표를 정해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흠린 한 번을 치기 전에 수많은 스트라이크아웃이 있듯이, 성공은 결코 처음부터 눈앞에 있지 않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결코 한마디로 정의될 수 없는, 끈질긴 노력과 끊임없는 발전입니다.

그러므로,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월셔은행 또한 여러번의 경제 불황을 넘길 때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자라는 것을 보충하며 나날이 발전하여 오늘날 미주한인사회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곳 미국 대륙에 내린 든든한 뿌리위로 눈부시게 성장한 미주한인사회의 일원 모두가 한인커뮤니티 뿐 아니라 미국 주류사회 속에서 존경받는 훌륭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고석화**  
월셔은행 이사장



## 3권 분립형 기업 지배구조와 기업의 성과



노광길

한미은행은 1982년 12월 15일, 미국내 순수 한인 자본으로는 최초로 설립된 자랑스러운 미주 최초의 한인 은행으로, 지난 33년동안 한인 커뮤니티 고객님들이 어메리칸 드림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렸으며, 이제는 전 미국 9개 주에 46개의 지점과 6개의 대출사무소 (Loan Production Office)를 가지고, 다양한 아시안 커뮤니티 고객들을 모시는 은행으로 성장했습니다. 필자는 한미은행 출범 직후인 1983년에 이사로 영입되어 한미 은행과 한미 홀딩 컴퍼니의 이사로 재직해왔으며 현재는 이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기업은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부의 창출’이라는 역할을 합니다. 오랜 세월 한미은행의 이사로 지내면서, 필자는 기업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특히 3권 분립형 기업 지배구조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력을 목도해왔습니다. 기업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란 기업 운영과 관련되는 여러 이해 당사자 즉, 주주, 경영자, 종업원 간의 책임과 권한의 구조를 뜻하는 말로서, 기업의 조직과 권한의 분배를 의미합니다.

세계적 컨설팅 회사 맥킨지 (McKinsey & Co.)가 세계 각국의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투자결정에 있어서 기업의 현재 가치 및 재무관련 지표 이외에 무엇보다도 기업 지배구조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혔습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지배구조가 잘 된 기업에는 기꺼이 프리미엄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하였고, 응답자의 63%는 잘못된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회피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양적 요소를 뛰어넘는 기업의 질적 요소로서의 기업 지배 구조의 중요성과, 기업의 가치가 지배 구조와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기업의 지배 구조에는 한 가지로 일축되는 ‘정답’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자의 오랜 경험에 비추어 볼때, 3권 분립이라는 기업 지배 구조가 가장 합리적인 기업구조라고 믿습니다. 정치 체제가 행정, 입법, 사법이라는 3권 분립을 통해 운영되어 가듯이, 기업의 지배 구조 역시 이사회와 경영진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기업 경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지켜나가야 하는 3권 분립의 체제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독과 계획의 역할을 하는 이사회 (입법부 역할), 전문 경영인인 최고 경영자, 즉 은행장을 필두로 한 경영진 (행정부 역할), 그리고 견제와 균형 또는 일종의 감시의 역할을 하는 내부 감사위원 (사법부 역할), 이 세가지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3권 분립형' 지배 구조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각각의 부서는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되, 상대 부서의 권한과 직책을 존중 하면서, 탄탄한 협조적 관계를 균형있게 유지해 나가야만 합니다. 3권 중 한 쪽이라도 제 기능을 다 못하면 지배구조 삼각형의 안정적 구조 역학은 깨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초 엔론, 월드컴 등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회계 부정으로 패망하게 된 사례도 3권 중 사법부의 역할을 해내야할 기업 지배 구조 부문이 그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못한 안타까운 일례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3권이 각각의 영역에 충실하면서도 동시에, 공동의 목표, 즉 기업가치를 증대시키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여가는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데, 한 마음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의 조직이 바르게 세워지고 건강한 성장을 이루어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3권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서로 질시하고 경쟁심을 갖거나, 서로의 업무 영역을 존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침해한다면 조직에는 큰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남가주의 교포 사회에서도 다수의 은행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임원진 영입, 인사 등의 문제로 내부적으로 3권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불협화음을 냄으로써 은행 조직 전체에 화를 부르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사권을 가진 행장이 꼭 필요한 경영진 자리에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려 하는데, 이사회 (혹은 이사장)의 반대로 채용하지 못한 경우, 또 내부 감사위원의 임용에 이사회(이사장)의 승인 없이 경영진이 단독으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 등입니다. 이는 분명 권한의 침해입니다. 건강하고 조화로운 기업 지배구조는 기업의 성장 및 발전, 그리고 기업 가치를 극대화 시키는 원동력이라 하겠습니다.

광복 70주년이라는 가슴 벅찬 역사적인 기념일을 맞이하여, 이역만리에서 우리 고국 대한민국의 이름을 빛내 준 수많은 자랑스러운 동포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두고 온 고국과 미주 한인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를 기원하고 소망합니다. 끝으로,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가는 한미은행에 꾸준한 성원 부탁드립니다.

**노광길**  
한미은행 이사장

## 직원이 주인같은 마음으로



유승원

어느새 미국에 온지 35년이 됐다. 돌이켜보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됐는지 한편의 드라마와 같다.

달랑 300불을 가지고 미국에 왔으니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는가.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곳에서 처음부터 시작이 고행이었다. 당장 의식주 해결이 급선무였다. 닥치는 대로 일하고 싶었지만 말이 통하지 않으니 그것부터 막막하기만 했다.

그래도 이곳까지 온 이상 살아야 하는 현실 앞에 순응하기로 결심하고 첫 직장으로 봉제공장에서부터 시작했다.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노동인 뒷일부터 시작했다. 아내는 바느질을 배워가며 악착스럽게 일했다.

그렇게 좋아하는 백화점에서 제대로 된 옷 한 벌 구입하지 못하고 여행 한번 가지 않고 3년 동안 저축한 3만 불 정도와 친지의 도움으로 직원이 30명 되는 봉제공장을 인수해 경영하게 되었다. 그 기쁨은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었다.

처음엔 시행착오도 많아 어려움이 있었다. 그 때마다 한국사람 특유의 끈기와 노력이 나에게도 있어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다.

3년이 지난 뒤 주로 유니폼 전문에서 청바지 전문으로 탈바꿈하게 됐다. 공장도 넓은 곳으로 옮겼다. 청바지 제조 기계 자체가 일반 기계와 다르니 거기에 맞는 기계를 구입하고 직원의 수도 70여명에 달했다. 그때부터 나는 12시간 이상씩 일하며 악착같이 공장을 세워갔다.

오늘에는 600여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진 마트로 발전했다. 어려웠던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눈물과 환희의 연속이었음에 한편의 드라마와 같다고 말하는 것이다.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았던 때가 여러 번이었다. 몇 번이고 공장을 그만두려고 마음먹었지만 그 때마다 나에게 큰 힘이 되어준 아내를 잊을 수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공장 간의 경쟁이 심해졌다. 그런 가운데 성공 할 수 있

있던 것은 나름대로 나의 경영 철학이 주효했던 것 같다.  
봉제 공장은 원청 업체와의 신뢰가 있어야 한다. 정해진 모든 약속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나에게 남는 이윤이 적다하더라도 정성껏 납품기한 내에 정확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경영철학 이었다. 모든 제품이 그렇지만 특히 청바지는 치수가 정확해야 고객이 입을 때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 때 제품의 가치가 생기게 되어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다. 이것이 원청업자와 믿음의 관계이고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된다.

이러한 제품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한 뼘 한 뼘 기워가는 숙련된 직원의 마음이 주인과 같아야 이를 수 있다. 숙련된 직원일수록 철새처럼 떠돌아다니며 일한다.

그들이 오랫동안 함께 일하게 하려면 먼저 작업하는 직원이 편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이 좋아야 한다.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족같아야 꿈을 부리지 않고 다른 공장으로 옮겨가지 않아 작업 능률을 올릴 수 있다. 대부분의 직원은 작업량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기에 더더욱 그렇다.

직원이 주인 같은 마음으로 일해야 온전한 제품이 생산된다. 일할 만큼 충분한 급여가 우선이다. 그렇게 하려면 최대한 쉽고 빠르게 무엇보다 정확하게 일 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 뿐만 아니라 최신기계 도입이 중요하다. 나만이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계속해서 최신 기계를 구입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함께 더불어 돈 번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기에 직원과 나와 한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며 작업하니 원청업자의 마음에 들 수 밖에 더 있겠는가.

때로는 서로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가족처럼 되니 누구 하나 쉽게 공장을 떠나지 못한다. 직원에게 주인 의식을 갖게 하니 더 많이 이해하고 내 일처럼 한다. 이제는 직원 모두가 내 가족처럼 의지하며 일한다. 나의 경영 철학은 나만이 공장 주인이 아니라 직원과 더불어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여 더불어 공장을 경영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다.

지금은 저 보다 경기가 좋지 않아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은 모두가 내일처럼 생각하고 이해하며 일하니 불황도 이겨낼 힘이 생긴다.

더불어 산다는 아주 지극한 행동이 어느새 나의 경영철학이 되어버렸다.

**유승원**  
진마트 사장



## 미국에서의 성공적인 자녀교육



차종환

다른 민족도 그렇겠지만 우리 한인들이 미국에 정착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중 하나가 보다 성공적인 자녀교육을 미국에서 시키기위해서라고 하면 부정할 사람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우리처럼 자녀교육에 온힘을 기울이는 민족도 많지 않을 것이다.

오죽하면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인들의 교육열을 높이 평가하고 대중 앞에서 되풀이하고 있지 않는가.

자녀교육이 쉽지않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더욱이 우리같이 낯선땅에 와서 생계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않고 뛰어야 하는 이민 1세대에게는 성공적인 자녀교육이 얼마나 힘든지 다 아는 사실이다.

생계유지를 위해, 좋은 교육구의 집 마련을 위해 뛰다보면 자녀교육에 할당해야하는 시간을 거의다 뺏기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핑계만 대고 있을 수도 없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아이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배움의 시간이 되고 있다는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대개 부모가 담배 피우면 자녀도 담배 피우게 되고 폭행을 하면 따라 하게 되고 거짓말하면 자녀도 거짓말하게 되기에 며느리 얻을때 사위 구할때 돈보다 가정교육을 우선시하라고들 한다.

필자의 아이들이 의사, 검사, CPA가 된것은 완전히 그들 자신의 개성에 의한 선택이었다.

장남은 어려서부터 의사가 되겠다는 집념이 강했다. 16살에 처음 자동차를 사주었더니 자동차 번호판에 DR. Cha 라는 이름을 달고 다녔다. 왜 Dr. Cha라고 했느냐 물으니 장차 의사가 되겠다는것이다.

어려서부터 승부욕이 대단했다. 학교 성적뿐 아니라 모든면에서 남에게 뒤지고는 못견디는 아이로 성장했는데 그런대로 의사가 되고 골프도 즐기며 3남매를 두고 잘살고 있다.

둘째 아들은 경영학을 한다더니 법학으로 마음을 돌렸고 지금은 LA시 부장검사로 바쁘지만 보람찬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딸은 대학원에서 노인학을 공부한다더니 오빠는 의대, 동생은 법대가는 것에 자극을 받아 CPA 공부를 해서 Fox TV (채널 11) 부사장 까지 승진하여 열심히 일하다 지금은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고 있다.

아이들에게 무슨 전공을 택하라고 하지 않고 저희들이 결정해서인지 직업에 대한 불만들이 없이 열심히들 일하고 있다.

여기에서 잠깐 유태인들의 자녀교육을 살펴보자.

자녀교육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누가 무어라해도 유태인들이다. 유태인 중에는 저명인사가 많다. 이들의 유명인사를 보면 과학자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심리학자 프로이드, 음악지

휘자 번스타인, 그리고 로스차일드와 몰간 같은 재벌이 있고, 한때 세계를 주름잡던 미국의 전 국무장관 키신저 같은 거물들이 수두룩하다. 이처럼 동서고금에 걸쳐 문화,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의 정상을 차지했던 유대인은 놀랄만큼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현재 미국에선 전인구 중에 차지하는 유대인의 비율은 불과 3퍼센트에 불과하지만 전미국 유명 대학의 교수중 30퍼센트가 유대인이며 세계각국에서 뽑히는 노벨상 수상자 중 약 15퍼센트가 유대인이다.

이러한 유대인 특유의 실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유대인의 두뇌가 예로부터 뛰어났기 때문이 아닐 것이다. 민족에 따라 태어날때부터 두뇌의 우열이 있다고 한다면 벌써 이 세상은 머리 좋은 민족에 의해 지배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다른 민족보다도 우수한 인재를 배출해온 것은 그들의 자녀교육 방법이 다른 민족의 교육 방법과 상이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유대인의 육아교육이나 버릇 가르치기,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독자적인 생각과 방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그럴것이 유대 5천년의 역사는 그 대부분이 박해받는 역사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기까지 유대인은 오랜 세월을 조국없이 떠도는 유랑 민족이었다. 땅도, 돈도, 지위도 유대인을 지켜주지 못했다.

따라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자기의 머리속에 쌓아둘 수 있는 지혜나 지식뿐이었다.

영어의 Jewish Mother 라는 말은 여러가지뜻

을 가졌는데 그 하나가 ‘아이들에게 학문의 필요성을 귀 아프게 알려주는 극성스런 어머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어머니들은 한국의 극성스런 ‘교육 어머니’들과는 조금 다른 것 같다. 가령 이웃집 아이가 피아노를 배운다고 해서 우리집 아이에게도 피아노를 배우게 하거나 다른 아이들이 모두 일류학교를 목표로 공부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에게도 같은 일을 요구하는 일이 없다.

늘 아이들옆에 붙어서 “남보다 뛰어나라, 다른



아이보다 앞서라”하고 부채질하며 공부를 재촉하지도 않는다. 피아노는 자기가 배우고 싶다면 배우도록 해줄 뿐이다. 우선 어느 학교가 ‘일류’인지도 유대인들은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 또 한국의 어머니들과 같이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때부터 벌써 대학은 어디로 보내겠다고 원대한 계획을 세우는 부모는 찾아보기 힘들다.

유대인이 늘 입에 담는말 중의 하나가 ‘아인슈타인은 8세까지 열등아였다’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이라면 물론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세계적 물리학자 앨버트 아인슈타인을 말하며 그는 유대인이다. 그러나 어렸을때의 그는 말을 늦게 배웠으며 4세까지도 부모는 그가 ‘저능아’라고 믿고 있었다고 한다. 학교에 들어가서도 머리가 잘 돌아가지 못했으며 그뿐만 아니라 친구하고도 어울리지 못했기 때문에 1학년 담임 교사는 생활기록부에 ‘이 아이에게는 아무 지적 업적도 기대할 수 없다’고 썼다고 한다. 마침내 교사는 그가 교실에 있으면 다른 아이들에게 방해가 되니 학교에 보내지 않았으

면 좋겠다고 부모에게 말할 정도였다고 한다.

유태인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는 저마다 개성이 있으므로 어느 아이도 획일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저마다의 개성에 따라 긴 안목으로 보아 주고 싶다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유태적 교육 어머니'의 방식인 것이다. 유태인 어머니들은 자기 자녀가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배우고 Stereotype에 끼어드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자라는 것이 그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좋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우열을 다루게 된다면 승자는 언제나 소수이기 마련이다. 그러나 저마다 남과 다른 능력을 갖게 된다면 모든 인간은 서로를 인정할수 있고 공존할 수 있는 것이다.

유태인의 어머니들은 자기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어디가 다른가를 찾아내서 그것을 키워주는데 마음을 쓴다.

아이들은 개성에 따라 성장하고 서로를 아끼는 관계를 일생 지속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형제의 두뇌비교는 양쪽에 해가 되나 개성의 비교는 양쪽의 발전이 된다고 믿는다. 남보다 우수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다른사람과 다르게 되라고 교육시킨다.

아이들은 일찍부터 그의 개성,소질 ,독창성이 인정되고 발전되도록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학교에서는 빛을 보지못한 아인슈타인이지만 집에만 오면 늘 자신을 격려해주고 무엇이건 생각하게 하는 부모님을 대할 수 있었다.

특히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아들편이되어 학교공부에서 뒤진 부분을 만회할수있다고 늘 자신있게 강조했다. 그의 어머니의 교육철학은 남보다 우수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되라고 아들의 개성을 파악하고 개성을 중

시여겼다.

아인슈타인은 토막지식을 잘외워서 시험이나 잘치르는 공부라 아니라 혼자서 생각하고 추리하며 상상하는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그의 어머니는 잘알고 있었다.

이와같은 어머니의 사랑, 자신감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격려하는 가정교육, 그리고 개성을 존중하는 그것을 최대한으로 길러주는 부모의 태도가 상대성이론을 발견한 세계적 물리학자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학교 성적으로 자식들을 평가하며 학교 성적이 나쁘면 절망하는 한국 학부모들이 본받아 할 교훈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은 개성이 있고 이 개성이 학교 공부에 모두 적합한 것은 아니다.

어떤 아이는 산수는 잘하는데 국어를 못하고 국어는 잘하는데 수학에 약한 학생도 있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각각 다른것처럼 능력, 성격, 태도등에 있어서도 자기나름의 독특한 개성을 지니고 있다. 이 개성이 최대한으로 개발되고 신장될때 개인의 진가가 나타나는 것이다.

부모가 설정한 틀에 들어가도록 하는것은 개성을 죽이는 것이다.

결국 이로인해 한사람의 소중한 장점을 사장시키는 수가 많다. 개성과 적성을 고양시켜야 한다.

획일적인 교육방법, 남과 같이 되라고 하는 교육 방법은 지양되어야 한다.

**차종환**  
한미교육연구원장

## 유대인의 성공과 유대인 사회



이 철

LA에서 홈데포(Home Depot)나 기타 건축물 재료상에 가면 파킹장에서 일당을 벌기위해 기다리는 라틴계 노동자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 미국의 유대인들도 막노동판에서 지금의 라티노들처럼 손을 흔들며 “나를 써달라”고 하소연하던 시절이 있었다면 누가 믿을까.

1890년대에 러시아와 폴란드에서 쫓아져 들어온 유대인들이 뉴욕의 다운타운에서 오늘의 LA 히스패닉 빈민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생존투쟁을 했던 광경이 여러 가지 기록에서 나타나 있다. 당시 러시아에서는 유대인 대학살이 진행되고 있었다. 유대인들이 러시아인 되기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전통생활을 버리지 못하자 러시아는 유대인 가정을 돌아다니며 어린 소년들을 무조건 납치하여 러시아 사병훈련소에 입소 시켰으며 이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은 전가족을 처형하는 잔인함을 보였다. 이 때문에 공포에 질린 유대인들의 러시아 탈출이 시작되어 러시아 유대인의 3분의 2가 미국의 뉴욕으로 몰려 들었다. 그런데 이들은 러시아 농촌의 빈민출신이라 대부분 문맹이었다. 미국에 이민 왔지만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다. 막노동판에서 하루 일해 하루 벌어 먹는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들이 일한 곳은 주로 봉제공장이었다. 아버지와 딸은 봉제공장에서 일하고 어머니는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재봉틀을 놓고 일하는 것이 당시 뉴욕 유대인 가정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이때부터 유대인이 봉제업계를 장악하게 되었고 오늘의 미국의 섬유업계에서 유대인이 우뚝 서

있는 기초가 이때 닦아진 것이다. 미국에 이민온 각 민족들의 이미지가 있다. 중국인하면 세탁소와 철도노동자다. 일본인은 농장일꾼이나 정원사, 코리언은 세탁소와 리커스토어 주인이고 이탈리아인은 거리 야채상인과 마피아다. 유대인의 초기이민 이미지는 무엇이었을까. 거리행상인(peddler)과 봉제공장이다. 1820년대 독일에서 이민 온 유대인은 대부분 거리행상이 직업이었다. 서부활극 영화를 보면 말이나 당나귀에 빗, 수건, 가구수리연장, 여자화장품등 잡화를 싣고 다니며 물건을 파는 행상인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었다. 독일계 유대인들은 행상에서 양복점, 구두가게등으로 사업을바꾸면서 60여년만에 급성장, 메이시, 시어즈 로박같은 대형 백화점을 세워 유대인 경제력을 과시했다. 무엇보다 독일계 유대인은 미국화 되려고 노력 했으며 도네이션과 커뮤니티 봉사에 앞장섰다. 그러나 미국에서 독일계 유대인이 인종차별 받지않고 정정당당한 미국시민으로 대우받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익어갈 무렵 갑자기 러시아와 폴란드등 동구로부터 유대인 이민이 쏟아져 들어 오기 시작했다.

이들은 독일계 유대인과는 너무나 달랐다. 빈민인데다 문맹이 었다. 언성이 높고 행동이 거칠어 미국주류 사회로부터 냉대를 받았다. 드디어 반유대인 정서가 미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요즘 도널드 트럼프가 멕시코에서 저질 이민이 몰려온다고 아우성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유대인 차별 분위기가 조성되었



다. 앵글로색슨들은 러시아계 유대인을 배제하기 위해 구인광고에서 “사람 구함, 크리스찬에 한함”이라는 문구를 집어 넣었다.

가장 당황한 것은 먼저 정착한 독일계 유대인들이다. 이들은 미국에서 반유대인 정서가 형성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불안해 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반유대인 무드 때문에 자신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너무나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유대인 사회는 독일계와 러시아, 폴란드계로 완전히 갈라졌다. ‘가진자와 못 가진자’ ‘지식인사회와 문맹사회’ ‘미국화 이민과 비미국화 이민’으로 유대인 커뮤니티가 두 쪽이 나 버렸다. 뉴욕에는 빈민들이 거주하는 ‘다운타운’ 유대인과 부자들이 사는 ‘업타운’ 유대인이 완전히 사회계급으로 구분 되었다. ‘업타운’ 유대인이 ‘다운타운’ 유대인과 결혼하는 것을 큰 수치로 여길 정도였다. 다운타운 유대인촌은 러시아 빈민촌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한 방에 8명의 가족이 거주하고 위생시설도 엉망이었다. 아마 남북통일이 되어 북한주민을 미국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나 오늘의 뉴욕 정계와 교육계, 월가를 주름잡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다. 팔시반던 러시아계 유대인 후손들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유대인은 한국이나 일본처럼 단일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이 유대인으로 불리우는 것은 유대인 문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대인 문화는 토라(성경)와 탈무드로 이루어져 있다. 토라와 탈무드를 배우는 것은 유대인 종교생활에서 예배이상으로 중요하다. 세계최초로 의무교육을 시작한 것은 유대인이다.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성경과 탈무드를 어떻게 해석 하느냐의 교사가 필요 했다. 랍비가 곧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을 가르치는 선생이다. 유대인

은 가는 곳마다 차별을 당했기 때문에 “배워야 산다”는 철학이 몸에 배인 민족이다. 그래서 유대인은 교육자를 가장 존경한다. 뉴욕중고등 학교의 교사 40%가 유대인이며 하버드 대학 교수진의 30%가 유대인이란 사실이 이를 뒷받침 한다. 미국 노벨수상자의 4분의 1이 유대인이다.

유대인이 얼마나 교육을 중요시하는가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다.

서기 69년 베스파시아누스 사령관이 지휘하는 로마군은 유대인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 앞에 다달았다. 베스파시아누스는 예루살렘을 불사르고 신전도 없앨 방침이었다. (이 전쟁에서 불타고 남은 유대인 신전의 벽이 오늘의 통곡의 벽이다). 이때 유대인 사회의 정신적 지주였던 랍비 벤 자카이는 유대인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다. “로마인이 파괴할수 없는 것을 유대인이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칼보다 강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교육이다”라고 벤 자카이는 결론을 내렸다. 로마인은 후손에게 칼을 물려 주겠지만 칼은 칼로서 망하기 마련이다. 유대인들은 칼보다 더 강한 훌륭한 교육을 자손들에게 물려준다면 먼 훗날 유대인이 로마인을 이기게 될 것이다. 벤 자카이는 예루살렘을 몰래 빠져나가 로마 사령관 베시파시아누스를 만났다. 그는 베시파시아누스를 만나자마자 장군이라 부르지 않고 ‘황제’라고 호칭했다. 베시파시아누스는 “왜 나를 황제라고 부르느냐”고 물었다. 벤 자카이는 “나는 미래를 보는 눈이 있는데 당신이 곧 로마황제에 오를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자 로마사령관은 희색이 만면해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벤 자카이는 로마군이 유대학자들이 집결해 있는 교육도시 야브네를 파괴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베시파시아누스는 별것 아닌 것

으로 생각하고 학자인 벤 자카이의 청을 쾌히 들어 주었다. 다음날 로마군은 예루살렘과 주변 도시를 모두 불살랐지만 야브네만은 안전했다. 여기에서 살아남은 학자와 랍비들이 그 후 엘리트들을 길러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 베시파시아누스는 벤 자카이의 예언대로 로마황제에 올랐으며(아우구스투스 황제) 선정을 베풀고 로마 콜로세움을 짓는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

교육은 디아스포라의 운명을 지닌 유대인들에게는 생명줄이며 생존비결이다. 뉴욕의 러시아계 유대인들은 봉제공장에서 노동하면서 전력을 다해 자녀들의 교육에 열중했다. 이 점이 이탈리아 이민들과 다르다. 이탈리아 이민들은 자녀들이 집안 일을 돕지않고 대학에 가겠다고 하면 불효자로 취급했다. 오늘의 뉴욕에서 유대인 커뮤니티와 이탈리아 커뮤니티의 차이는 부모들의 2세 교육열이 가져온 결과다. 미국에서 유대인의 소득은 미국인 평균소득보다 74%나 높다. 부자도 많지만 의사, 변호사, 교수 등 프로페셔널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어떤 직종이든지 전문적인 지식이 많으면 남보다 대우를 받기 마련이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유대인학자 피터 드러커는 “기업의 성공여부는 소유주가 직원을 얼마나 잘 교육 시키느냐에 달려있다”고 정의 했는데 이는 다분히 유대인적 사고 방식이다. 사원과 종업원이 돈 벌어주는 것이지 주인 혼자 뚝뚝해서는 푼돈 밖에 못번다는 소리다.

미국에 이민온 코리언들도 자녀교육에 열심이지만 유명대학에 진학 시키기 위해서이고 일종의 과시용이다. 그래서 고교때에는 우수한 성적을 보이던 자녀들이 대학교에서는 졸업하기도 힘들 정도로 나태해진다. 교육자를 존경하고 학문자체를 사랑하는 유대인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학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출세하는 수단으로 대학에 가는 것이다. 이래서는

노벨상 받는 한인2세가 나오기 힘들다. 유대인과 코리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동업이다. 유대인은 동업을 성공의 지름길로 여기는데 코리언은 동업을 못한다. 디아스포라를 겪은 유대인들은 ‘뭉치면 살고 헤치면 죽는다’는 자세를 정치뿐만 아니라 사업분야에서도 철저히 유지하고 있는데 한인사회는 뭐든지 둘로 갈라져 힘을 쓰지 못한다. 스스로 커뮤니티를 약화 시키고 있으며 가장 심각한 것은 그와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고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신적 유대를 이어주는 유대인 사회의 랍비와 같은 존재가 없다. 저마다 제각각이다. 우리가 유대인사회에서 배울점이 무엇인가. 유대인의 부가 아니다. 정신문화다. 이들은 탈무드를 통해 자신들의 선조가 다른 나라에서 어떤 역경을 겪었는지,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 했는지의 지혜를 배우고 있다. 이들은 칼 보다는 부, 부 보다는 지식, 지식보다는 지혜가 더 값지다는 것을 2세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궁극적으로 성공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열심히 공부하는 민족이다.

이 철  
한국일보 미주본사 고문

## HMO 보험은 메디컬 그룹 선택이 최고 중요



차민영

여러분들 중에도 HMO보험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HMO보험을 가지신 분들 중에는 이 HMO보험에 대한 선호도가 극과 극으로 서로 다르게 말하고 있다. 꼭 같은 A라는 HMO보험에 대해서도 어떤 분들은 “이 HMO보험은 최고로 안 좋은 보험이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분들은 “이 HMO보험은 최고로 좋다.”라고 말한다.

왜 같은 A라는 HMO보험인데 이렇게 다른 의견이 나올까? 이제 여기서 HMO보험에 대한 비밀과 이 HMO보험을 최대로 활용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고자 한다.

HMO는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의 약자이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United Health Care, Blue Cross HMO, Blue Shield HMO, Aetna HMO, Health Net, Easy Choice 등이 HMO회사의 예이다.

이 HMO보험은 자기의 주치의를 한 명 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 주치의를 통해서만 모든 의료가 이루어진다.

즉, 자기가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심장 내과 등등 각 과의 전문의를 필요에 따라 찾아가고 싶으면, 꼭 주치의와 상의하여야 한다.

그래서 주치의가 이러한 각 과 전문의에게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환자가 속

한 Medical Group(=IPA)에 이것을 신청하여(TAR신청 이라고 함)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것을 Referral 허락을 받는다고 한다.

이때 이 Medical Group이 환자가 각 과 전문의에게로 보내줄 수도 있고, 안 보내줄 수도 있다. 즉, 이 Medical Group이 환자 Referral에 대한 100% 권한을 가지고 있다.

Blue Cross, Blue Shield, Aetna, Cigna, Easy Choice 등 HMO회사는 Referral에 대한 권한이 전혀 없다. 이것이 HMO보험을 이해하는 핵심 지식이다.

많은 분들이 이 HMO 보험 회사가 직접 Referral 해주든지 거절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각 과 전문의에게 안보내 준다고 불평하거나,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초음파 검사, CT나 MRI를 해보고 싶은데 허가가 안 나올때, “아.. 이 HMO보험 정말로 짜증난다”하고 하면서 불평을 하는데 이것은 100% 잘못 이해한 것이다.

그 사람은 자기가 속한 Medical Group 즉 IPA에게 짜증을 내거나 불평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Referral 하거나 거절하는 권한이 100% Medical Group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 Medical Group이 쉽게 Referral을 허락해 주면 될텐데, 왜 안해



주는가?”하고 질문을 한다.  
그 대답은 “Money Issue!”이기 때문이다.  
즉, Medical Group이 Referral을 허락해 주는 순간 Pay할 의무가 100% 생기기 때문이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설명해 보겠다.  
Medical Group은 HMO보험회사와 일종의 보험 하청 계약을 맺는다.  
즉, 환자 1인당 약간의 돈을 건네 받고 이것으로 그 환자에 대해서 병원에 입원 치료하는 이외의 경우에는 거의 전액 치료를 책임진다는 계약을 맺는 것이다.  
즉, 메디칼 그룹이 하청 받은 보험회사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환자가 B라고 하는 Medical Group에 들게 될 때, 이 환자의 모든 검사 비용, 각 과 전문의 치료 비용을 전부 책임지는 것이다.(만약 이 환자가 큰 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그 때는 그 HMO보험회사가 치료해 준다)

그러므로 이 Medical Group을 잘 선택하면 이 환자는 정말로 Happy하게 모든 치료를 잘 받게 되고, 반대로 잘못 선택하게 되면 대단히 힘들게 된다. 한국 환자들에게 가장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HMO보험의 비밀을 잘 알고 있는 필자와, 또 뜻을 같이 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23년 전에 서울 메디

칼 그룹을 만들었다.(필자가 회장으로 있음.)  
그리하여 70명의 한인 주치의 선생님들과 300명의 전문의 선생님들을 규합하여, 한인 여러분들에게 23년 동안 대단히 만족스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Referral 허가 비율의 90~95%를 유지하고 있다.  
(다른 많은 Medical Group은 7일 이상 기다려야만 하며, 거절이 되는 경우도 자주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Easy Choice, Central Health, Care 1st, Blue Cross, Health Net, United Healthcare, Blue shield, Aetna, Cigna 등등 HMO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Seoul Medical Group으로 바꾸어서 여러분의 건강 혜택을 최고로 받으시길 바란다.

Medical Group이나 주치의는 한달에 한번 꼴로 바꿀 수 있다.(많은 분들이 Medical Group이나 주치의를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잘 못 알고 있다.) 필자에게 문의한다면 상세히 알려 주도록 하겠다.

의학박사 차민영  
내과의사



## 남가주한인간호사협회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of Southern California



김혜자

한국전쟁 후 모국의 사회, 정치적 혼란과 열악한 경제상황 등등의 이유로 1960년 후반기에 많은 간호사들이 정다운 가족들을 뒤로하고 해외로 진출했다.

그 중 상당수의 간호사들이 로스앤젤레스와 인근 지역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나름 일하면서 열

1970년대에는 협회 주관으로 나성중앙교회에 RN Review Class를 마련하여 많은 한인들이 RN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왔다. 비교적 고수입의 안정된 직장을 갖는 이들 한인간호사들이 이곳과 고국에 있는 가족의 가정경제에 크나큰 기여를 했다. 의료현장에서 익힌 선진 간호지식을 고국에 전하기도 하고 또 한



간호사 교육  
매부 1, 3째주 수요일, 노인회관 2층



Nursing school guide and Nursing career workshop  
(2015. 4. 8 Hollywood Presbyterian H)

심히 자격시험 준비를 했지만 정보 부족과 비효율적인 개별학습으로 자격취득이 생각만큼 쉽지 않음을 깨닫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단체학습의 필요성과 이를 주관할 단체 결성을 절감하고 있었는데 마침 1969년 대한간호협회 홍신영 회장의 로스앤젤레스 방문을 계기로 40여명의 간호사에 의해 남가주한인간호사협회(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of Southern California)가 정식으로 발족하게 되었다.

편으로는 미국 주류사회에 한국을 알리는 민간외교관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냈다.

회원수가 많아지면서 더 나은 회원봉사를 위해 그리고 보다 큰 규모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체 건물이 반드시 있어야 했기에 모금행사를 했지만 여건이 허락치 않아 건축 기금을 장학기금으로 전환하여 매년 수혜자를 일정수 정하여 수여해 오고 있다.

또한 이때부터 지역 사회 봉사 활동의 일환으로 Health Fair를 1년에 2회 내지 3회씩 시행하고 있다.



김혜자 회장 2년 임기 취임식  
(2015. 1. 17)

2013년부터 남가주 노인센터에서 임원이나 회원들이 월 2회 건강관리 강의를 하며 공중 보건교육에 힘쓰고 있다.

1980년대에는 고국의 심장병 어린이와 미국 병원과 연결해 그들이 이곳에 와서 심장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주는 가교역할을 했으며 이와 더불어 ICN총회 기금을 마련하고 참가하여 외부세계를 향한 발돋움의 시작하여 고양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국제적 network의 물꼬를 트게 되었다.

1990년대에는 LA 4.29 폭동 때 피해를 입은 동포들의 상처를 천사의 마음으로 온갖 정성을 다하여 따뜻한 손길로 치유해 주고 또 그들의 쓰라린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1980년대에 시작한 국제학술대회를 계속 참가하고 회원들을 위해 자체 Continuing Education Class를 개설했다.

2000년 초에 한국 내 간호사들의 해외 진출이 소강 상태가 되었기에 RN Review Class를 단았다. 한인이민 100주년 기념행사와 해외한인간호사 50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하고 협회의 Website를 열었다.

2010년대에 들어와 Community Service 규모가 커지고 이에 따라 인근 Nursing School과 협력하여 공중보건학 수강 학생들이 자원봉사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2012년에 한국방송 통신대학교와 MOU를 체결하여 한국에서 BSN을 취득치 못한 한인간호사들에게 2년간 위성을 통한 BSN Program online 강의를 성공적으로 이수하게 함으로써 이의 취득을 가능하게 했다.

21세기에 이르러 새로운 의료환경의 대두로 말미암아 간호 개념도 바뀌고 있는 까닭에 Social Network를 활성화 하여 여러 다른 전문영역에서의 지식과 실무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자기성장 발달을 모색하고 지역사회 건강에 이바지하는 전문 간호인이 되도록 하고 있다.

1.5세대와 2세대 간호사들의 협회 가입 유도 및 기성세대 간의 언어, 문화면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Youth group leadership program을 개발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Community 발전에 기여하며 한민족의 위상을 높이고 협회를 대외에 널리 알리는데 힘쓰고 있다.

**김혜자**  
제23대 남가주한인간호사협회 회장

## 미주한인사회의 보수와 진보는 함께 해야 한다.



이병도

광복 70주년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의 구호 아래 한인사회의 보수와 진보의 화두를 짚어 보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보수는 보통 전통적으로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면서 이를 가꾸어 나아갈때 보다 나은 사회를

전쟁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좌익과 우익의 논리로 진행되어 왔다.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행태로 손가락질하며 상대를 서로 적대시하며 상호 비아냥하는 현실에 직면하면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보는 성향이다. 진보는 사회를 보는 관점이 보다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실에 안주하기 보다 개혁과 변혁을 도모한다.

우리 한인사회는 주류사회와는 달리 건강한 보수와 따뜻한 진보의 개념보다는 가장 경계 대상인 극우와 극좌적인 성향을 보일 때가 있다. 즉 6.25한국전쟁의 병리현상중의 하나인

이제 광복70년, 분단 70년을 맞이하여 이 양극단의 행태는 더 이상 이 한인사회에서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 오히려 포용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주변의 주류사회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회에서는 각자 자유스럽게 보수(Conservative)와 진보(liberal)를 선택하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입장을 말하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서로 다른 정치 성향으로 남편은 보수, 아내는 진보, 아들은 진보, 딸은 보수 등으로 나뉘기도 한다. 어느 가정은 모두가 보수 혹은 진보라고 대답하기도 하고 또는 당으로 구별한다면 공화당 혹은 민주당 지지를 각자 다르게 표명하는 것을 스포츠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구단을 응원하듯 한다. 또한 무당파를 자처하며 중도를 지향하는 개인과 가정 그리고 그룹도 흔히 볼 수 있다.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필요 충분조건으로 건강한 보수와 따뜻한 진보가 정반합의 과정을 통하여 융합하는 윈윈(Win-Win)의 아젠다(Agenda)를 개발하여 각 진영이 사심없이 수용하길 희망한다.

광복70주년, 분단 7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한인사회도 변해야 한다. 어떻게 변해야 할까. 주류사회처럼 이념적으로 보수와 진보 그리고 중도를 선택하고 표현하는 보다 다양성을 상호 보장하고 상호 존중하는 성숙한 사회로 전환하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다.

주류 정치권에 과감하게 진출하는 우리 후손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뿐만아니라 재외국민이 본국의 정치에 참여하는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독립운동시절 민족의 사표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렇게 설교했다.

“너의 옳음이 있으면 나의 옳음도 있다. 서로 존중하자. 그리고 그 옳음을 가지고 민족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만들어 가자.”

이에 한인사회 동포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제안한다.

너의 옳음과 나의 옳음을 합하여 공동선을 이루어 보수와 진보가 함께 건강하고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나가자.

보수와 진보 모두 함께 우리 후손에게 자랑스런 선조가 되어 건강한 한인사회를 물려주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자.

모두 함께 어우러져 훈훈한 한인사회를 이루자.

**이병도**

미주팔도연합향우회

중원포럼 회장

YTN Radio.US

“미주한인사회 NOW” 방송진행 및 칼럼리스트

편집자 주: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한국어 위키 백과에서...

보수주의(保守主義, Conservatism)는 관습적인 전통 가치를 옹호하고, 기존 사회 체제의 유지와 안정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정치이념을 말한다.

상대적으로 급격한 사회 변혁을 추구하는 진보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가치로서의 보수는 현상 유지(status quo)를 하거나,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진보주의(進歩主義, Progressivism)는 기존 정치·경제·사회 체제에 대항하면서 변혁을 통해 새롭게 바꾸려는 성향이나 태도를 말한다. 기존 사회체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보수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보수주의의 경우, 혁명이 아닌 점진적 변화, 점진적 진보를 꿈꾸는 온건한 진보주의자도 보수주의자라고도 할 수 있다.



## 코리안 가든의 필요성



원 클라라

이민 역사 100년을 넘어선 우리는 우리의 자손들과 타민족들에게 한국의 우수한 전통 문화를 소개하여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 주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미국에는 이미 삼백여개에 달하는 일본정원과 중국정원이 있어서 그들의 전통적 문화를 소개하고 있지만 한국인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을 심어 줄 전통성을 가진 한국 전통 정원은 단 하나도 없는 것이 우리 민족의 현실입니다.

세계인들의 가슴속엔 아시아 문화하면, 아직도 일본과 중국을 떠올립니다. 미국내 곳곳에 자리잡은 일본의 300여개에 달한 전통정원과 중국정원들이 바로 세계인들의 가슴속에 보고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동양문화를 정착케 하였습니다.

이곳 LA시에 한국정원이 건립된다면, 캘리포니아 뿐만아니라 미 전역에도 영향을 끼칠 만한 엄청난 가치를 지닙니다. 세계인들은 한국이 이룩한 모든 것들에 대단한 감명을 받았으며, 한국문화의 다양성과 그 아름다움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큼니다.

이곳에 한국정원이 건립된다면 아름다운 정원 뿐만아니라 한국의 요리법, 전통춤, 전통미술 등 그 다양한 문화를 미국인들은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남가주 뿐만 아니라 미 전역과 전세계의 방문객들이 모두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 한국문화의 홍보

약 100만명의 한인들이 사는 것으로 추정되는 캘리포니아주는 해외동포 전체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외 한인들이 거주하는 곳으로는 가장 큰 지역입니다. 캘리포니아인들은 LA의 한인타운, 박물관, 축제, 식당, 영화상영 등을 통해서 다양한 한국문화의 일부를 접할 수 있었으나 대규모의 정원같은 공공장소에서는 한국의 전통 문화와 유산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미주 한국문화유산재단에서 추진중인 한국전통정원설계도를 보면〉

### 전통적이고 영감을 통한 설계

한국전통정원 및 문화공간에는 16세기 한국의 유명한 시인 윤선도가 지은 오우가에서 영감을 얻은 다섯가지의 주요 구역이 설정됩니다. 자연의 경이로움에 깊이 취해 마음속 깊은 감정을 표현해 낸 이 시는 다섯가지의 전통 주제 인물, 소나무, 대나무, 바위, 달을 소재로 하여 명예, 생명력, 헌신, 청렴과 같은 미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통적인 테마를 중심으로 하여

- 1) 물의 정원과 주요 건축물
- 2) 소나무 정원
- 3) 대나무 정원
- 4) 바위 정원
- 5) 달빛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정원 내부

한국전통정원 및 문화공간의 정수는 정자관과 물의 정원입니다. 창덕궁의 유명한 비원을 모델로 한 훌륭한 건축 양식은 언덕위에 본관 건물과 계단식 화단 너머로 비치는 연못의 모습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본관 건물은 외국에 건립되는 한국전통 건축물 중 최초의 대규모 건축물이 될 것입니다.



## 문화적 영향과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

한국전통정원 및 문화공간은 미국에 세워질 건축물 중에서 한국인의 문화와 역사를 소개하고 한국 생활풍습을 미국인들에게 전해줄 최초의 대규모 야외 관광지가 될 것입니다. 많은 문화행사를 비롯해 한국의 우수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인종의 관람객들을 끌어모을 것입니다. 또한, 이 문화공간은 한국과 미국의 영화 제작 장소, 웨딩 임대 장소 그리고 아름다운 정원을 활용하려는 한국계 미국인 및 개인, 기업, 기관들을 위한 행사장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할 것입니다. 세계의 역사속에 길이 남을 최초의 한국전통 정원 및 문화공간 건립이 우리 교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이곳 LA시에서 건립될 수 있도록 동포사회의 교민들이 초석이 되어 힘을 합치면 좋겠습니다. 또한 미국땅에서 성공한 기업가들과 독지가들 중 누군가가 개인의 이름을 새겨 이곳에 제1호의 한국전통정원을 건

립한다면 우리 세대는 물론 우리의 후세 대대로 얼마나 가치높은 명성을 남기는 일이 되겠습니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고어가 얼마나 숭고한 사람에게 쓰여지는 말인지를 실감케 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의식주가 힘들었던 70년대에도 우리민족은 건설업으로 외화를 획득하고 경부고속도로를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을 통해 이룩한 나라! 아침의 나라라는 희망적인 평판을 세계속에 심었습니다. 그 우수한 정신이 살아있는 민족이 제2의 언어인 문화를 소외시 한다면 우리는 선진국에 살아도 선진인이 아닙니다.

필자는 교육현장에서 30여년간 아이들과 함께 수많은 박물관을 견학하였는데 그럴때마다 각 민족의 특수성과 다양성의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긴 역사와 문화의 우수성을 담은 조형문화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어 우리 아이들에게 정작 자국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쳐 줄 기회가 없어 발길이 무거워졌습니다.

세계속으로 한류문화가 전파되었지만, 엄격히 말해 강남스타일이 우리의 고유문화가 아니고 K-Pop 역시 그러합니다. 세계인의 가슴속에 한국의 전통문화를 바르게 정착시키며, 우리의 후손들이 흥익인간의 정신이 우리의 고유문화라는 것을 알게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민족의 고유문화를 지키고 바로 세우는 일은 생명을 지키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동포사회의 오랜 숙원 사업인 한국 전통정원 조성 사업이 하루 빨리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미국인 뿐만 아니라 미국을 찾는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운 조형문화를 알리고 우리의 이미지를 재고하는 문화의 장이 되도록 함께 힘을 합쳐야 되겠습니다.

원 클라라  
LA 북부한인회 회장

## 코리안-아메리칸으로의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는?



배국희

“Once you are immigrants, you are immigrants forever.”

영화 ‘West Side Story’ 중에 나온 대사 중 하나로 기억되는데 꽤 오랜 세월 동안 ‘맞는 말이다’ 라고 동감하며 자주 뇌이고 있다.

1970년 8월, 나이 20대 중반에 아무 연고도 없는 미국 땅에 유학생으로 와서 시작된 나의 미국에서의 삶이 어언 45년이 되었다. 내 생애의 2/3에 가까운, 적지 않은 세월을 살아 온 이 곳에서 나는 하이픈 없이, 코리안-아메리칸이 아니라 그냥 아메리칸으로 불릴 수 있을까? 그건 결코 아니다. 100년을 살았다 하더라도…… 아니다.

지난 7월 워싱턴 DC에서의 일이다. 딸 아이와 함께 2박 3일의 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에 참석하고 급하게 공항으로 가기 위해 메트로 역으로 향했다. 시간은 촉박한데 모든 시스템이 낯설었다. 우리가 공항 쪽으로 가는 전철을 타야 하는데 맞게 가고 있는지를 어느 인상이 좋아 보이는 신사에게 물었다. 작은 여행가방을 끌고 가면서 자기도 같은 공항 방향이니 자기를 따라 오라며, 어디서 왔는가 물기에 LA라고 대답했다. “아니 오리지널리 어디?” 딸 아이가 오리지널리 휴스턴, 텍사스라고 대답하니 이번에는 “그럼 너의 부모가 온 곳은?” 하고 묻는다. 역시 원래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처음부터 묻고

있었던 것이다. 하이픈 없는 그냥 아메리칸이 될 수 없는 우리다. 그렇다. 우린 한국사람, Korean-American이다.

지난 해 한국에 사는 탈북자(자유인이라 불렀다) 청년들이 이 곳 LA를 방문했을 때, 우리 이민 초기 선조들이 물려 있는 로즈데일 묘지, 대한인국민회기념관, USC 캠퍼스 내의 도산 안창호기념관, 그리고 리버사이드의 도산 동상 등을 안내하며 온 종일 함께 행동한 적이 있었다. 이들 탈북자 청년들이 당면한 가장 절실한 문제중 하나가 그들의 ‘정체성’ 문제라고 그들을 한국에서부터 인도해 온 인솔자가 이야기 했다. <나는 이제 남한 사람인가? 아니 탈북한 북한사람? 탈북한 남한사람?...>

USC 한국학연구소의 일레인 부소장이 요즘 USC 캠퍼스의 한국 학생들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이야기하면서 유학생 중엔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한국사람도 있었다고 했다. 정체성의 문제는 미국에 사는 우리나라, 탈북자로 한국에 사는 우리 형제의 문제일 뿐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문제임을 깨달았다.

1년, 10년, 그리고 45년을 살았어도, 아니 지난 6월 세상을 떠난 도산의 맏딸 안수산 여사 처럼 100년을 넘게 이땅에 살았어도 우리는 코리아가 내 안에, 내가 코리아 안에 굳건히 자리하고 있음을 매일 매일, 순간 순간 느끼며 살

고 있지 않는가?

코리아가 내 아메리칸네스를 굳건히 지켜 줌을 확인케 한 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에 참가해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배웠다. 우리가 미국 시민으로 열심히 충실히 살아가고 있다고 이 나라 정치인들에게 알리는 것이 지금 내가 내 조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애국이라고 생각했기에 짧은 일정에 거금(?)을 들여서 큰맘 먹고 참가했다. 얼마나 잘 결정한 일인가 내 어깨를 두드리고 자신을 칭찬한다.

올 해로 두번 째로 열린 이 모임은 AIPAC (America Israel Public Affairs Committee)을 벤치마킹 해서 작년에 처음 시작된 모임으로 코리아-아메리칸으로서 미국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참가자들에게 크게 일깨워 주었다.

이번 참가로 새삼 깨달은 점은 ‘국력 없인 외교 없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위상이 지금의 위치에 달하지 못했다면 어느 상·하원 의원들이 우리를 만나 줄 것이며 우리의 갈라에 자신해서 참석해 연설을 자청하겠는가? 콜로라도의 한 하원의원실엔 그의 사무실 책상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한 사진이 자랑스럽게 놓여 있어 우리를 흐뭇하게 했다.

이 모두가 우리 조국의 위상이 국제 사회에서 상당히 높아졌음을 증명해 주고 있었다. 다만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가진 우리가 그 위상에 걸맞는 아니 그 위상을 한 층 더 끌어 올리도록 미국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하겠다.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에 애국하는 길이라 믿는다. 자랑스러운 코리아가 앞에서 아메리칸을 밀어 주는데(Korean-American) 언제 누가 정체성 문제로 고민 하겠는가?

올해 광복 70주년, 일제의 잔혹한 암흑 속에서 헤매다 빛을 되찾은지 70년이 되었다. 불의에 분개하여 항거하였고 빼앗긴 나라 되찾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운 우리의 순국 선열, 애국지사들을 기억하며 깊이 감사한다. 한 국가가 지구상에서 영원히 그 흔적도 찾기 힘들게 사라져버리고만 사례들을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다. 하나의 어엿한 독립국이었던 류큐국이 일본의 강제 병합으로 오키나와 현이 되고만 사례가 가까이에 있다.

독립이 절대로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다. 나라 안에서 그리고 나라 밖에서의 우리 선열들의 목숨을 건 투쟁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도 예의 다른 술한 나라들 처럼 어느 강대국의 한 식민지로 전락 되었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70년 전 잃었던 나라는 찾았으나 불행히도 우리는 남북분단의 비극을 아직도 겪고 있다. 통일 없이는 완전한 광복이 이루어졌다 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우리 모두가 통일코리아의 비전을 가지고 무엇으로 나의 역할을 담당할까 고민해야 한다.

통일 코리아, 하나의 코리아를 이루는 날, 우리의 탈북자 형제들의 역할이 막중해질 테고 그때엔 그들이 이제 내가 남한사람인가, 탈북자 북한사람인가 아니면 탈북자 남한사람인가를 고민하는 정체성의 문제가 시원히, 확실히 훗날 사라질 것 아닌가?

대한민국 만세 !!!  
코리아-아메리칸 만세 !!!  
통일 코리아 만세 !!!

**배국희**  
광복회 미국서남부지회 지회장





## LA 광복70주년 경축 행사를 지원해 주신 단체장님들





# 편집 후기



이 책이 L. A. 한인 동포 사회의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기를 바라면서……

광복 70주년 범동포준비위원회는 3개월 전부터 매주 정기 모임을 하며 어떤 어떤 행사를 해야 광복 70주년이 빛날지 고민했다.

광복 70주년 경축 행사가 우리들에게는 ‘오늘’의 일이지만 후손에게는 ‘역사’가 됨을 생각할 때 무엇인가 오늘의 기록을 남기고 싶었다.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는 책을 발행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책을 발행하기로 결정하고 우리는 어떤 내용의 책을 발행해야 동포들에게 가장 의미있는 내용이 될까를 고민 했다. 더구나, 한 달 정도의 시간에, 어떤 제목으로 또 누구의 글을 담아야 좋을 까를 고민했다.

우리는 내용의 기본 방향을 (1) 광복 70주년을 경축하고, (2) 우리의 뿌리를 찾아 그것을 후세에게 전하고, (3) 앞으로 우리, 그리고 후세가 나아가갈 방향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인사들에게 취지를 말씀드리고 원고를 청탁하였다.

청탁 받은 대부분의 인사들은 쾌히 승낙하고 취지에 맞는 원고를 보내 주셨다. 원고를 받을 때마다 얼마나 반갑고 고마웠는지.. 다시 한번 감사 드린다.

그리고 이번 기념 책 발행과 행사를 위해 후원을 아끼지 않은 단체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책 발행에 물심양면으로 참여하고 후원해 주신 LA한인회 제임스 안 회장님께 특별히 감사드린다. 그리고 모든 행사 준비와 이 책의 발행을 위해 저녁 늦게까지 많은 수고를 해주신 L.A. 한인회 사무국 Jeff 이 국장님과 방초록님께 감사함을 표한다.

짧은 시간에 준비하다보니 부족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각각의 글 내용은 모두 글쓴이의 의견임을 밝히며, 광복 70주년 범동포 준비위원회나 후원 단체/후원자들의 뜻과는 무관함을 밝혀둔다.

## 광복 70주년 범동포 준비위원 및 편집위원 일동

공동위원장: 길민택, 경정아  
위원: 백지영, 로라전, 클라라원, 이내운, 이병도, 티나리

Copyright Permitted Uses; Restrictions on Use All writings and photos in this book are protected by copyright law. Copyright © 2015 The Los Angeles Special Committee for the Celebration of the 70th Anniversary of Korean Independence. All rights reserved.



광복70년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제3부

협찬해 주신 단체 및 기업들

# 70 광복 70주년을 경축합니다.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your support!*

제임스 안 회장 LA한인회  
 홍명기 밝은미래재단  
 김형호 회장 LA노인회  
 길민택 이사 LA한인회  
 티나리 회장 재미어머니봉사회  
 홍순옥 회장 미주 3.1여성동지회  
 박종대 회장 미주한국문화유산재단  
 클라라 원 회장 LA북부한인회  
 케니조 회장 남가주부동산협회  
 김혜자 회장 남가주한인간호협회  
 조인하 회장 로스앤젤레스한인회 23대  
 차종환 원장 한미교육연구원  
 잔서 회장 미주도산기념사업회  
 잔서 회장 한미경제개발연구소(KAEDC)

아놀드유 대표 Jean Mart  
 서영석 회장 라크라센타 타운의원, 전 LA한인회장  
 박상준 회장 우정의증각보존위원회  
 김봉건 회장 자유대한지킴이국민운동본부미서부지회  
 김해룡 회장 "호국영웅. 국가유공자.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미서부지회"  
 Ted oh 미주한미시민권자협회 / Ted oh 대표 CRI 건축  
 강일한 이사장 로스앤젤레스한인회  
 김재권 회장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이병도 회장 미주팔도연합향우회  
 임태량 회장 민주평통LA협의회  
 박흥기 회장 재향군인회미서부지회  
 김학천치과 / Arado 광고 / Jenny An 안씨네 김  
 서울메디컬 / 수잔강 메디컬광고 / 한국장외사 / 무명

## 70 광복 70주년을 경축합니다.

**한미교육연구원**

원 장 **차종환**

## 70 광복 70주년을 경축합니다.

**라크라센타 타운의원  
 전 LA한인회장**

회 장 **서영석**



**79** 광복 70주년을 경축합니다.



**회장 아놀드 유**

Tel: (323) 752 – 7775  
e-mail: [info@jeanmartinc.com](mailto:info@jeanmartinc.com)

70 광복 70주년을 경축합니다.



## 로스앤젤레스 한인회

이사장 **강일한**

70 광복 70주년을 경축합니다.



### 우정의 종 보존위원회

회 장 박상준  
이사장 이봉수



## ARCHIBALD DENTAL OFFICE

**HAK-CHEON KIM, D.D.S.**  
*General Dentistry*

2550 S. Archibald Ave., #M  
Ontario, California 91761

Tel. 909.923.6622

Fax. 909.923.3143

[www.archibalddental.com](http://www.archibalddental.com)

**70** 광복 70주년을 경축합니다.



## 미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 김재권

**70** 광복 70주년을 경축합니다.

호국영웅. 국가유공자.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미서부지회

회 장 김해룡

**70** 광복 70주년을 경축합니다.

자유대한지키기  
국민운동본부  
미서부지회

회 장 김봉건

70 광복 70주년을 경축합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Korean Veterans Association

# 재향군인회 미서부지회

회장 **박흥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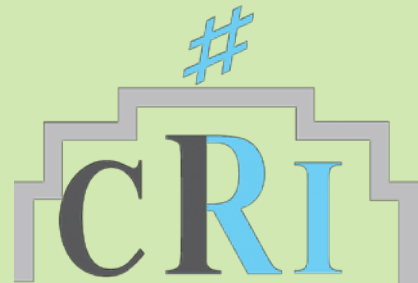
70 광복 70주년을 경축합니다.



**미주한미  
시민권자협회**  
US KOREAN AMERICAN  
CITIZENS' ASSOCIATION

**TED OH**  
213. 268. 7557

70 광복 70주년을 경축합니다.



대표 **TED OH**

**CRI건축**  
내진공사 ·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WATER DAMAGE · FIRE DAMAGE  
MOLD SPECIALTY

Tel. 213.353.0003



**70** 광복 70주년을 경축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 LA 협의회

회장 임태랑

**70** 광복 70주년을 경축합니다.



**미주  
도산기념사업회**

회장 잔서

**70** 광복 70주년을 경축합니다.



**한미경제개발연구소  
(KAEDC)**

회장 잔서


70 광복 70주년을 경축합니다.



# 미주팔도연합향우회

회장 이병도

70 광복 70주년을 경축합니다.

 **안씨네**  
옥돌김

Jenny An

AHNSINAE CO.  
1045 S. Western Ave., # B.  
Los Angeles, CA 90006  
Tel. (323) 733-8949  
Cell. (323) 734-8401



“맛이 다르고, 멋이 다르고,  
서비스가 다른 아라도”

*Exceptional Taste, Exceptional Decor,  
Exceptional Service.... Arado!*



귀한 모임을 위한  
프라이빗룸을  
준비했습니다.



**Arado**  
아라도 • Japanese Restaurant

4001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213) 387-1199  
[www.aradosushi.com](http://www.aradosushi.com) 

**70** 광복 70주년을 경축합니다.



## 메디케어 어드밴타이지 & 서플먼트플랜(HMO, PPO)

치과 / 처방약 / 한방침술  
교통편 제공 / 해외여행 응급시 혜택

County: LA, ORANGE, SAN BERADINO, RIVERSIDE,...

무료상담 **213. 435. 2990** 강수잔  
월요일 ~ 일요일 오전 8시 ~ 오후8시

TTY 사용자는 1-800-735-2929로 연락주세요.  
메디케어 기관에서는 이 광고 내용을 검토, 지지하지 않습니다.



SUSAN KANG  
GUARDIAN ANGELES  
INSURANCE AGENCY  
수호천사보험  
CA LIC #0G51215

**70** 광복 70주년을 경축합니다.



23대  
로스앤젤레스한인회

회장 조인하

**70** 광복 70주년을 경축합니다.



남가주  
한인간호협회

회장 김혜자

30년 전통의 —

저렴한 비용 · 친절하고 정직한



# 한국 장의사

## HAN KOOK MORTUARY

(친절한 한국인 카운셀러들이 연중무휴 24시간 전화 서비스 해 드립니다.)



### ♠ LA 본사

(License #FD-74)

**Tel (323)734-5656**

Fax: (323)734-2427

2045 W. Washington Bl., LA, CA 90018

(Washington 선상 Western 과 Normandie 사이)

### 한국 장의사 LA본사및 Cerritos/Norwalk 체들은

- ▶ 정직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 영면에 맞추어 품격 있는 장례로 SERVICE 해 드립니다.
- ▶ 안인타운 중심 안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여 조문객이 많이오시고 편리 해 아십니다.
- ▶ 호텔처럼 깨끗하고 편안안 분위기에서 SERVICE 하여 드립니다.
- ▶ 영상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아름다운 채플, 넓고 안전한 주차장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 ▶ 문상 예배 우 손님접대를 위한 식당들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편리합니다.



### ♠ 세리토스·놀웁 지사

(License #FD-1134)

**Tel (562)868-0788**

Fax: (562)868-2808

12325 Rosecrans Ave., Norwalk, CA 90650

(Rosecrans 선상 Norwalk 과 Bloomfield 사이)

- ♠ 매장, 화장, 이장, 장례보험 등, 장례에 관한 모든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 ♠ 거동이 불편하신분, 많이 편찮으신 분도 장례보험이 가능합니다.



어르신들이 강력히 추천하는 남가주 최고 최대의 한인 메디컬 그룹!

메디케어 HMO는 전문의 허가(Refer)가 가장 쉬운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함께 하십시오.



**희소식!**

서울 메디칼 멤버분들을 위한 **야간 진료 클리닉**이  
코리아타운 중심에 오픈 했습니다.  
운영시간: 월~금, 6pm~10pm 505 S. Virgil Ave. #101, LA, (213)384-4000

서울 메디칼 그룹이 가진  
**메디케어 건강보험**

메디케어, HMO 건강보험을 가지신 분들은  
꼭 서울 메디칼 그룹으로 바꾸십시오.  
최고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asy Choice** 이지 초이스 메디케어 HMO 보험

Health Net 헬스 넷 United HealthCare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Humana 휴마나 Central Health 센트럴 헬스  
LA Care 엘에이케어 Care 1st 케어 퍼스트 Blue Shield 블루 실드 Brand NewDay 브랜드 뉴데이

- ✓ 서울 메디칼 그룹은 현재 남가주 최고, 최대의 한인 메디칼 그룹입니다. 메디칼 그룹(PA)는 크고 튼튼해야 합니다.
- ✓ 서울 메디칼 그룹은 현재 17,500명의 환자분들이 서울 메디칼 그룹의 의사를 주치의로 정해 치료를 잘 받고 있습니다.
- ✓ 서울 메디칼 그룹은 현재 남가주에서 가장 전문의 허가(Refer)를 잘해 주는 메디칼 그룹의 하나입니다.
- ✓ 서울 메디칼 그룹은 대단히 실력이 뛰어난 많은 의사들이 참가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영단참초)
- ✓ 서울 메디칼 그룹은 어르신들을 위한 **안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항상 **대환영**입니다.

# 우리나라전도

1 : 2,000,000  
(통촌 해안기상권 지도)

- 지방자치단체
- 시정읍사무소
- 군정사무소
- 주요도로
- 국도
- 지방도로



# 광복 70주년 기념

The 70th Anniversary of Korean Independence

발행 LA 광복 70주년 범동포 준비위원회

Published by  
The Los Angeles Special Committee for the Celebration of  
the 70th Anniversary of Korean Independence